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5  
2012 May Vol.245



아리

서천꽃그늘



부산 MBC 창사 53주년 기념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Hector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PROGRAM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R.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 제1번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2012. 5. 25 금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첼로 양성원



호른 만 이  
Man Yi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바이올린 여제의 귀환

# 정경화 바이올린독주회

## 손가락 부상 딛고 불굴의 의지로 돌아오다

불꽃 튀는 열정과 비르투오시티(Virtuosity)의 뒤편에서  
자신이 깨달은 음악의 정수를 나누기 위해  
다시 그녀가 오고 있다.  
우리는 다시 콘서트홀 객석에 앉아야 한다.  
대한민국 클래식 넘버 원의 전설,  
정경화의 음악인생, 그 3막이 시작된다.  
(류태형/음악평론가)



Piano | Kevin Kenner

### PROGRAM

L.v.Beethoven : Violin Sonata No.5 in F Major Op.24 <Spring>

베토벤 |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S. Prokofiev : Violin Sonata No.1 in f minor Op.80

프로코피에프 | 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f단조 작품80

C. Frank : Violin Sonata in A Major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2012.6.1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강동병원

회원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www.busanarts.com](http://www.busanarts.com)

(문화회관 정기회원 5% 할인, 10매 이상 단체 10% 할인)





# 을숙도명품콘서트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권혁주

김다솔

## Program

「Maurice Ravel」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2 in G Major  
「Igor Stravinsky」 Divertimento

## INTERMISSION

「Sergei Prokofiev」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1 in f minor, Op.80  
「Maurice Ravel」 Tzigane : Rhapsodie de Concert for Violin and Piano

일시 **2012. 5. 8** (화) 오후 8시 장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051)220-5805

금액 균일 2천원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주관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관람 초등학생 이상 가능

후원 문화재단 부산인원방송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일투데이뉴스 [www.saharilnews.co.kr](http://www.saharilnews.co.kr)

스텝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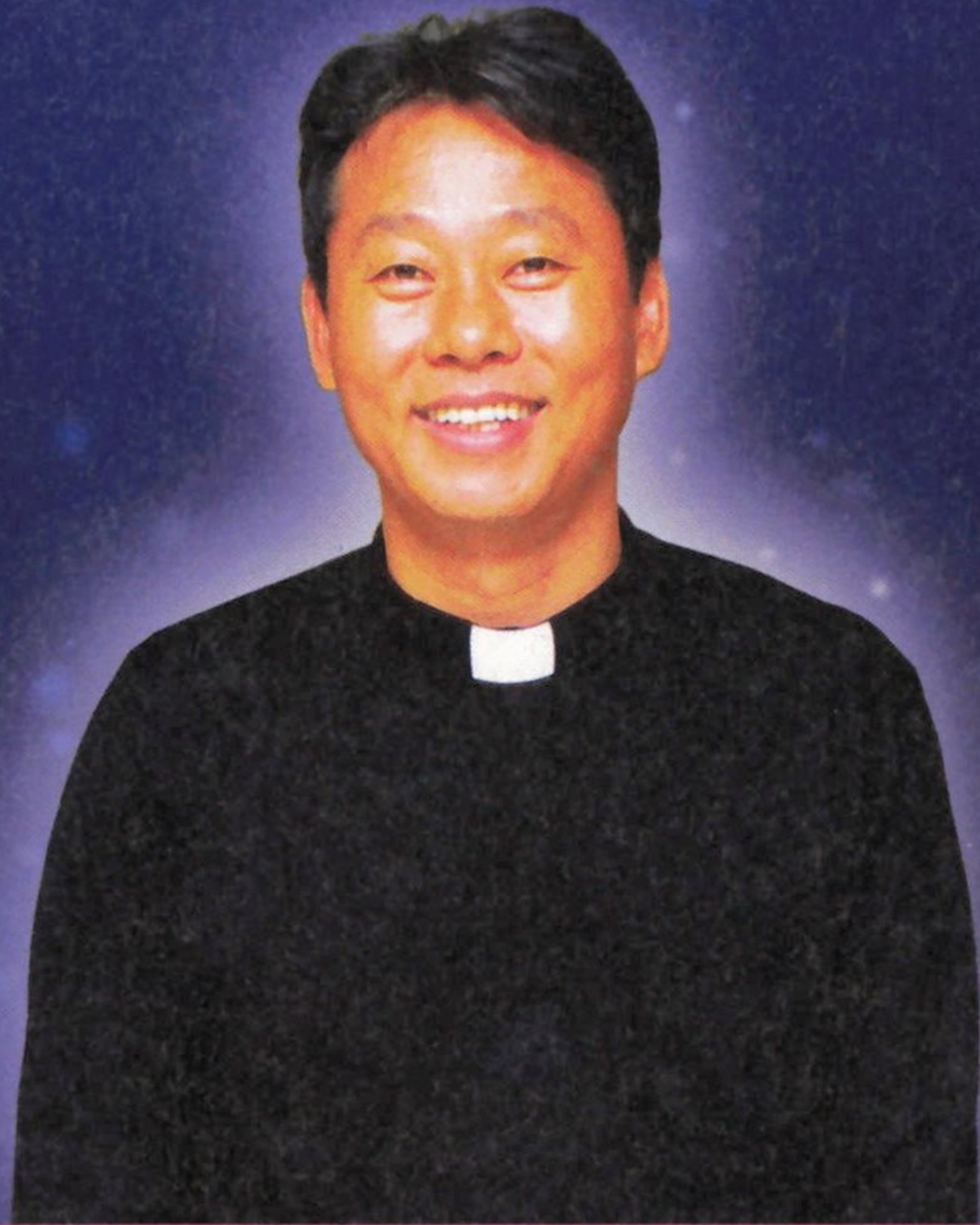
BS BS금융그룹 과 함께하는

#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2. 5. 27.(일)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故 이태석 신부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의 봉사,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잔잔한 번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프라노 박은주



테너 강학운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지휘 오충근  
(고신대 교수)

Program

- 베르디 /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 도니제티 / 오페라 '루치아' 중 <사랑의 이중창>
- 푸치니 /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김동환 / 그리운 마음
- 김연준 / 청산에 살리라
- 이태석 / 오케스트라를 위한 <목상> 4 수곡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주최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후원



문의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051) 637-0125  
http://cafe.daum.net/johnlee1004

관람신청 BS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본 자선음악회의 후원은 현장기부로 가능하며, 이태석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에 쓰여집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본 공연은 2012년 부산광역시 시비보조금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프로그램

한국작곡가 시리즈 II 백승태 - 눈꽃, 누나생각, 아침인사

특별출연 바리톤 배정행 반주 문상인 - 옛동산에 올라,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중 "Non piu andrai(이제는 날지 못하리)"

특별출연 부산색소폰콰이어인프로 - Korean Sound Collection V, Rock'n Roll Medley, Nobody Remix

특별출연 용산초등학교합창단 (지휘: 박지용) - 아리랑, 그 날을 위해, 똥보새

소고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효경, 박세미, 공선연, 박소영, 지유정 (징-김대희, 북-박건, 장고-이유정, 팽과리-이상윤)

감사의 합창 - 하늘 천 따지(특별출연 훈장역: 이혁우 - 시립극단), 아리랑 연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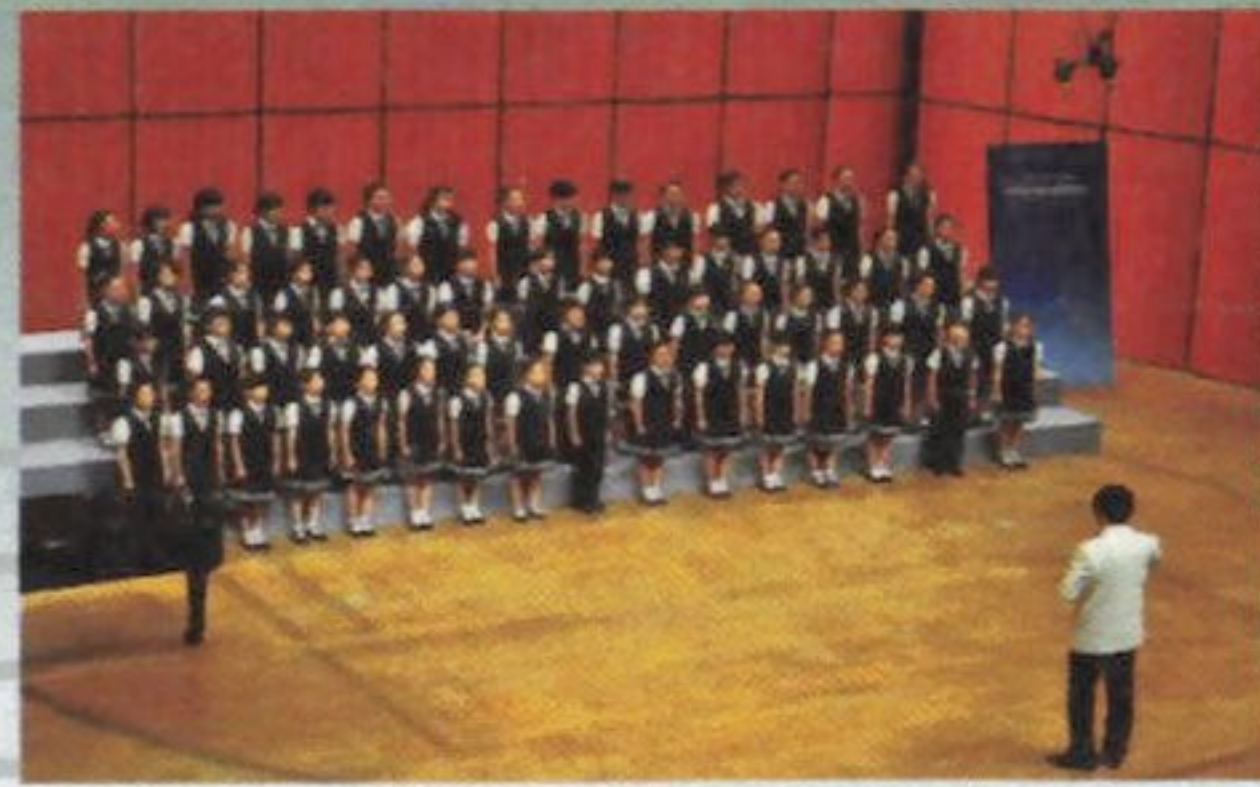
반주 : 이영옥 안무지도 노금선 합창지도 김양자



바리톤 배정행



지휘 박지용



용산초등학교합창단



부산색소폰콰이어인프로



작곡가 백승태

2012. 5. 19(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료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초대권배부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607-3161~2)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바리-서천 꽃 그늘'
- 10 프리뷰
- 18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수석 지휘자 오세종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혁명 그리고 오페라 \_ 이재걸
- 24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⑤ | 소포클레스와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_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로시니 ③ | 경쾌한 리듬 유려한 선율 \_ 김종천
-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⑥ | 시는 풍류를 담고 \_ 변광석
- 30 그곳에 가면 | 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
- 33 우리는 문화가족 | 한새해금연구회
- 34 리뷰 | 황나현 - 숲을 담은 집 A Forested Home \_ 박미경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8회 정기연주회 \_ 신설령
- 36 테마가 있는 여행
- 39 나의 애청음반 | 하프의 선율에 5월을 신고 \_ 조영석
- 41 CULTURE LIFE
- 65 부산문화회관 소식
- 6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5월호 통권 245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4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세상이 버린 버리데기  
세상을 버리고  
황천강 건너  
서천꽃밭 가리라  
세상이 버린 버리데기  
버린 이를 구하리라

---



# 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 춤으로 다시 살아난 바리데기 공주 孝 이야기

# 바리

## 서천꽃 그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련과 죽음도 비켜가는 바리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무용극 '바리-서천꽃 그늘'로 새롭게 탄생된다.

우리시대 효(孝)의 중요성을 춤으로 알리기 위해 황해순의 대본과 연출, 최찬열의 드라마투르기 작업을 거쳐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의 안무로 첫선을 보이는 '바리-서천꽃 그늘'은 바리데기 설화와 물의 이미지를 대비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춤으로 형상화한 무용극이다.

아버지를 살린 전통설화 바리데기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창작무용과 시각적인 영상을 가미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바리-서천꽃 그늘'은 자신을 버린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찾아 험난한 길을 떠난 바리의 지극한 '효'를 우리 춤사위와 단원들의 현대적인 몸짓으로 풀어냈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태평무를 현대화시킨 태평성대, 강강술래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만든 다리길, 검무를 팔대지옥의 험난한 과정으로 묘사한 다양한 춤으로 '삶'과 '죽음', '삶과 죽음 사이' 3개의 장, 8장면으로 '바리-서천꽃 그늘'을 담아냈다.

'삶'을 형상화한 장면 1은 프롤로그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바리데기가 굵이굽이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을, 장면 2는 오구대왕과 혼돈을 그린 장면으로 왕이 병들어 혼란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 바리를 찾게 되는 '다시 바리로부터'가 펼쳐진다.

'죽음'을 형상화한 장면 3-휘이휘이 서천길, 장면 4-황천강을 건너-빨래 할미, 장면 5-아흔아홉 다리길-다리길 할아범, 장면 6-팔대지옥:염라대왕과 지옥마왕춤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한없이 낮추어 하늘을 공경하고 자신의 온 몸을 바쳐 세상을 위해 베풀고 황천길로 가는 지극한 효의 상징 바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삶과 죽음사이'를 형상화한 장면 7은 '서천꽃 그늘 생명수를 얻다', 장면 8-에필로그를 담은 무대에서는 바리 자신이 늦게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가 이미 저승길을 떠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통한의 눈물, 지난날의 원망, 서러움, 아픔,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내린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오구 대왕과 땅의 사람들은 땅의 모든 평화가 바리의 희생으로 얻었음을 알고 바리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감사한다.

효의 상징 '바리공주'로는 부수석 단원 정진희(17일), 부수석 단원 오수연(18일)이 열연한다.

일 시 : 5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입장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Preview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 가족사랑콘서트 천원의 행복

| 5월 1일 - 5월 31일 오후 7:30 |

|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등 부산 시내 區문화회관 |

● ●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족사랑 콘서트-천원의 행복'이 5월 한 달간 부산지역 區문화회관 전역에서 펼쳐진다.

2010년부터 기획된 '가족사랑 콘서트-천원의 행복'은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이 있는 區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비용과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5월 1일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Te Quiero(그대를 사랑합니다)'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픈 스트링스와 함께하는 가족, 사랑 그리고 행복',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국악의 향기속으로',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관 '효녀심청' 등 총 8회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참가한 마술사들이 을숙도문화회관과 동래문화회관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매직 갈라쇼'를 펼친다. 일루전 마술의 달인인 유지 야스다를 비롯해서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마술사 유현민, 관객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신개념 마술사 김태원 등 한국의 대표적인 마술사들이 세계 수준의 마술 갈라쇼로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입장권 : 균일 1,000원(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5월 1일(화) 오후 7:30 | 북구문화빙상센터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Te Quiero(그대를 사랑합니다)

남촌, 남이 오시는지, The Sound of Music <세계민요> Foster 모음곡 Te Quiero, Waltzing Matilda, Jamaican Market Place,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흥부 이야기 문의\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5월 3일(목)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Te Quiero(그대를 사랑합니다)

Mass in Honor of St. Joan of Arc, Te Quiero Waltzing Matilda, Jamaican Market Place The Sound of Music, <세계민요> Foster 모음곡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흥부 이야기 문의\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5월 10일(목)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 오픈스트링스와 함께하는 가족, 사랑 그리고 행복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비숍 '즐거운 나의 집' 드라마 '황진이' 중 '꽃날' 영화 '이웃집 토토로' 중 '이웃집 토토로'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영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 문의\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

5월 11일(금)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 크로노스 앙상블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의 집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제1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비숍 '즐거운 나의 집' 벌린 '푸틴 온 더 리츠' 존스 '소울 보사 노바' 빌리지 피플 'Y. M. C. A' 로사스 왈츠 '파도를 넘어서'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몬티 '차르다시 제1번' 문의\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

5월 15일(화)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과 함께하는 매직 갈라쇼

매지션 유현민의 실크 매직 매지션 김태원의 편&비주얼 매직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 매지션 유현민의 동심에 젖어 드는 바람개비 마술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2 매지션 박은경의 마술과 오페라의 만남 '카르멘'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3 매지션 이훈의 마술사의 백스테이지를 공개한다! '파워 매직!' 매지션 유지 야스다의 환상적인 일루션 매직! 문의\_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5월 16일(수)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과 함께하는 매직 갈라쇼

매지션 유현민의 실크 매직 매지션 김태원의 편 & 비주얼 매직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 매지션 유현민의 동심에 젖어 드는 바람개비 마술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2 매지션 박은경의 마술과 오페라의 만남 '카르멘' 매지션 임홍진의 토크 매직3 매지션 이훈의 마술사의 백스테이지를 공개한다! '파워 매직!' 매지션 유지 야스다의 환상적인 일루션 매직! 문의\_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5월 17일(목) 오후 7:30 | 영도문화예술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국악의 향기속으로

판소리(판소리/정선희, 고수/송강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시나위 해금중주곡 '적념' 흥동기 '고구려의 혼'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김선제 '아름다운 인생' 문의\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

5월 31일(목)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마당춤 춤으로 피어나는 [효녀심청]

제1마당 사랑과 효 제2마당 인당수 제3마당 효는 빛이 되어~ 주요배역-권봉정(심청), 김병주(심봉사) 김동숙(곽씨부인), 장래훈(왕) 김진영(뽕덕어미), 이성원(화주승) 문의\_ 부산시립무용단(607-3131)



#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공연 7080가요합창음악회

## 사계(四季)-풀잎사랑

| 5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박광하

해설 오동주

바이올린 조현미

● ● ● 7080 세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가요합창음악회 여덟 번째 무대가 5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가요합창음악회'는 그동안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품격 있는 가요합창과 해바라기, 이정선, 안치환 등 가수들이 함께 꾸미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매년 많은 청중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박광하 지휘, 부산시립합창단 기획담당 오동주가 해설로 7080 가요합창음악회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가요합창의 사계(四季)-풀잎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날 수 있는 가요곡들을 합창으로 편곡, 특별한 무대를 연다. 이번 무대를 위해 대중가요계의 신사로 불리는 가수 최성수가 특별출연하고 신라대학교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가 세션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은 최성수는 1983년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로 가수로 데뷔한 이래 KBS 프로듀서가 뽑은 올해의 가수상(1988), KBS, MBC 10대 가수상 수상(1988년, 1990년) 백상 예술대상 수상(1988) 등을 수상하며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다.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는 비르투오조 앙상블, 뮤즈 앙상블,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부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오케스트라 등과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최성수의 히트곡 '풀잎사랑'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꿈의 대화'로 이루어진 '봄'을 시작으로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추억' 등으로 이루어진 <여름>, 'J에게', '해후', '동행'으로 이루어진 '가을', '창밖의 여자', '별이 빛나는 밤에'로 이루어진 겨울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감성을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들려준다.

7080 가요합창음악회를 위해 부산시립합창단 편곡 담당 작곡가 최석태와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편곡자 문지은이 편곡을 맡아 향수 어린 우리 가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성수

입장권 :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부산MBC 창사 53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 5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리신차오

첼로 양성원

호른 만이

● ● ● 부산시립교향악단이 5월 25일 계절의 여왕 5월과 어울리는 화려하고도 감미로운 낭만주의 음악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호른수석 만이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차이코프스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R.슈트라우스의 웅장하고 대담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호른 협주곡 제1번', 환상과 낭만이 가득한 베를리오즈의 대표작 '환상 교향곡'으로 화려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양성원은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다. 끊임없는 도전 의식과 왕성한 연주 활동으로 세계를 향하여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LG 사랑음악학교 음악감독, 영국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성원이 연주하는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전성기에 작곡된 곡으로 양성원의 풍부한 톤과 섬세한 연주로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주고받으며 전곡에 걸쳐 다양한 느낌을 전해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지난 3월 부산시립교향악단 호른 수석으로 부산활동

을 시작한 중국출신의 호른주자 만이(Man Yi)가 들려주는 R.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 제1번'.

2004년 중국 국립 프렌치 호른 콩쿠르(베이징) 영재 아티스트 상, 2007년 중국 국립 프렌치 호른 콩쿠르(베이징) 1위를 차지한 만이는 중국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중국 국립오페라 하우스, 광저우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이나 필하모닉, 도이치 심포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싱가포르 심포니 등을 거치면서 참신한 테크닉과 열정적인 선율로 사랑받아왔다. 2005 & 2006 세이지 오자와 뮤직 페스티벌(일본), 2006 영유로 클래식 페스티벌(베를린), 2005 베토벤페스티벌(본) 등에 참가한 만이는 중국을 대표하는 호른리스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만이가 들려주는 호른 협주곡 제1번은 R.슈트라우스가 뮌헨 궁정 관현악단의 수석 호른 주자였던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만년 작품의 분위기를 연상케하는 대담하고 빛나는 면모를 지니고 있는 웅장한 곡이다.

2부는 연주회의 메인 테마인 베를리오즈의 대표작 '환상 교향곡'으로 장식한다.

'어느 예술가의 생애'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환상 교향곡'은 베를리오즈의 정열적인 로맨티시즘이 잘 표현된 그의 대표작인 동시에 음악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다. 베를리오즈가 24세 때 사랑하게 된 셰익스피어 극단의 프리마돈나 스미드슨과의 이별이후 사랑, 지옥과 고뇌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Preview

##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 5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故 이태석 신부

지휘 오충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테너 강학운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 ● ●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다 숨진 故 이태석 신부를 기리는 기념음악회가 5월 27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의사이자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는 톤즈 마을에서 교육, 종교,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다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태석 신부의 아름다운 삶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바 있다. 1962년 부산에서 출생한 이태석 신부는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살레시오회 입회,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사제 서품 후 아프리카로 건너가 남수단 톤즈마을에서 의료·교육 봉사 활동을 펼치다 2010년 1월 선종(향년 48세)했다.

지난해는 이태석 신부의 고향인 부산에서 故 이태석 신부의 뜻을 기리는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장호)가 구성되어 이태석 봉사상 제정, 청소년 음악제, 이태석 리더십에 관한 청소년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이태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사)부산사람 이태석기념사업회에서 평소 음악을 좋아한 이태석 신부를 기리며 그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하는 무대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가, 동요를 작곡하며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 신부는 아이들에게 관악단 지도를 할 만큼 음악적 소양이 깊었다.

이번 기념 음악회에서는 노래와 음악으로 이태석 신부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소프라노 박은주를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하윤지, 테너 강학운,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이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열어준다.

에리과 쿼트 성악콩쿠르 1위,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및 다수의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한 박은주는 1995년 Lucia di Lammermoor로 유럽 무대 데뷔, 비엔나 국립오페라단, 베를린, 하노버,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만하임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다수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했다. 박은주는 특히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 팔렌주 최고의 성악가 선정(2003), 유럽의 음악 잡지 Opern welt에서 브레멘, 함부르크주 최고의 소프라노 선정(2009), 독일 중앙지 프랑크 푸르트 알게마이네에서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2010년)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이태석 신부가 직접 작곡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묵상>'이 함께 연주된다.

입장권 : 무료(관람신청은 팝부산,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이철수 목판화 30년 기획 초대전

# 새는 온 몸으로 난다

| 5월 1일(화)~5월 10일(목) | 해운대문화회관 전관, 화인갤러리 |



● 새는 온 몸으로 난다

● ● ●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목판화가 이철수가 지난 30년 마음으로 새긴 목판화 30년 기획 초대전 '새는 온 몸으로 난다'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전관, 화인갤러리에서 열린다. 2005년 '작은 것들'로 부산에서 초대전을 가진 이후 7년 만에 갖는 전시회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

목판화가 이철수는 1981년 첫 개인전을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압적인 사회에 보내는 저항의 언어들로 1980년대 판화를 통한 현실 변혁운동에 열정을 쏟았다.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선가의 언어방식을 끌어온 촌철살인의 화제들 혹은, 시정이 넘치는 짧은 글이 어우러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의 판화는 '판화로 시를 쓴다'는 평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와 글씨와 그림이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철수

의 새로운 판화들은 삶이 곧 그림이라서 따뜻하고 깊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만 아름다움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으리라는 작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판화집, 판화산문집, 엽서산문집 등 많은 저서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이철수 화백의 지난 30년 작업을 되돌아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작업해온 작가의 일상과 면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11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개인전에 출품되는 작품 113점에는 지난 2005년 전시회 이후 제작한 작품(신작) 55점과 1981~2005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 중 그동안 사람들이 특히 많이 기억하는 작품들, 작가 자신이 마음이 가는 작품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활용도와 효용성이 컸던 작품들을 중 선정한 58점이 포함되어 있다. 58점 중에는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1980년대의 작품 21점, 충북 제천으로 이주한 이후인 1990년대의 작품 20점, 2000~2005년에 제작된 작품 13점 포함되어 있어 이철수 화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개막식 : 5월 1일(화) 오후 6시 해운대문화회관

출품작 : 총 113점 (2005년 이후 제작 55점 포함)

작가와와의 대화 : 5월 1일(화) 오후 3시, 해운대문화회관

입장권 : 무료

문의 : 배인석(010-4552-9830)



# Preview

##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 춤! 바다를 품다

| 6월 1일-6월 5일 금-화요일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

● ● ●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용제 2012 부산국제무용제(운영위원장 김희은)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소통과 화합'을 키워드로 세계 14개국의 우수한 춤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초청공연을 비롯해 AK(Art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BID 춤아카데미, BID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2012 부산국제무용제는 3월 25일부터 시작된 시민 춤 릴레이, 찾아가는 홍보공연, 스트리트 홍보공연으로 무용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다. 지난 2010년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홍보대사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부산출신의 발레리노 김용걸과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부산국제무용제의 홍보대사, 프로그래머로 참여해 더욱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부터 초청단체 공연 후 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 안은미가 추천하는 세계 10여 개국의 무용영화 10여편을 상영하는 댄스필름페스티벌이 해운대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미국 Ghostcatching(1999년), 캐나다 The Village Trilogy(1995), 스위스 Reines d'un Jour(Queens for a Day), 프랑스 Le Petit Bal(1994), Erè Mèla Mèla (2000), 미국 Nora(2008), 영국 Motion Control(2002) 등이 상연된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 프로그램 선정의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이다. 세대간의 소통, 국가와 언어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소통, 부산시민 전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춤으로 공동체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목표인 만큼 난해한 작품성 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몸의 한계를 넘어선 무용수들의 '몸'과 '움직임'을 통한 소통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외 초청단체도 눈길을 끈다. 국내 초청단체는 부산지역의 부산

시립무용단과 강미리무용단, 서울지역의 유니버설발레단, 전미숙무용단, 그리고 부산국제무용제 홍보대사 김용걸이 출연한다.

해외 초청단체들은 바다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명, 그에 영향을 받아 이어지고 있는 특징적인 몸짓과 춤을 보여주고 있는 무용단체들, 일반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렬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단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안무와 강렬한 움직임으로 파격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계 무용계의 젊은 신인 안무가들을 선정했다.

태국의 전통 무용의 언어를 컨템포러리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피췌 클런컨 댄스컴퍼니(Pichet Klunchun Dance Company)', 1995년에 창설된 뉴질랜드 최고의 현대무용단 '블랙 그레이스(Black Grace)', 노르웨이 내셔널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노르웨이 합합댄스 그룹 '퀵 크루(Quick)', 뮤지컬적인 요소와 극적이고 정열적인 안무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에프 모던발레(Kiev Modern Ballet)', 일본 컨템포러리 댄스계에서 급부상한 화제의 인물인 겐타가 창단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록 스테어스(Tokyo Electro Rock Stairs)', 중국 현대무용계의 무서운 신예로 떠오른 타오 예가 만든 베이징의 현대무용단 '타오 댄스시어터', 프리스타일과 무술에 영향을 받은 헝가리의 '페렌크페헤르(Ferenc Feher)',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발레댄스 '스테픈 델라트르(Stephen Delattre)', 유럽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출신의 발레리나 '캐롤라인 핀(Caroline Finn)', 유럽의 젊고 야심찬 현대무용가 필립 반 후펠(Filip Van Huffel)에 의해 만들어진 벨기에 무용단 '레티나 댄스 컴퍼니(Retina Dance Company)'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춤의 향연을 펼친다.

문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90-2507, [www.bidf.or.kr](http://www.bidf.or.kr))





안은미



김용걸



퀵 크루



블랙 그레이스

1일(금) 오후 5:00 | 해운대특설무대

- 국립부산국악원(전통)
- 일본 동경 일렉트록스테어스(컨템포러리)
- 벨기에 레티나댄스컴퍼니(컨템포러리)
- 프랑스 블론디(팝핀)
- 영국 캐롤라인 핀(컨템포러리)
- 노르웨이 퀵(힙합)
- 미국, 쿠바 나야라 & 로돌포(라틴)
- 뉴질랜드 블랙 그레이스(전통+컨템포러리)
- 김용걸 솔로(발레)
- 댄스필름페스티벌 | ~ III

2일(토) 오후 5:00 | 해운대특설무대

- 부산시립무용단(전통)
- 헝가리 페렝크페헤르(컨템포러리)
- 폴란드 마르신 크라예프스키(모던발레)
- 프랑스 블론디(팝핀)
- 벨기에 레티나댄스컴퍼니(컨템포러리)
- 일본 동경 일렉트록스테어스(컨템포러리)
- 노르웨이 퀵(힙합)
- 뉴질랜드 블랙 그레이스(전통+컨템포러리)
- 유니버설발레단(발레)
- 댄스필름페스티벌 | ~ III

3일(일) 오후 5:00 | 해운대특설무대

- 강미리무용단
- 헝가리 페렝크페헤르(컨템포러리)
- 프랑스 델라트르댄스컴퍼니(모던발레)
- 중국 타오댄스씨어터(컨템포러리)
- 영국 이탈리아 캐롤라인&사라(컨템포러리)
- 태국 피켓 클런컨 댄스 컴퍼니(전통+컨템포러리)
- 폴란드 마르신 크라예프스키(모던 발레)
- 미국, 쿠바 나야라 & 로돌포(라틴)
- 전미숙 무용단
- 댄스필름페스티벌 | ~ III



캐롤라인핀

4일(월)~5일(화) 오후 7: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 AK21 축하공연
- 태국 피켓 클런컨 댄스 컴퍼니(전통+컨템포러리)
- 프랑스 델라트르댄스컴퍼니(모던발레)
- 영국 캐롤라인 핀(컨템포러리)
- 중국 타오댄스씨어터(컨템포러리)
- 한국 빛소리 친구들, 배김새, 힙합



반갑습니다



즐거운 합창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신임 수석지휘자 오 세 종



*“합창은 지휘자에 따라 음악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지휘자는 합창단이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어떤 음악을 만들어나갈 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4월 1일 새봄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제8대 수석지휘자로 부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오세종(64) 신임 수석지휘자. 열정 넘치는 부산시민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콧노래가 절로난다는 오세종 신임 수석지휘자는 부산시민들에게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올해가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인만큼 시립합창단의 전통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오세종 신임 수석지휘자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국 남가주 주립대(CSULA)에서 음악수업을 한 오세종 지휘자는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본격적인 합창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서울시무지컬단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합창단을 이끌어오며 인지도와 실력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오세종 지휘자는 그동안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1993~1996), 안양시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1999~2004),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2006~2007), 서울시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2010~2012)로 활동한 합창계의 독보적인 지휘자이다.

오세종 지휘자는 서울시합창단 재직당시 난항을 겪던 서울시합창단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창작 작품 ‘한강 칸타타’ 개발 등으로 합창단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서울시합창단 지휘자로 재직당시 그는 관례적으로 발행된 초대권을 폐지하고 서울시의회 등 주요 기관을 다니면서 합창단 공연 관람의 당위성을 알리며 세종문화회관 3,000석을 매진시킨 열정가이다. 직접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한 경험은 없지만 합창 세미나, 합창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 행사를 통해 부산시립합창단의 활동소식을 자주 접했던 터라 부산시립합창단과의 만남이 그리 낯설지 않다.

평소 합창단 지휘자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도우미’라고 강조해온 오세종 지휘자는 ‘기쁘지 않은 사람은 노래하지마라’는 그만의 합창 철학으로 단원들을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지휘자로도 유명하다.

*“노래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노래도 노동일 뿐입니다.*

*몸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합창은 온 몸으로 가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훌륭한 악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율에 감성을 담고, 가사에 표정을 살려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해야 합니다.”*

단원들을 지적하고 감독하는 지휘자보다는 단원들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자가 최고의 지휘자라고 이야기하는 오세종 지휘자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지휘자가 누구든 음악을 즐겨라”는 당부로 첫인사를 건네며 부산시립합창단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합창이 화합과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어우러짐의 미학인 만큼 오픈 마인드로 단원들과 소통하며 좋은 음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서 시도한 ‘한강 칸타타’와 같은 독창성적인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구상해보고 싶다는 오세종 지휘자는 6월 22일 제142회 정기연주회에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합창에는 정년이 필요없다는 그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는 열혈 청년이다. 창단 40주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부산시립합창단과 오세종 수석지휘자와의 유쾌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 혁명 그리고 오페라

이재걸\_파리 소르본대학 예술사박사과정

인류의 근대사는 유럽의 두 혁명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첫 번째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그 후 백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구사회의 경제구조를 송두리채 바꿔버린 역사적 사건이다. 인류가 농업사회에서 기술과 생산력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알린 이 시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으로 가치창출의 주인공이었던 시민 계급이 도약할 수 있게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이다. 당시 왕의 폭정을 상징하던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군중으로 대변되는 농민과 시민 계급이 결국 왕과 귀족 등 특권계층의 시대착오적 신분제도(봉건제도)를 타파하기 이른다(1789).

이 혁명은 점진적인 산업혁명의 영향과는 달리 하루 아침에 구제도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가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가히 피로 대변되는 급진적 혁명이었다. 이 1789년의 사건을 절정으로 프랑스 사회는 수십년간의 격동의 혁명기를 맞게된다. 왕과 특권층이 주인이었던 사회가 결국 시민을 중심으로한 국민을 새로운 주권자로 승인하게 된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그래서 근대 서구사회, 나아가 전세계 곳곳에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 영향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 깊숙이 까지 뻗게 되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낳은 산물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늘 사용하는 휴대전화, 신분의 구별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바라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누구나 일터로 나가기 위해 탈 수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권리할 수 있는 정치참여 등등 우리 일상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두 혁명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들의 진원지 중 하나인 파리에서 그 발자취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술가들의 정열이 혁명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파리 최초의 기차역(1837)이자 현재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여행객을 소화해내는 생 라자르역(Gare de Saint Lazare)은 두 혁명의 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그림으로도 유명한 이 생 라자르역은 당시 증기기관이라는 신기술로 무장한 기차를 타고 파리에 유람온 지방 프랑스인들로 연일 북적거렸다.

• Claude Monet (Gare de Saint Lazare, 1877)







Opéra Garnier, Paris ●

당시 엄청난 규모의 생 라자르 역이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줬을 거라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화풍에 집착한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작품소재였을 것이다.

증기를 연신 뿜어내는 기차와 신세계로의 첫 관문 같았을 플랫폼 그리고 여행에 설레는 사람들... 모네의 <생 라자르 역>은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닌 것이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프랑스인들은 봉건제도가 사라진 신세계가 주는 선물을 만끽하려 한듯 귀족은 아닐지언정 역 바로 옆의 오페라 극장을 왕래하며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를 흠모했을 것이다. 역에서 걸음으로 십 분이 채 안 걸리는 이 오페라 극장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극장과 함께 세계적인 오페라와 발레 중심의 극장으로, 총면적 약 1만 1,000m<sup>2</sup>는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1860년 공모에서 당선된 당시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건축가 가르니에(Jean-Louis-Charles Garnier, 1825-1898)가 구상한 이 건축물은 그래서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 유행하던 고전주의 풍을 과감히 버리고 바로크 풍을 기본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이 복합된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다.

1875년 완공 후 나폴레옹 3세의 황후가 이 혼란스러운 건물은 대체 무슨 양식이냐고 물었을 때 “나폴레옹 3세 양식입니다” 고 대답한 가르니에의 일화는 유명하다. 극적인 환희와 매력적인 인간 군상의 표현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조각가 카르포(Jean-Baptiste Carpeaux, 1827-1875)의 <춤>으로 더욱 역동적인 극장의 실외 풍경은 훗날 형형색색의 구성이 아름다운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천장화 등으로 꾸며진 실내 풍경과 함께 화려한 역사의 단면을 증언해준다.





- Jean-Baptiste Carpeaux <La Danse, 1869>, 원작은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 Marc Chagall <plafond de l'Opéra Garnier, 1964>

특히 몽환적 세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당시 최고의 색채의 미술사 샤갈에게 프랑스인들 마음속의 영원한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 1901-1976)가 1963년에 작업을 부탁했고 일 년 후 그 역사적인 작품 의뢰를 감동적인 예술로 답한 샤갈의 천장화는 이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르니에의 오페라 극장은 그래서 최고의 장식, 최고 예술가들의 실험장이자 그 선공의 예인 것이다. 카르포의 지나치게 감각적인 그래서 난잡하다고까지 비난받았던 특별한 취향도, 프랑스 각지에서 온 온갖 사치스러운 대리석의 장식도 결국 새로운 예술을 향한 도전정신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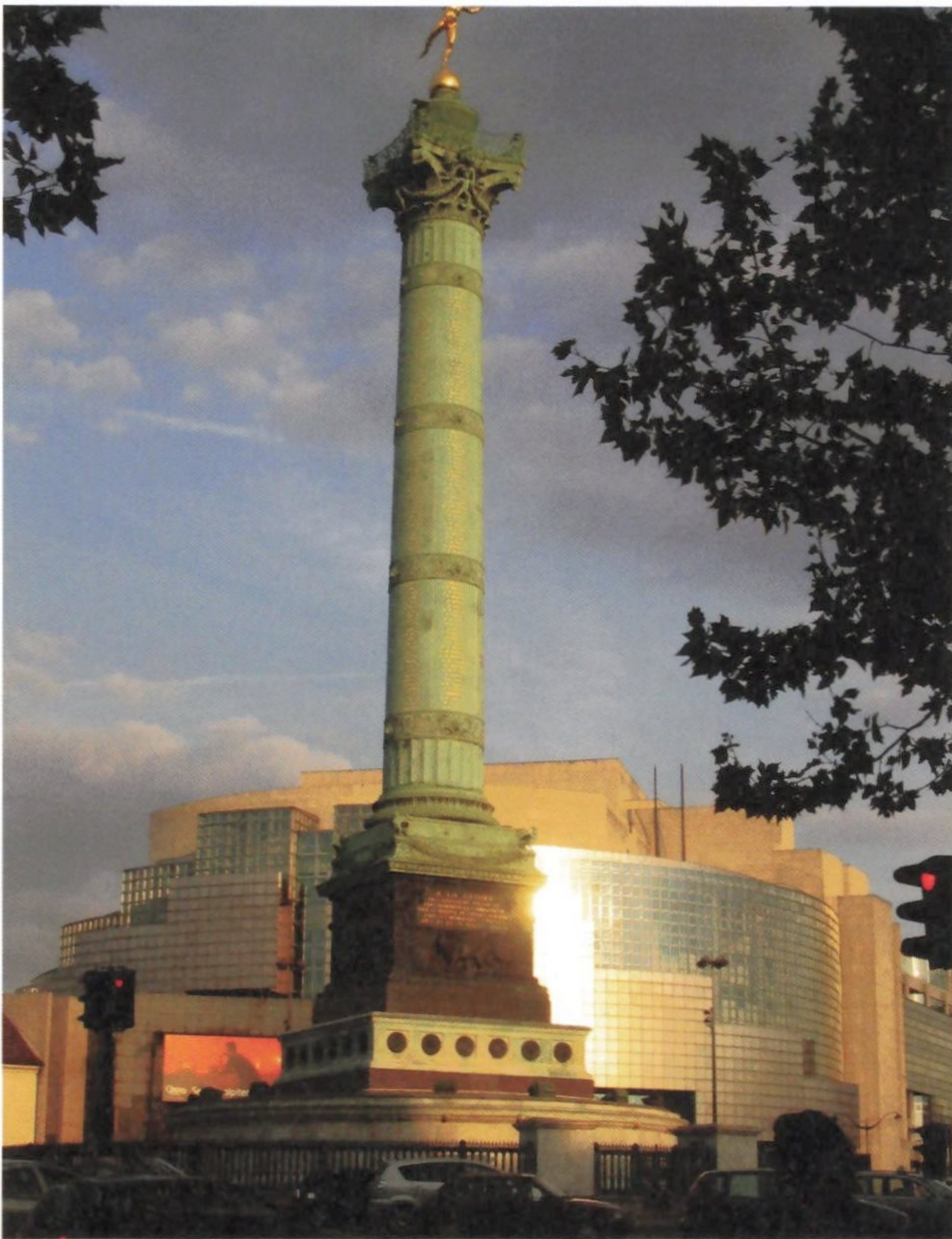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들과 무용수들이 받았을 뜨거운 박수갈채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울려 퍼진다.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은 피와 땀으로 얻어낸 혁명의 열매들을 만끽해온 일반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연일 만원사례이다. 풍요라는 이름은 이렇듯 수많은 이름없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맛볼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이다. 사치에 가까운 파리의 풍요로움의 상징인 오페라 건축은 다른 수많은 관광지와 더불어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일 년 365일 재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긍지를 국가차원사업의 일환으로 탄생시킨 기념물이 파리에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에펠탑이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고 오페라 가르니에의 동생격이면서 혁명의 첫 절정지였던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곳에 지어진 오페라 바스티유는 혁명 200주년을 기념한다.

바스티유 광장 한가운데 있는 높이 52m의 기념탑 아래에는 혁명의 시대에 희생된 자들이 안치되어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또 하나의 오페라 극장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아해질 만 하다. 무덤 옆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라... 쉽게 이해 가지 않는다. 정확한 역사 인식과 과거 악습들의 청산이 없었더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조화인 것이다. 서슬퍼랬을 권력의 총 칼에 희생된 시민의 유해와 후예들의 풍요로 상징되는 오페라 극장의 어색한 동거(?)는 어쩌면 프랑스가 가진 자국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 Revolution and the Opera



다시 오페라 가르니에로 가본다.

지방에서 파리 사교계의 낭만을 맛보고 다시 증기기관차에 몸을 실었을 지방 멋쟁이들의 입장이 되어본다. 그래서일까? 생 라자르 역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백화점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랭땅과 갤러리 라파예뜨 백화점들이 있는 오스만 거리이다. 센강 좌안에 있는 봉막세백화점과 함께 파리의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이 곳들은 지방 프랑스인들에게는 별천지 같았을 것이다.

최신 유행패션과 각종 화장품과 향수 그리고 시계나 보석 등의 장신구까지... 파리의 멋과 산업화한 근대사회의 이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백화점들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온 전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백화점들도 사실은 멋쟁이가 되고 싶었던 프랑스 시골 아가씨들과 부인들의 순진한 바람들로 가득 찼었던 공간이었다.

사치와 화려함 뒤에는 늘 그것을 좇는 서민들의 맹목적인 동경이 지금이나 예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동경이 때로는 유쾌한 삶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서도 그렇듯 과하면 그 가슴 뛰는 특별한 느낌은 그저 부질없는 허상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하지만 쉽게 깨질 수도 있는 갤러리 라파예뜨를 덮고 있는 거대한 유리 돔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황홀한 오페라 공연과 최신 유행의 파리 패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기차를 탄다.

산업화의 빠른 속도만큼 빨랐을 기관차가 뿜어내는 증기는 사갈의 몽환적인 이야기처럼 혹은 모네의 희미하지만, 매력적인 풍경화처럼 아스라하면서도 선명하게 기억되었을 것이다. 마치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던 그 두 혁명의 추억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이 있게해준 과거는 늘 되짚어봐야 하는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 Opéra Bastille, Paris
- Galerie Laffayette



# 소포클레스와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SOPHOCLES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로 대표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고대그리스의 언어, 문학, 조형미술과 당시 사람들의 자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문학 뿐만 아니라 서양문학의 원천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적 효과 면에서 비극이 서사시보다 더 우수한 예술형식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비극이 서사시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진 음악이 드라마의 쾌감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서사시보다 짧은 시간에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서사시보다 통일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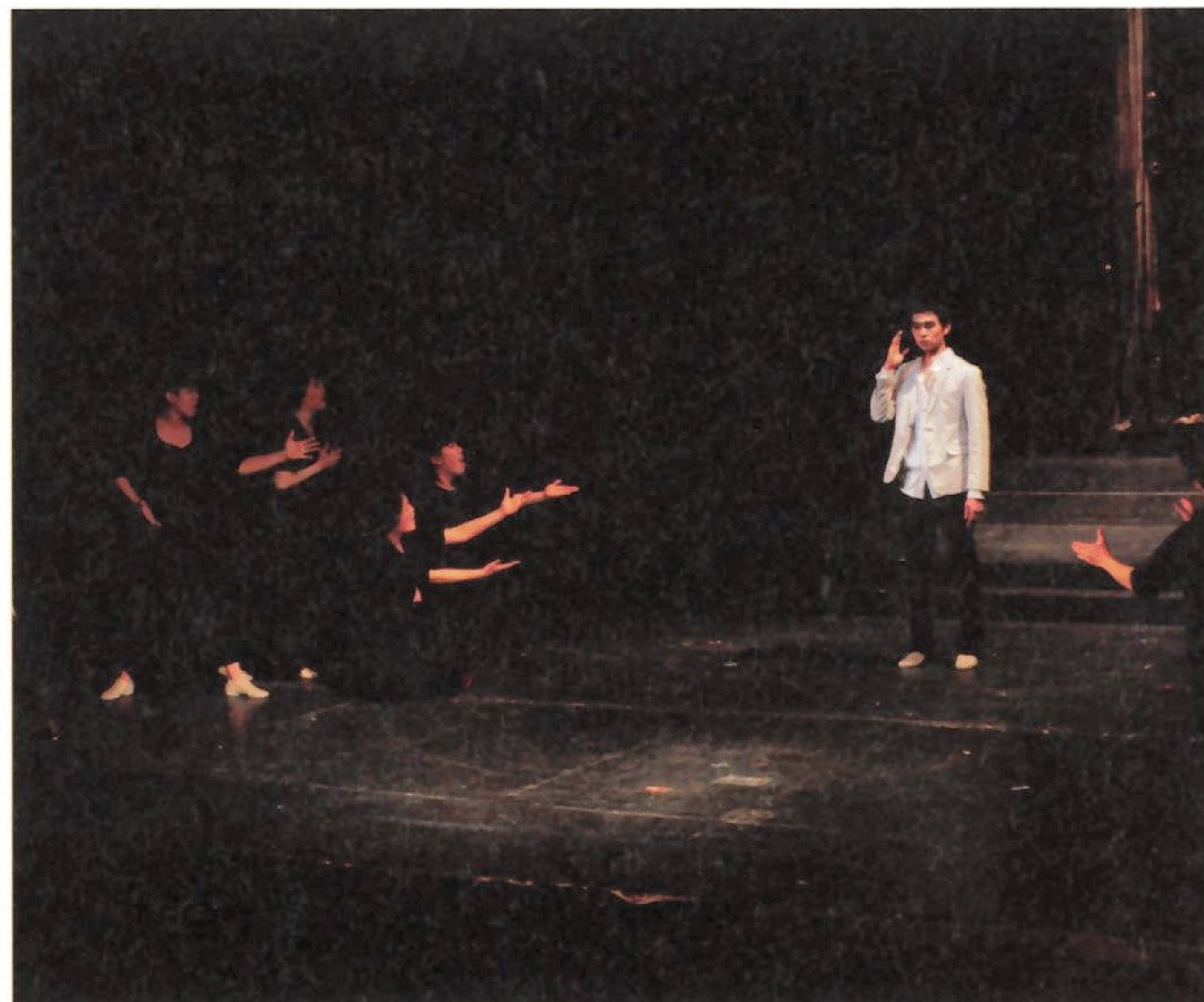
서 그리스 비극은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삼던 시대정신에 따라 이전에 나온 서사시들을 재해석하려는 진지한 시도였고, 그 문제의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가온다는 점에서 위대한 업적이라 할 만하다. 시와 노래, 춤과 웅변술, 그리고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을 한데 묶은 종합예술로서의 비극은 고대그리스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연되고, 읽히며, 이후의 수많은 예술작품들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더불어 고대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이자 비극의 완성자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비극경연대회에서 무려 18번이나 우승한 기록이 있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다. 기원전 496~5년 아테나이에서 태어난 그는 123편의 극을 썼지만 현존하는 작품은 7편으로, 〈안티고네〉, 〈엘렉트라〉를 비롯하여, 그의 백조의 노래이자 〈오이디푸스 왕〉의 속편이라고 할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등이 유명하다. 보수주의자였던 그의 작품에는 항상 조화와 질서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는 사상가, 지식인이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탁월한 희곡작가였다.

기원전 5세기쯤에 창작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은 우리

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테베의 왕자 오이디푸스는 예언이 글자 그대로 실현된 후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채로 테베를 떠난다. 이 비극은 서양 문학과 연극의 고전 중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동서양의 수많은 문학 작품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정신분석학 용어나 고전문예학 교과서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출발점도 여기에서 시작한다.

연희단 그리페가 선보인 연극 '오이디푸스'의 한 장면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왕**  
**STRAVINSKY**

현대음악의 기린아 스트라빈스키(1882-1971)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양친의 권유에 따라 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면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작곡 개인지도를 받은 그는 러시아발레단의 디아길레프에게 인정을 받아 발레곡 〈불새〉, 〈페트루슈카〉를 작곡하여 성공을 거둠으로써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 후 〈봄의 제전〉은 찬반양론의 소동을 일으켰으나, 그는 이 곡으로 당시의 전위파 기수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곡은 혁신적인 리듬과 관현악법에 의한 원시주의적인 색채감, 그리고 파괴력을 지닌 곡으로 앞의 2곡과 함께 이 시기의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의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러시아혁명으로 조국을 떠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아폴로적이고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전환하여 발레곡 〈폴치넬라〉, 〈병사의 이야기〉, 〈결혼〉 등을 작곡했다. 고전파와 바로크스타일의 정신을 부흥시키려고 한 음악사조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유럽음악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는 이 시기의 사조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오페라 오라토리아인 〈오이디푸스 왕〉과 〈시편교향곡〉 등을 통해 이 작품을 완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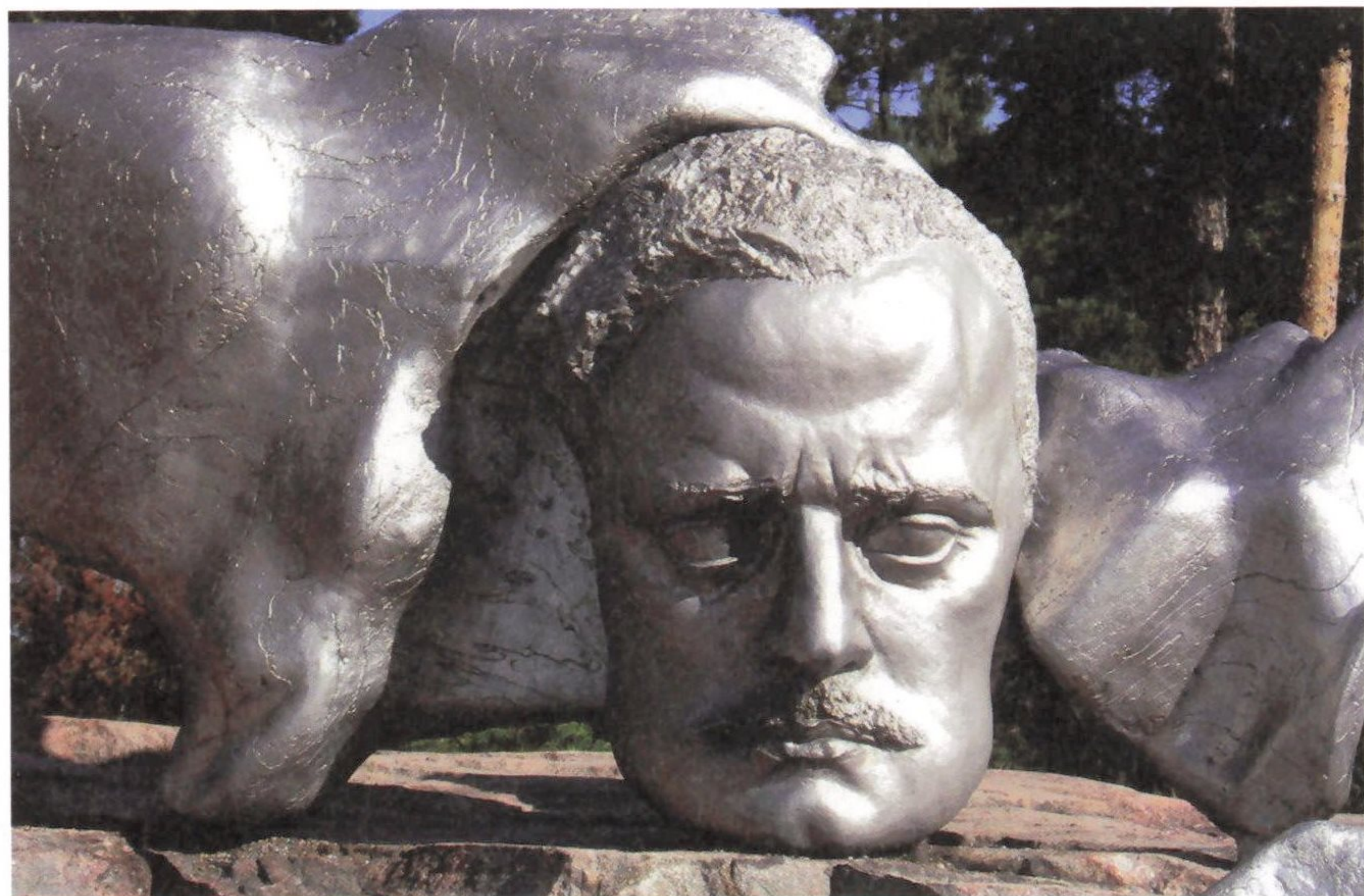
〈오이디푸스 왕〉은 장대하고 정교한 음악과 독창적인 극적 효과로 인해 스트라빈스키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장 콕도가 소포클레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대본을 완성하고, 대사부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스

트라빈스키는 청중이 극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게 만들려는 의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라틴어를 사용했다.

부제를 〈소포클레스에 바탕을 둔 2막의 오페라 오라토리오〉라고 붙였듯이 오페라라기보다는 오라토리오에 더 가깝다. 등장인물은 마스크를 쓰고 무대의상을 입지만 연기는 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작품을 의식적으로 만들되 관객의 참여는 배제하는 수단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자서전에서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재에 의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줄거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가사와 연기, 그리고 음악 그 자체에 청중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흐보다는 헨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오라토리오가 갖는 장려한 격조를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인 감각으로 살리려고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음악의 시작은 바흐의 푸가처럼 엄격하지만 이어지는 음악은 글록의 오페라나 모차르트의 아리아와 유사하며 바그너 풍의 뉘앙스도 들린다. 헨델 풍의 벨칸토 레치타티보에 뒤이은 베토벤의 교향곡〈운명〉의 테마, 그리고 베르디의 한 장면도 떠오른다. 이처럼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는 ‘음악에 대한 음악’이다. 그는 진지함을 벗어던지고, 거짓되며 거들먹거리는 음악을 증오한 진실한 음악가였다. 그리고 1927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그의 신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양식과 장르가 결합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음악 중에서도 보기 드문 명작의 하나로 손꼽힌다.

스트라빈스키 ●



스트라빈스키의 삶을 그린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





# 경쾌한 리듬 유려한 선율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오페라계의 이태리아 여인  
OPERA BUFFA

북부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어오던 1813년은 베르디와 바그너가 출생한 해로 기억되지만 그해에는 로시니가 겨우 21세에 작곡한 영웅적인 멜로드라마 '탄크레디'가 베네치아의 페니체 극장에서 상연된 해이기도 하다.

로엔그린과 조금은 닮은 영웅기사 '탄크레디'는 전투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구해준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고민과 번뇌를 이기지 못해 숲속으로 잠적한다. 비극 장르에서 로시니는 콘트라alto 가수의

목소리를 위해 그의 작곡 역량을 발휘하고, 주인공은 지고한 고귀함, 지극히 감미로운 멜로디를 노래한다. 리듬의 다양성과 멜로디의 아름다움은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다. 그러나 '탄크레디'의 영웅적인 측면은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의 연기로 완벽하게 강조되었다. '탄크레디'는 무너져 가고있는 비극 드라마를 리듬있는 생명과 색채로 역동적인 음악으로 재발견하는 의미를 준다. 그러나 '탄크레디' 이후의 비극적인 드라마는 더 이상 그것과 같지 않게 된다.

4개월 후 세상에 나온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희극 장르로 '탄크레디' 못지않게 눈부실 정도로 경쾌한 리듬, 유려한 선율 등을 구사해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었다. 초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3년 후 로시니의 대표작이 된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선구적 작품이 된다. 호색한인 알제리의 태수 무스타파는 지나칠 정도로 충실하고 애정을 주는 자신의 아내 엘비라에게 염증을 느끼고 해적 알리에게 이탈리아 여인을 납치해 오도록 명령한다. 태수와 만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여인 이자벨라는 간단한 책략을 꾸며 알제리를 탈출한다. 이슬람 문명의 신화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 중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순수한 음악적 메카니즘, 광적이라 할 만큼 경쾌한 리듬, 역설적인 전개과정, 억제할 수 없는 희극성 등은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매력을 한층 더 배가시켜 준다.

로시니의 시대에서 줄거리의 비현실성은 이견이 있지만 로시니와 같은 작가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스타달은 이러한 이견들에 완벽한 반격을 하였다. 그는 '시금석' '탄크레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 로시니의 예술이 절대적인 극치에 도달하였다며 오래동안 로시니의 지지자로 남아있게 된다. 로시니의 명성은 그 시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탈리아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간다.

'이탈리아의 터키인'은 늙은 남편, 젊고 요염한 그의 아내, 쓰라린 고통을 잇기 위해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한 부유한 터키인 등이 등장하여 극을 진행시킨다. 과장과 익살스러움은 다소 축소되었고 전체적인 색깔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솔로를 위한 아리아들은 유쾌한 이중창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한다. 무도회 장면에서 나오는 오케스트라부는 아주 기지가 넘치는 곡으로 호른의 아다지오로 시작해 트럼펫을 위한 팡파레, 길고 긴 크레센도는 완벽한 로시니의 매력이며 구성양식 중 하나이다.



● 100주년을 기념하기위한 테야의 풍자만화



## 세빌리아의 이발사 OPERA BUFFA

'시지스몬도'를 기점으로 비극적인 멜로드라마와 작별을 고한 로시니는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활동영역을 옮기게 된다. 1809년 이후 남부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극장을 관리하는 레자레인은 로시니에게 매년 두 곡의 오페라를 작곡해 달라는 제의를 하며 산 카를로 극장과 폰도 극장의 지휘를 맡긴다. 이것은 로시니에게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커다란 변화인 것이다.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그의 성향에 맞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시니에게 오페라 가수들을 캐스팅할 권한이 주어지며 로시니는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시대의 걸출한 성악가들을 배출하는데 일조한다.

빌리아의 이발사'를 초연 한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관현악의 생생한 울림(특히 크레션도의 효과는 로시니 음악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이다)과 경쾌하고 발랄한 선율, 솔직하고 쾌적한 리듬 등이 풍자에 가득 찬 매우 희극적인 줄거리를 멋지게 살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쌍벽을 이루듯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 담겨 있다. 그 대본은 프랑스의 작가 보마르셰에 의한 것으로 그의 풍자적인 희극 3부작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 있는 어머니'에 의한 것으로 그것을 '토르발도와 도를리스크'의 대본을 쓴 스테르비니가 이탈리아어의 오페라 부파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이 오페라의 서곡은 '영국여왕 엘리자베타'의 서곡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그 이전 '심한 오해'나 '행복한



●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 건반치는 로시니

● 로시니의 첫번째 부인 '이자벨라 콜브란'

프리마돈나 이자벨라 콜브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자벨라 콜브란은 경악할만한 소리와 외모를 지닌 프라마돈나로 로시니에게 '영국여왕 엘리자베타'를 작곡하게 한다. 비밀리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레이체스터를 향한 위엄 있는 여왕의 설레임, 그녀의 분노, 마지막으로 왕좌 앞에 떨고 있는 신랑 신부를 용서해 주는 내용으로 죠반니 슈미트가 대본을 맡은 '영국여왕 엘리자베타'는 위풍당당한 이자벨라 콜브란의 영감이 큰 작용을 하였다. 이 오페라로부터 로시니는 모든 장식음들과 트릴을 완벽하게 쓰는 선택을 한다. 이것은 이자벨라 콜브란에 의해 더욱 고무되었다 할 수 있다. 이 여인은 로시니와의 러브스토리에 연루된 인물로 보다는 획기적인 음악적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1816년은 로시니 오페라의 대표작인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해이다. 1815년 오페라 '토르발도와 도를리스크'를 초연한 로시니는 이듬해 '세

작각' '팔미라의 아우렐리아노'에서도 같은 곡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작곡가의 창작태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작곡기간에는 오랜 논란이 있다. 20일이라는 설과 13일 또는 16일이라는 설 등 여러 주장이 있다.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이 작품을 순식간에 써 내려갔던 것은 사실이다. 훗날 도니제티는 이 기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로시니는 그만큼 게으름뱅이였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여하튼 단기간에 작곡된 것은 틀림없지만 이전의 희극오페라 작곡가를 잇게 할 만큼 로시니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표현된 대표작이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후 로시니는 베리 공작과 페르디난도 1세의 조카 결혼식을 위한 칸타타 '테디와 펠레오의 결혼식'을 작곡하고 피오렌티니 극장에서 익살스런 희극오페라 '가체타'를 작곡하였다.



# 시는 풍류를 담고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송석원시사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백일장은 글깨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수백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한밤 중에 순라꾼에게 잡혀도 송석원 백일장에 간다고 하면 놓아 주었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 원래 송석원시사는 정월 대보름부터 삼월삼진날, 초파일, 단오일, 유두날, 칠월칠석, 중앙절, 동지 등 거의 매달 열리고 있었다. 시문과 가야금으로 서로 풍류와 위안의 자리가 되었다.

동호인들이 늘 모이는 곳은 천수경(千壽慶: 1757~1818)의 집 뒷뜰이었다. 그의 호가 말해주듯이 송석원은 솔숲 짙은 인왕산 자락의 개천변 바위마루 일대였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동네주택가이다. 원래 그들이 놀던 뒤편 바위에 '송석원'이라 새긴 글귀가 남아 있는데, 이는 1817년에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썼다고 한다. 인왕산이 한양의 서쪽에 있었으므로 시사모임을 서사(西社)라고도 불렀고, 백지에 시짓기를 즐겨했으니 백사(白社)라고도 썼다는데, 무릇 백(白)은 오행사상에서 서쪽방향을 가리키므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일찍이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도 인왕산을 즐겨 그렸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호인들의 면면을 보면 한양의 관아에서 붓대잡던 서리나 화원들, 사신 따라 청국이나 일본에 다녀온 역관들, 만호·천호를 지내던 무관들, 율관이나 음양관, 때론 골목을 누비며 시류를 풍자하던 아웃사이더들도 있었다. 이들 동아리 모두의 공통점은 한 글발하는 재주꾼이라는 사실이다. 역관이나 무관들을 제외하면 재주는 있어도 시운을 타지 못해 늘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까지 나무꾼으로 연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사동인의 한사람이었던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쓴 <추재기이(秋齋紀異)>라는 책이 있다. 당시 불우하거나 기이한 삶을 살았던 여항사람들에 대해 소개한 산문이다. 이에 의

하면 나무꾼 정씨(鄭樵夫)에 대한 글이 있다. 나무꾼 정씨는 서울 근교에 살았는데 늘 나무를 해서 한양 저자거리에 지고와 팔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시재(詩才)가 뛰어나 시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 가난하여 그의 시문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행히 1797년에 천수경(千壽慶)이 펴내고 장혼(張混: 1759~1828)이 교감을 본 한시집인 <풍요속선(風謠續選)>에 그의 시가 있다.

글로서 명성 높았지만 늙어서도 나무를 하니 翰墨聲名老採樵  
어깨서린 가을정경 갈수록 쓸쓸하구나 兩肩秋色動蕭蕭  
작은 바람 불어서 장안길로 들어와 小風吹入長安路  
새벽에 동대문 둘째 다리에 이르렀네 曉道東城第二橋

나무꾼 정씨는 늙어서도 나무를 하는 신세니 절로 한탄이 나온 모양이다. 그러다보니 뜻하지 않은 세상에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 송석원 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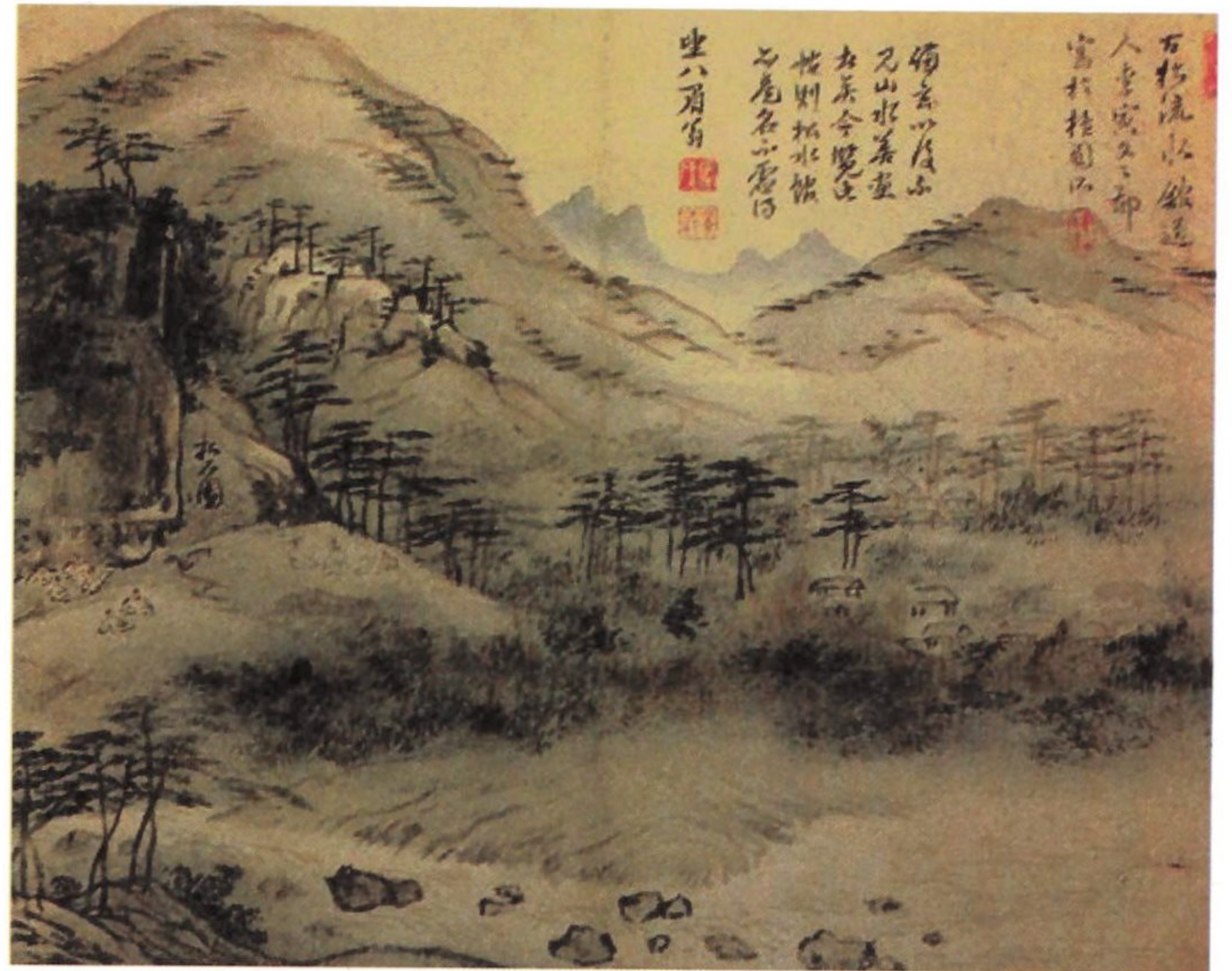
## 송석원시회도 松石園詩會圖

시사동인들은 시를 짓고 제화를 붙여서 멋있는 서화첩을 만들었다. 그 날 참석한 회원들은 누구할 것 없이 책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서화첩의 멋을 부리기 위해서는 김홍도나 이인문의 그림을 따로 부탁하여 표지화로 장식하는 것이 가장 인기있었다. 이 경우엔 그림값을 부담해야 했으니 돈많은 역관들이 주로 그리하였다. 예외도 있었다. 송석원시사 동인으로서 당시 규장각 서리였던 송월헌(松月軒) 임득명(林得明: 1767~?)은 그림을 꽤 그렸기에 자신이 직접 인왕산 송석골을 그려서 시화첩을 만들기도 했다. 비록 묵선이 익지는 못했으나 평소 김홍도의 필법을 흠모하던 터였다. 그는 1795년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었던 을묘년원행(乙卯年園幸)에 참여하였고, 정조의 화성건설사업에 규장각 실무로서 감인관(監印官)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786년 7월 여름에 인왕산에 모인 초기의 동인들은 송석원시사를 만들고는 각자 시문과 서화를 지어 <옥계사수계첩(玉溪社修禊帖)>을 만들었다. 장혼(張混)은 발문에서 결성하게된 동기를 “장기나 바둑의 사검은 하루를 가지 못하고, 술과 여색의 사검은 한 달을 가지 못하며, 이익을 좇는 사검은 한 해를 가지 못하는데, 오로지 문학의 사검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어찌보면 시문으로써 풍류를 즐기되 나름대로 그들 문화의 방향을 선언한 셈이었다. 종래 양반들의 글쓰기 공간이었던 문집 간행을 모방하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시문과 풍류를 담아내려 애썼다. 여기 소개하는 작품은 이인문(李寅文: 1745~1821, 자는 문욱(文郁))의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 종이담채, 25.6×31.8cm, 한독의 약박물관 소장이다. 그는 김홍도와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동갑내기다. 그림은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에 함께 실린 김홍도가 그린 첫장의 <송석원시사야연도>(4월호)와 비슷하다. 이인문의 그림을 보면 멀리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넓은 구도에 인왕산 기슭을 묘사하면서 왼쪽 바위 밑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소하는 시사회 모습을 포착했다. 화면 중앙부 숲사이로 드문드문 집들이 보이고 앞쪽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 풍요속선



● 송석원 시회도\_이인문

오른쪽 위에 그의 호인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과 이름 및 자를 밝히고 단원의 거처에서 그렸다(寫於檀園所)라고 써고는 관지를 찍어 놓았다. 이로 보아 이들 두 그림은 둘이서 시회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라 모임소식을 뒤에 듣고 그려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면 중앙 위에는 다음과 같이 발문이 쓰여져 있다.

겸재와 현재 후로 뛰어난 산수화를 보지 못했는데

謙玄以後 不見山水善畫者矣

지금 이 화첩을 보니 今覽此帖

고송유수관 이름 역시 헛된말 아니구나 見於水館 亦是名不虛謂  
팔십을 바라보며 미옹 望八眉翁

이 글은 미산(眉山) 마성린(馬聖麟: 1727~1798)이 앞의 <송석원시사야연도>와 함께 써주었다. '마씨(馬氏)'의 백문방인과 '경희(景羲)'의 주문방인을 찍은 낙관도 똑같다. 진경산수화풍을 확립한 겸재 정선과 명대 오파(吳派)와 남종화풍(南宗畫風)을 구사한 현재(玄齋) 심사정(1707~1769)이 활약한 이후 바로 이인문이 산수화의 맥을 이어주는 인물로 평하고 있다. 원로였던 여항시인 마성린이 두 사람이 그려놓은 작품을 구경하고는 즉석에서 써준 발문이다. 결국 송석원시사 동인들은 인왕산 계곡에서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고, 이를 들은 김홍도와 이인문은 날렵한 화필로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더니, 원로 시인이 감상문을 손수 보냈다.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이백년 전 시사동인들은 한양 거리에 중인들의 풍류시를 전파시킨 아방가르드였다.





## 음악애호가들의 사랑방 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

한 때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었으나 이제는 지나간 영화 속에서나 가끔 등장하는 낯선 풍경이 되어버린 곳, 바로 고전음악감상실이다. 지난 2006년 3월 매장 한켠에 음악감상실을 함께 운영해오던 국도레코드가 문을 닫으면서 아쉽게도 부산에서 그 명맥이 끊겼던 고전음악감상실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음악애호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

지난 3월 국제신문사 인근에 조용히 문을 연 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은 클래식 매니아는 물론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공간이다. 개관한 지 겨우 한달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이나면서 음악애호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지크바움'은 클래식 매니아인 강경옥 씨의 오랜 꿈이 담긴 곳이다. 젊은 시절부터 클래식음악에 심취해있던 그에게 고전음악감상실은 언젠가는 이루어야 할 평생의 꿈이었던터. 10여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며 준비해오던 강경옥 씨는 지난해 28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임하면서 그의 오랜 꿈에 성큼 한발을 내딛었다. 4개월의 준비 끝에 그는 음악과 나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를 조합한 '무지크바움'을 탄생시켰다.

총 28평 규모의 음악감상실에는 4채널 오디오시설은 물론 140인치 대형스크린에 블루레이 재생 및 풀 HD프로젝트로 구성된 영상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대 오른쪽에는 강경옥 씨가 그동안 수집해온 3천여장의 음반이 빼곡히 구비되어 있다. 감상실 한 켠에는 작은 북카페도 마련되어 있어 문을 닫으면 음악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한쪽 벽면에는 조명시설을 갖춘 아트월을 조성해 강경옥 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관심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해 작지만 알찬 갤러리로 활용



할 계획이다. 입구에 자리한 바 형식의 카운터에서는 커피와 차 등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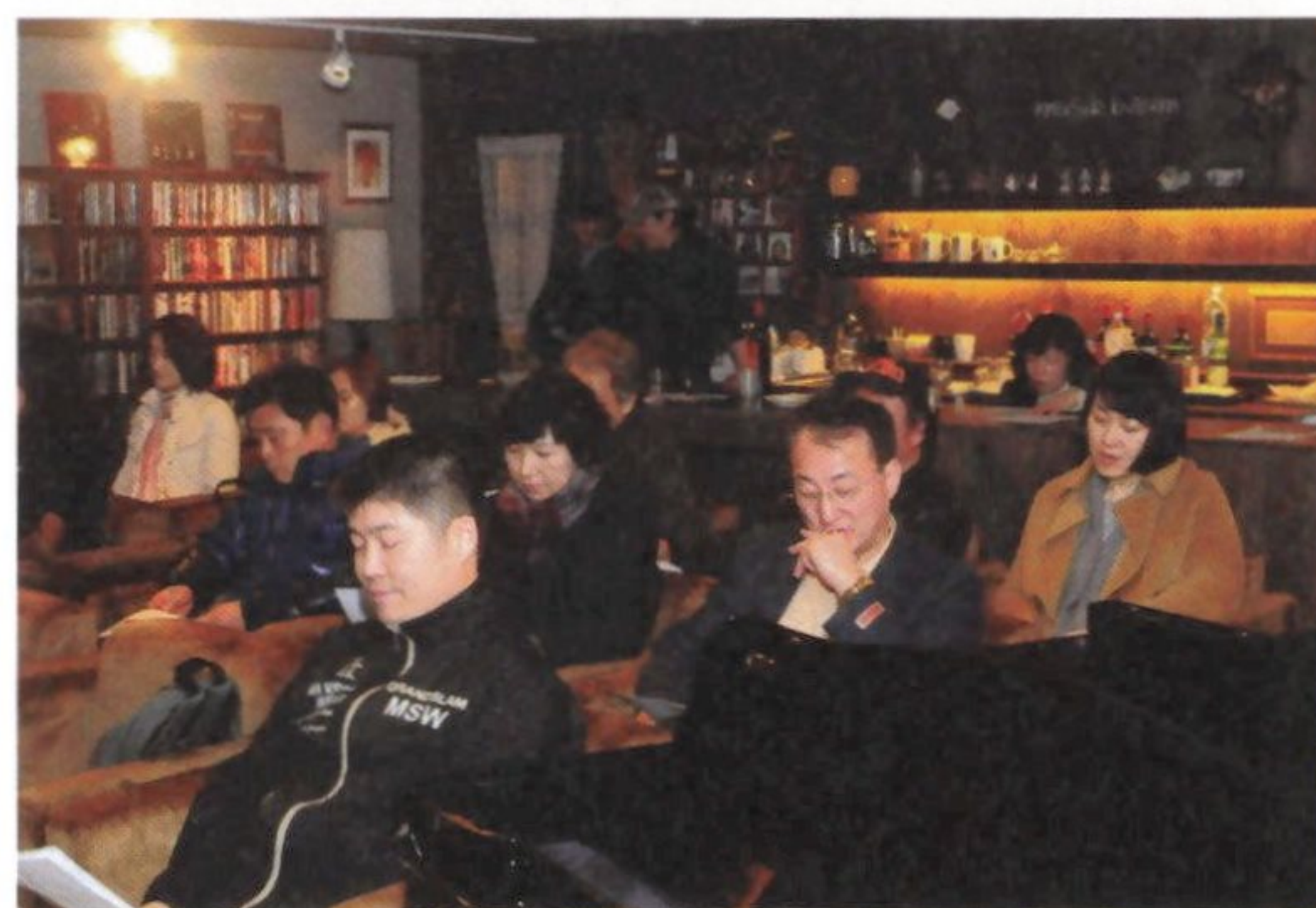
‘무지크바움’ 첫 정기감상회가 있던 지난 4월 11일. 무지크바움이 자리한 건물 지하로 내려서자 클래식 선율이 새어나온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심장을 두드리는 음악소리가 먼저 반갑게 인사한다. 극장식으로 배치된 안락의자에는 20여명이 저마다의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음악감상이 한창이다.

‘무지크바움’ 정기감상회는 강경옥 씨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입문과정과 말러&브루크너 전곡감상회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인데, 올해는 베토벤 교향곡 전곡듣기에 도전한다. 특히 방송에서 자주 듣거나 매니아들의 필청음반인 클라이버, 푸르트벵글러, 카라얀, 아바도의 연주를 제외한 새로운 음반듣기를 시도한다. 더불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에서 32번까지 랜덤으로 발췌해 올해 전곡을 다 감상할 예정이다. 무지크바움의 정기감상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열린다.

정기감상회나 동호회 모임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후 3시부터 늦은 10시까지 강경옥 씨가 직접 선곡한 곡들로 음악감상실이 운영된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히 월드뮤직과 재즈를 선곡, 주말의 편안함을 음악으로 선사한다. 한달에 한번은 오페라 전곡 감상회도 있을 예정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여럿이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란다”는 강경옥씨는 모임장소를 희망하는 음악감상동호회 회원들에게 무지크바움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있다. 벌써부터 동호회 회원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감상실 이용을 문의하는 동호인들이 늘고있다. 지금 현재는 클래식음악감상실동호회, 국도클래식, 뮤지컬&클래식, 무지크페라인 등 부산지역 클래식음악 감상동호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동호회 모임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문의\_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  
(070-7593-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http://cafe.daum.net/musikbaum.busan))





## 다채로운 해금의 음색에 흠뻑!! 한새해금연구회

●  
어둠이 내려앉은 고즈넉한 저녁, 부산교육대학교 국악관에서는 매주 월요일이면 해금선율이 울려 퍼진다. 바로 부산, 경남지역 교사들로 구성된 한새해금연구회 정기모임이 있는 날. 한새해금연구회는 부산교육대학교가 자리한 거제1동 지역의 옛 지명인 '한새벌'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한새해금연구회 결성에는 해금연주자이자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있는 정은경 씨의 역할이 컸다. 6년 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정은경 씨가 교사연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금이라는 악기를 알리면서 부터이다. 첫 교사연수에서 해금을 배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게 바로 한새해금연구회. 2008년 모임이 결성된 후 부터 지금까지 매주 회원들과 해금수업을 겸한 정기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한새해금연구회 회원수는 25명.

“해금은 일반적으로 애절한 선율의 악기로 알려져 있으나 알고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악기로 궁중음악의 장엄한 의식에서부터 서민들의 흥겨운 마당놀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음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새해금연구회는 2008년 모임이 결성된 후 부터 지금까지 매주 해금 수업을 겸한 정기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 한새해금연구회는 4월 27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정은경 교수의 해금독주회 마지막 무대에 정은경 교수와 함께 출연해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를 해금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한새해금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정은경 교수는 회원들이 교사들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

“교사가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을 책임지는만큼 그들에 의해 우리 국악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연주곡을 소화해내고 후대성이 간편해 언제나 아이들 앞에서 실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금이야말로 교사들이 배워야 할 국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결성 때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 씨.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해금소리에 반해 해금을 배울 기회를 엿보던 김성은 씨는 마침 교사연수에 참가했던 지인의 소개로 한새해금연구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직까지 소리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 좋다는 그는 애절한 소리로만 알고 있는 해금이 사실은 발랄한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음색의 악기라 더욱 정감이 간다. 직접 수업시간에는 해금연주를 통해 살아있는 생생한 수업을 펼친다는 그는 적어도 자신에게 배운 아이들만큼은 해금과 아쟁을 헛갈려하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

매주 월요일이면 마산에서 오는 양은숙 씨. 2008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해금연수에 참석했으나 거리적인 관계로 동호회 활동회에는 참석하지 못하다 작년 8월 정년퇴임 후부터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20여년 전 해금강습을 따로 받을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국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해금 뿐아니라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운 전력이 있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소금 40여개를 따로 구입해 제자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국악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자신이 스스로 즐기는데 만족한다는 양은숙 씨.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평소 친분을 쌓아온 수녀님의 부탁으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무대에 섰다는 양은숙 씨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해금선율을 들려줄 계획이다.

해금소리에 반해 동호회에 참석했다 정은경 교수의 열정에 새롭게 반해 동호회 활동이 즐겁다는 배정선 씨는 교사연수에 2번 연속 참석했을 정도로 열혈회원이다. 판화가, 사진작가로도 활동중인 배정선 씨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언젠가 그들에게 해금의 매력적인 선율을 직접 들려줄 그 날을 꿈꿔보기도 한다.

한새해금연구회는 4월 27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정은경 교수의 해금독주회에 찬조출연한다. 한새해금연구회 회원들은 마지막 무대에 정은경 교수와 함께 출연해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를 해금연주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에 가입한 회원을 제외하고 15명의 회원이 무대에 선다.

문의\_한새해금연구회 정은경(010-3542-3268)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8회 정기연주회

-4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신설령\_음악평론가

● ● ● 이번 연주회는 최나경의 플루트 협연이 있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신시내티 오케스트라의 오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쳤던 부수석 연주자가 아니던가. 연주곡은 현대 작곡가 로웰 리버만의 〈플루트 협주곡 작품 39〉이었다. 연주가 시작되고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선율에 매료되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색다른 음향에 홀리며, 숨막히게 빠른 패시지를 기막히게 연주하는 테크닉에 감탄하며 1악장을 들었다. 그런데 리버만의 음악이 나를 홀린다. 이 곡은 협주곡이지만 오케스트라에 풍성한 음악을 할애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주곡 형태인 솔로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반주 구도가 아닌, 오케스트라의 능동적 참여로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 낸다. 리버만의 협주곡은 때로는 솔로 악기와 다른 악기의 이중주로, 때로는 현파트의 선율 위에 플루트가 수많은 음표로 빠르고 화려하게 노래하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듯 연주하여 음악 속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이 곡은 리듬 구사가 다양하여 오케스트라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싱크페이션과 헤미올라와 동형리듬 위로 플루트는 별빛 같은 음들을 흩뿌리고 있었다. 다양한 리듬과 빠른 템포로 인해 오케스트라와 독주자의 호흡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지휘자의 명확한 지휘가 이를 조율한다.

느린 2악장에서 플루트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상상의 세계로 청중을 이끌었다. 여기에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화성이 한 몫을 담당한다. 빠른 템포의 3악장에서 수많은 음표들을 몰아치듯이 연주하나 탁월한 호흡 처리로 음악은 매끄럽게 이어진다.

최나경의 연주에 매료되면서 더욱 즐거웠던 것은 동시대의 작곡가 작품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로웰 리버만은 1961년생으로 현대음악 작곡가이다. 대부분의 현대음악이 듣기에 편하지가 않은데 리버만의 플루트 협주곡은 화성의 사용도, 음악적 진행도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어법은 아니나 그 새로움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집중하



●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협연한 부산시립교향악단

게 한다. 그동안 현대음악 연주를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현대 작품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최나경을 기대하며 연주회장을 찾았는데 그 앞날의 음악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지휘자를 만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휴식시간 후 계속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곡은 슈만 교향곡 제4번이다. 최나경에 매료되고 감동 받은 그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고 슈만 교향곡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1악장 연주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필자는 다시 음악의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슈만 교향곡을 재 해석하고 연출하여 풀어놓고 있던 지휘자가 청중을 음악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욱 지휘자는 2악장의 서정적인 노래를 아름답게 풀어내고 3악장의 약동적인 음악으로 심장을 고동치게 하면서 슈만 음악의 다양한 표정을 풍부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짧지 않은 교향곡 한 곡을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끌어나가는 힘이 있었고,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이병욱 지휘자의 재능과 열정이 부산 음악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신라 천년역사의 울타리 없는 박물관

## 경주 남산

●

흐드러지게 핀 봄꽃으로 온 천지가 화사하게 물들었던 지난 4월 13일, 부산 문화회관 정기회원 73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4월 테마여행지는 천년고도 경주. 특히 147군데의 절터와 불상 118체, 96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등 672점의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경주 남산은 그야말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울타리 없는 박물관'이다. 가벼운 산행을 겸한 답사여행에 경쾌한 등산복 차림으로 모인 정기회원 가족은 출발 전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서정연, 홍보담당 김태훈 씨가 함께 동행했다.

한시간을 달려 경주에 도착하자 만개한 벚꽃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이번 남산의 답사코스는 신라시대의 석불을 시대적으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삼릉~용장 코스. 이번 답사에는 깊이있는 해설로 답사여행을 이끌고 있는 경주 신라사람들의 김현철 씨가 유쾌한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원가족들을 이끌었다. 삼릉계곡에 자리한 부처님들을 만나러 가는 출발지는 바로 삼릉. 신라 8대 아달왕과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세 기의 능이 있어 '삼릉'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 속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소나무 숲이 있어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하다.

삼릉을 출발해 처음 만난 부처상은 머리없는 석불좌상인 냉골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때 조성된 작품으로, 특히 옷주름과 가사끈의 매듭장식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석조여래좌상 왼쪽 비탈로 오르면 기둥처럼 솟은 큰 바위에 새겨진 붉은 입술의 마애관음보살상을 만날 수 있다.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손에는 보병(寶瓶)을 들고 있어 현세에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한 삼릉 소나무 숲
-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때 조성된 머리없는 석불좌상인 냉골석조여래좌상
- 본존불을 가운데로 관세음보살, 협시보살이 서 있는 배리삼존불







● 조각 수법이 정교하고 우수해 우리나라 선각마애불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선각육존불 앞에서 김헌철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정기회원 가족들

다시 계곡을 따라 오르면 넓은 바위면에 여섯부처를 새긴 선각육존불과 마주한다. 자연암벽의 동서 양쪽에 각각 마애삼존상을 조각한 육존상으로, 그 조각 수법이 정교하고 우수해 우리나라 선각마애불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힌다. 선각육존불에서 등성으로 계속 올라가면 선각여래좌상을 만날 수 있다. 몸체는 모두 선각(線刻)으로 나타내었는데 얼굴만은 돌을 새김으로 표현해 마치 부처가 바위 속에서 얼굴을 내미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마애불은 남산의 다른 부처님들과 작업양식, 기법이 달라 통일 신라시대 이후 10세기 중엽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릉계곡에서 만난 마지막 부처는 삼릉계 석불좌상. 연꽃으로 된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이 석불좌상은 석굴암 본존불상에서 완성된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양식과 수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안면부와 광배 등 파손이 심했으나 최근 복원공사를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상선암을 지나 남산의 북봉인 금오봉을 향해 오르자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진다. 일단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으나 점점 거세어지는 빗줄기에 아쉽지만 하산을 결정. 거대한 바위산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우뚝 선 용장사 삼층석탑을 비롯해 삼릉계곡에서 가장 큰 불상인 마애석가여래좌상, 김시습이 머물면서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했던 용장사지 등 남은 답사지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예정된 일정이 변경되면서 삼릉 인근에 자리한 배리삼존불로 발길을 옮겼다. 7세기 신라초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배리삼존불은 원래 근처 계곡인 선방골에 떨어져 있던 세 부처상을 1923년 이곳으로 옮겨와 세운 것으로, 본존불을 가운데로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협시보살이 서있다. 특히 이 부처상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 부처의 미소가 달라진다는 신비스런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자리를 옮긴 곳은 신라의 과학기술이 결집된 포석정. 신라 멸망의 상징적인 장소로 많이 알려진 포석정은 그러나 신라의 이궁에 있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하던 유적이다. 포석정의 좌우로 꺾어지거나 굽이치게 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물길의 오묘한 흐름과 물의 양이나 띄우는 잔의 형태, 잔속에 담긴 술의 양에 따라 잔이 흐르는 시간이 일정치 않았다는 설명에 회원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마지막 답사지로 떠나기 전 포석정 넓은 뜰에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서정연 씨의 지도로 동래야류 할미과장 한 부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장래훈 씨의 유쾌한 입담과 익살스런 몸짓에 따라 배우는 회원들의 웃음이 시종 끊이지 않는다.

내리는 비로 미처 보지 못한 용장골 부처님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동남산 탑골로 향했다. 일명 '부처바위'라 불리는 탑곡(탑골) 마애조상군은 높이 9m, 사방둘레 30m의 바위와 그 주변 바위면에 여러 부처상과 탑, 비천상, 승려 등 30여개가 넘는, 남산에서 가장 많은 도상이 새겨진 불교조각의 결정판이다. 남산을 걷는 내내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것이 아니라 바위속 부처를 찾아냈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금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겨운 작업들이 놀랍기만하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했던 경주 남산답사여행.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경주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주 남산 답사 TIP**

경주남산연구소(www.kjnamsan.org)에서 주말, 공휴일 '경주남산 속속들이 탐방' 무료 진행.

● 포석정 넓은 뜰에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서정연 씨의 지도로 동래야류 할미과장 한 부분을 배웠다.



6월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창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5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5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 김계옥(남구 용당동)
- 김미경(남구 용호동)
- 신윤선(해운대구 반여동)
- 여중선(북구 덕천2동)
- 이상근(해운대구 좌동)
- 이준의(해운대구 우동)
- 전동기(동구 초량6동)
- 정영희(부산진구 범천4동)
- 최경재(남구 대연동)
- 허종관(해운대구 중1동)

**엽서당첨자**

-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 김성화(북구 화명동)
- 김현실(사하구 감천1동)
- 양혜련(북구 화명3동)
- 오숙현(서구 토성동)
- 윤금주(부산진구 가야2동)
- 이재선(서구 토성동)
- 조경희(거제시 아주동)
- 최영민(영도구 청학2동)
- 함영규(해운대구 우1동)





## 어둠속 무대에 생명을 불어넣는 부산문화회관 조명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태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없는 세상이 상상하기 힘들 듯 조명 없는 캄캄한 무대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어둠 속 무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사람들, 바로 ‘빛’으로 무대를 밝히는 조명팀 직원들이다.

현재 부산문화회관에는 곽동인 주임을 비롯해 심상신, 이우희, 장진훈, 최동식 등 5명의 직원이 무대의 조명을 밝히고 있다. 무대에 비춰지는 조명의 화려함과는 달리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명효과를 주기위한 조명팀 직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요즘 들어서는 별다른 조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클래식 연주회 또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조명연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면서 무대연출에서 조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만큼 조명팀 직원들은 공연을 앞두고 공연 연출자, 연주자가 만족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공연들이 무대연출이 완성된 후 참여할 수 있어 연출자와 의견충돌이 생기는 난감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최근에 개관한 현대화된 공연장의 조명시설에 비해 부산문화회관 조명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데다 요즘들어 관객들의 눈높이가 한층 더 높아지면서 연출자, 관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효과를 찾아내기 위한 조명팀 직원들의 고민이 많다. 그러나 경험만큼 중요한 스승은 없는 법, 공연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명팀 가족들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시로 관람하며 자신만이 노하우를 키워나가고 있다.



## 하프의 선율에 5월을 신고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도시의 한 볼록만 넘어서면 온통 녹색의 푸르름이 산야를 덮고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끝을 싱그럽게 한다. 참으로 5월은 젊음의 계절이고 또한 신록의 계절이다. 이때쯤이면 자연히 듣는 음악도 빛깔로 치면 노란색이나 분홍빛에서 청색과 초록빛깔로 바뀌게 되는데 어디선가 하프의 아름다운 선율이 5월의 훈풍을 타고 귓전을 스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로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 예로 기원전 300년 경의 것으로 알려진 '비스마야'의 화병에도 순수한 모양의 하프가 그려져 있고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는 들소 그림에도 이와 비슷한 모양의 하프가 함께 그려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하프의 기원은 수렵시대에 사용했던 연장인 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활의 줄을 튕기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데 하프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오래된 문명권에서는 하프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리라'라는 수금이 있었다. 처음 수금은 음량도 적고 반음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수백년을 거치면서 악기의 모양도 점차 바뀌었고 17세기 후반 프랑스 사람인 티롤이 고리 하프를 만들면서 현재와 비슷한 모양의 악기 형태가 갖추어 졌다.

그후 1970년에는 처음으로 페달하프가 만들어 지면서 가까스로 반음을 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반음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는 정교한 하프는 1810년경에 프랑스 악기제작자 에라르가 겹페달 하프를 만들면서 완전한 하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개량된 하프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히 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이 하프를 위한 곡들을 작곡하게 되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음반 역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활약한 프랑스 작곡가 프랑소와 아드리앙 보와엘뒤의 하프 협주곡 다장조를 비롯해서 헨델의 하프 협주곡 작품 4의6, 디털스 도르프의 하프 협주곡 등 주옥같은 하프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프의 맑고 매력적인 특성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스페인 출신의 여류 하프연주자 마리사 로블레스의 하프와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성 아카데미 실내 합주단의 협연 또한 일품이라 할 수 있다.

HARP CONCERTOS







# CULTURE LIFE

부산문화회관 **PROGRAM GUIDE 42**

기타공연장 **PROGRAM GUIDE 50**

**NEW MUSIC 62**

**NEW BOOK 63**

**SPECIAL MOVIE 64**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문화회관(519-5651)  
 동래문화회관(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630-5200)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780-6000)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아트홀(758-9035)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



---

가마골소극장(1588-9155)  
 공간소극장(611-8518)  
 글로벌아트홀(505-5995)  
 디코소극장(464-1996)  
 미리내소극장(504-2544)  
 소극장6번출구(625-2117)  
 솜사탕아트홀(922-4545)  
 신명천지소극장(515-7314)  
 아트카페 움(557-3369)

---



---

액터스소극장(611-6616)  
 에저또소극장(852-9161)  
 열린소극장(555-5025)  
 용천지랄소극장(612-4312)  
 일터소극장(635-5370)  
 자유바다소극장(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621-4005)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5월 1일-2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민정(010-6531-0307)

1990년 창단 이래 부산지역 피아노 듀오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43회 정기 연주회.

5월 1일 첫째 날은 피아노 듀오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부산대학교 권혜령 교수와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배수정의 듀오무대, 5월 2일 둘째 날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피아니스트들이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듀오 음악의 세계를 펼친다.

**5월 1일 권혜령 & 배수정 듀오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448  
 피아졸라/안녕 노니노, 리베르 탱고  
 드뷔시/6개의 고대 비문  
 리스트/돈 조반니의 회상

**5월 2일 듀오연주회**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작품 15  
 바흐/사콘느  
 볼콤편/악마의 키스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2번 등 수곡  
 · 연주/박희정 & 고정오, 최민경 & 임효진, 하수연 & 이인영, 심정연 & 김미현, 김은주 & 고은정

**최영화 비올라 독주회**

5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영화(010-3564-1194)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여성실내악단 레이디스필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화의 비올라 독주회.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론도  
 칼리보다/모음곡 제 5, 6곡  
 브루흐/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 제 2, 3, 4악장  
 니노로타/인터메쵸

**2012 부산국제연극제**

**Hello, Asia! 아시아의 재발견**

5월 4일(금)-13일(일)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입장료 | 개/폐막작 1층 2만 5천원 · 2층 2만원  
 초청작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코마치후덴 일반 3만원 ·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국내 유일의 콘셉트 연극제인 부산국제연극제 2012년 무대.

'Hello, Asia(아시아의 재발견)'를 콘셉트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뉴질랜드, 일본 등 7개국 11편의 작품을 초청, 전통과 변화의 중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시아의 작품들을 조명해본다.

특히 올해는 2013년 프랑스 아비뇽OFF 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Go, 아비뇽OFF'를 새롭게 신설, 12개의 경연 작품이 열띤 경쟁을 벌인다.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10분 연극제'는 '일반부'와 '전공대학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5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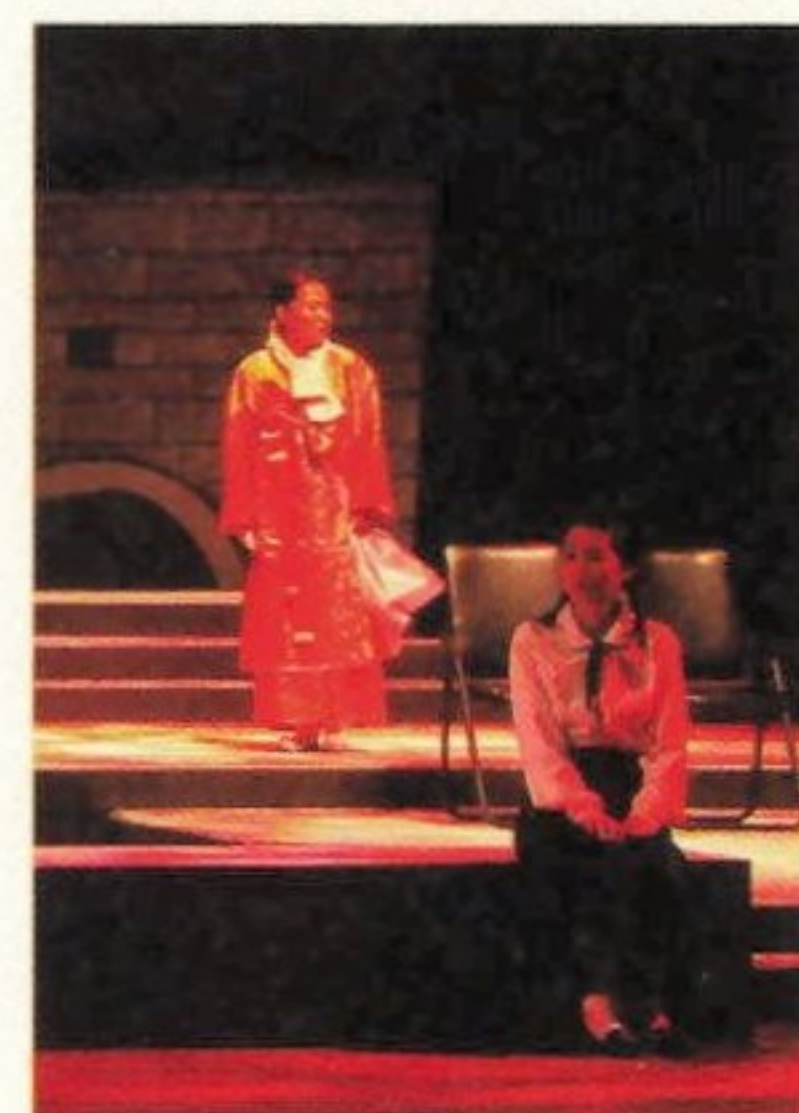
중국 국가 선정 1급 예술극원으로 선정된 '사천성천극원'의 수준급 연기와 에너지를 고스란히 접할 수 있는 제9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수유기'. 동양의 오페라 '천극'과 중국 당대의 애정소설 '이와전'의 절묘한 만남으로 동양 연극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수유기'는 삶의 고난과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

가는 기생 '이아선'의 뛰어난 지성과 남편을 향한 사랑, 순정을 그린 작품이다.

**▶ BIPAF OPEN 부산연극제 대상작**

**한국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5월 8일-9일 화-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2012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희곡상, 무대에 숭상을 수상한 극단 바문사의 '여자이야기 herstory II 죽어 피는 꽃'.

유교사상에 의해 자신을 감추고 자유롭지 못함을 강요받았던 조선시대 계급이 다른 세 여인들의 사랑과 인생, 한을 표현한 작품이다.

· 작/최은영

· 연출/이선주

**▶ BIPAF OPEN 부산사전제작지원작품**

**한국 극단 더블스테이지 '길(道)'**

5월 8일-9일 화-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일연의 삼국유사 중 '조신의 꿈' 이야기를 모티브로, 나약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길(道)'은 한국의 전통문학과 우리의 소리(사물, 가야금)를 덧입혀 풀어낸 년배벌극이다. 영상과 무대조명이 주는 실험극만의 독특한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

· 작, 연출/이종근

· 출연/김동민, 김성은, 염시훈, 김예진

**▶ BIPAF OPEN 자유참가작 한국 연희단 거리패**

**'코마치후덴'**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5월 1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일본 최고 권위의 기시다 희곡상 수상작 '코마치후덴'에 한국적인 양식을 가미한 연희단거리패의 '코마치후덴'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미학으로 일본의 원작을 아시아의 새로운 공연예술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코마치는 자신에게 청혼하려면 백번 정도 찾아와서 구애해야만 응하겠다고 한 오만한 일본 설화속의 여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청혼하기 위해 오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죽을 때까지 독신녀로 산 절세미인이다. 작품은 늙은 여인이 되어 혼자 사는 코마치의 기억을 초현실적으로 펼쳐낸다.

· 작/오타 쇼고 · 연출/이윤택

▶ **폐막작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 '이방인'**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부산국제연극제, LG아트센터 공동 초청작으로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는 폐막작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의 '이방인'.

초현실적인 시간과 장소를 여행하는 이민자의 삶을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손 탄 (Shaun Tan)의 그림책을 소재로 한 '이방인'은 그림책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놓은 것 같은 아름답고 정교한 무대,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품과 동물들, 배우들의 마임으로 갖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감동을 안겨준다.

〈The Arrival〉은 특히 200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페

스티벌(Auckland Arts Festival)에서의 성공 이후 시드니 페스티벌, 홍콩 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연이어 찬사를 받았다. 2010년 뉴질랜드의 연극상인 'Chapman Tripp Theatre Awards'에서 최고 작품상, 연출상, 무대 미술상을 비롯해 총 6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33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5월 16일-18일 수-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심정연(010-2009-1090)

1996년 출범 이후 매년 두 차례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곡에서부터 현대곡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33번째 피아노 페스티벌.

▶ **제1일 5월 16일(수) 김해옥 피아노독주회**



신라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김해옥의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악흥의 한때 작품 94 D. 780(No. 1~6)

에벤/Franz Kafka의 Mielen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text에 곡을 붙인 5개의 곡  
스크랴빈/프렐류드 작품 11 중 'No. 1, 5, 11, 19, 20, 21, 8, 14'

▶ **제2일 5월 17일(목) Debussy의 밤**

1862년 8월 22일 프랑스 생 제르망 앙레에서 태어나, 색채감 있는 곡을 작곡하면서 인상주의 음악을 꽃피웠던 드뷔시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

**프로그램**  
피아노를 위하여 L.95(연주/최지은)  
작은 모음곡(연주/고은경 & 홍지혜)  
'6개의 고대 에피그라프' 중 No.3, 4, 6 Marche écossaise(연주/김성숙 & 안준희)

프렐류드 1권 1번, 6번, 12번(연주/황정미)  
영상 1 중 '물의 반영' (연주/최정윤)  
판화(연주/김유진)

▶ **제3일 5월 18일(금) Ensemble의 밤**

지난해 부산대학교 교수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김정권을 비롯해 김동욱, 이경옥, 이조토브, 정년경, 금찬이 등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들이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김정권/Dreamscape Book 1(연주/김정권 & 김동욱)  
케빈 울슨/A Scott Joplin Rag Rhapsody(연주/이경옥 & Izotov & 정년경 & 금찬이)  
드보르작/슬라브무곡(연주/이윤정&신애정)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연주/정은정 &성민주)  
보로딘/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의 춤'(연주/서숙지 & 서양지)  
거쉬윈/포기와 베스 by jascha heifets 1, 2, 3(연주/정광민 & 김희정)

**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바리-서천꽃 그늘**

5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무용극 '바리-서천꽃 그늘'.

고대 바리데기 설화를 물의 이미지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춤으로 형상화한 '바리-서천꽃 그늘'은 자

신을 버린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찾아 험난한 길을 떠난 바리의 지극한 효를 한국 고유의 춤사위와 현대적인 몸짓 표현으로 재해석한 무용극이다. 태평무를 현대화시킨 태평성대, 강강술래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만든 다리길, 검무를 팔대지옥의 험난한 과정으로 묘사한 춤 등 박진감 넘치는 춤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 작품 내용 및 구성

### 삶

- 장면1. 프롤로그-버려진 바리
- 장면2. 태평성대 그리고 혼돈-다시 바리로부터

### 죽음

- 장면3. 휘이휘이 서천길-길떠나는 바리
- 장면4. 황천강을 건너

장면5. 굽이굽이 아흔아홉 다리길

장면6. 아득히 붉은 팔대지옥춤

### 삶과 죽음사이

- 장면7. 서천 꽃그늘 생명수를 얻다
- 장면8. 에필로그-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생명물의 신
- 안무 및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황해순
- 드라마투르기/최찬열 · 음악/최상인
- 무대/백철호 · 의상/민천홍
- 캐스팅/바리공주 정진희(17일), 바리공주 오수연(18일)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선생님, 감사합니다'

5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초대권 배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전상철      배정형      백승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부모님, 감사합니다'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스승의 날을 기념,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연주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한국작곡가시리즈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 작곡가 백승태의 창작곡무대와 부산색소폰콰이어 인 프로의 색소폰 앙상블 연주, 박지용이 지휘하는 용산초등학교 합창단의 특별무대와 함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배정형이 단원들과 사제의 정을 나누며 성악가로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

### 프로그램

- 백승태/눈꽃, 누나생각, 아침인사
- 홍난파/옛동산에 올라
-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날지 못하리'
- 우효원(편곡)/아리랑
- 이기경/하늘 천 따지
- 이선택(편곡)/아리랑 연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작곡/백승태
- 특별출연/바리톤 배정형(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 수석지휘자)
- 용산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지용)
- 부산색소폰콰이어 인 프로
- 이혁우(부산시립극단-훈장역)

##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 제41회 정기연주회

5월 20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청소년 50% 할인)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627-8088, www.incorea.com)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41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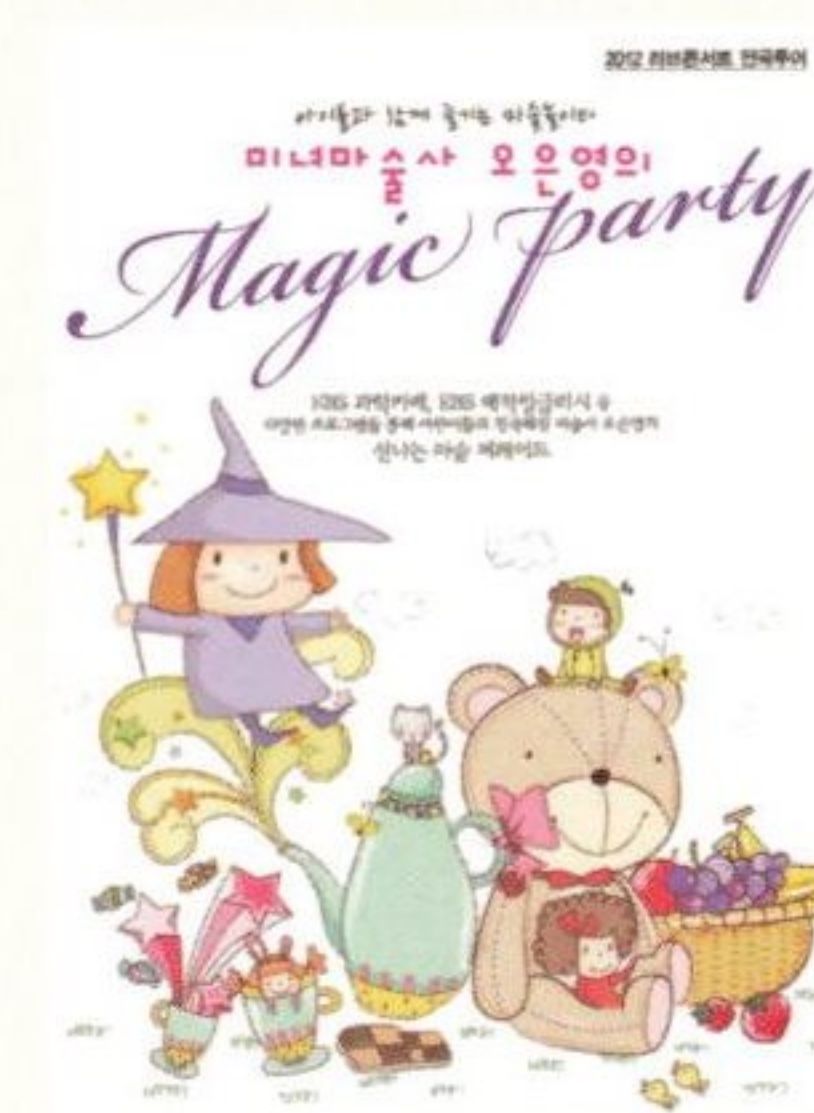
1996년 창단된 법인 예술전문교향악단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공공기관 위탁 초청 연주, 대형오페라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 프로그램

- 슈베르트/로자문데 서곡 작품 26
- 슈베르트/교향곡 제8번 나단조 D.759 '미완성'
- 슈만/교향곡 제1번 내림나장조 작품 38 '봄'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마술사 오은영의 매직파티

5월 20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 의 | 마리아칼라스홀(02-558-4588)



KBS 과학카페, EBS 매직 잉글리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친숙한 마술사 오은영의 신나는 마술 퍼레이드 '오은영의 매직파티'.

눈 앞에서 뿡~ 사라지고, 싹~ 웃이 바뀌고, 내가 직접

마술사가 되어보는 코너까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꽃마술, 카드마술, 링마술 등을 선보인다.

## CBS여성성가단 창단 30주년 기념

### 제12회 정기연주회

5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강옥주(010-3698-1910)  
 이은숙(010-3483-4297)

1982년 5월, 음악과 찬양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CBS여성성가단의 창단 30주년 기념 제 12회 정기연주회.

CBS방송국 소속으로 방송선교활동을 펼치기도 한 CBS여성성가단은 그동안 LA(2000년), 호주 뉴질랜드선교찬양(2002년),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성가대제전(2004년), 나가사키 성지순례(2010년), 국내 합창제에 참가해왔다.

### 프로그램

Dona Novis Pacem, 두껍아, 문지기 문지기 포로들의 합창 등 수곡

· 지휘/이외균      · 반주/김은경

· 특별출연/윤형주



**제8회 동의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 연주회**

5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의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  
 (019-567-8085)

동의대학교 졸업 후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의대학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가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2005년 창단, 올해 8회째 맞는 이번 연주회는 부산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피아노 앙상블로 23명의 연주자가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한다.

**프로그램**

리스트/헝가리 랩소디 No 2  
 생상/죽음의 무도  
 구노/파우스트 왈츠 등

· 연주/강한나, 오서향, 김미현, 임성아, 전미정, 박소연, 심정연, 최승희, 노지영, 최진현, 서영란, 박경옥, 이은정, 양광기, 최윤경, 김민자, 오주희, 송치명, 김명진, 서숙지, 서양지, 정연희, 김경표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여덟 번째 이야기**

**풀잎사랑-가요합창의 사계(四季)**

5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2만원 · 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7080 세대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 가요합창음악회 여덟 번째 무대.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가요합창의 사계(四季)-풀잎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곡들을 선곡, 온가족인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박광하가 지휘하고 대중가요의 신사로 불리는 가수 최성수가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봄/풀잎사랑(Arr.문지은),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Arr.최석태), 꿈의 대화(Arr.최석태)  
 여름/해변으로 가요(Arr.최석태), 바닷가의 추억(Arr.최



석태), 라라라(Arr.문지은), 고래사냥(Arr.문지은)  
 가을/J에게, 해후, 동행(Arr.최석태)  
 겨울/겨울아이(Arr.최석태), 창 밖의 여자(Arr.최석태),  
 별이 빛나는 밤에(Arr.문지은)  
 · 지휘/박광하(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해설/오동주(부산시립합창단 기획)  
 · 특별출연/최성수(가수)  
 · 세션/조현미(바이올린), 김진훈(드럼), 홍광현(기타),  
 김정태(기타)

**아미치 세펠레 기획공연  
사랑하는 모든이들을 위한 Love Concert**

5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미치 세펠레(010-9334-6105)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미치 세펠레가 들려주는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결혼식 축하를 비롯해 사랑에 관련된 우리가곡 및 외국가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축훈행진곡, 사랑은 영원하네, 10월에 어느 멋진날에, 축복하노라, 그대있음에, Ich liebe dich, eterno amore e fe, un amore cosi grande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현지, 김지영, 이은미, 권수현, 김보라, 메조소프라노 박지현, 테너 이철성, 임대균, 한우인, 김정균, 김태성, 바리톤 류동호, 이정민

**창작합창 21 2012 제7회 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III**

5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  
 문 의 | 조혜선(010-8501-5117)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온 창작합창 21의 정기작품 발표회.

황장수가 지휘하는 코람데오 합창단이 작곡가들의 창작 합창곡과 가곡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김성재/내가 깊은 곳에서  
 정승원/주님께 영광  
 정혜란/깊은 밤중에  
 김성덕/진달래꽃  
 윤소정/겨울 간이역  
 황장수/거룩하신 주  
 최삼화/주여 이 자리에  
 진소영/님의 노래  
 권태우/영원한 그 사랑  
 임록/주의 영광 온 땅에  
 조혜선/여호와 하나님 등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5회 음악정기연주회**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58 제23번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작품 17 제2번  
 · 합창지휘/최민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피아노/박근우(3학년), 박준영(3학년), 노유정(3학년)  
 · 트리오/조다은(3학년, 플루트), 전의석(3학년, 바이올린), 이수정(3학년, 피아노)  
 · 마림바/이유진(3학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1회 정기연주회 '고전음악의 세계'**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2년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한 베트남 초청연주로 2012년을 의욕적으로 출발한 부산시립청





이동신 이강일 김미현

소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제41회 정기연주회 '고전음악의 세계'

베토벤과 더불어 고전주의를 이끈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과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후기낭만음악의 대가로 작곡 말년에 고전적 작품을 보인 R.슈트라우스의 주옥같은 작품들로 감동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미현이 모차르트의 후기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제23번을, 트럼페터 이강일이 R.슈트라우스의 호른협주곡 제1번을 플뤼겔호른으로 연주,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 서곡 작품 366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 작품 488  
R.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 11  
하이든/교향곡 제88번 사장조 'V자'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이강일(플뤼겔호른, 계명대 교수), 김미현(피아노, 창원대, 인제대, 동의예술영재원, 부산에·중고 출강)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효녀심청**

5월 24일-25일 목-금요일  
5월 29일-30일 화-수요일  
6월 1일 금요일, 6월 4일-5일 월-화요일  
6월 7일 목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단 체시 사전 예약 바람)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재미있는 춤으로 엮은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으로 보여



주는 동화 속 이야기' 2012년 무대.  
지난해 별주부전에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마당춤판 '효녀심청'을 재구성,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춤으로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공연 중에는 무용들과 함께 하는 댄스타임과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부산MBC 창사 53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5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임 호른 수석 만이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9회 정기연주회.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톤과 뛰어난 선율감각의 소유자' '넘치는 상상력과 빛나는 테크닉, 한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음정의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는 양성원의 첼로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풍부한 조화를 주고 받는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비롯해 R.슈트라우스가 아버지의 환갑을 기념하여 작곡

한 호른협주곡 제1번, 베를리오즈의 정열적인 로맨틱 시즘이 잘 표현된 환상교향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제1번  
베를리오즈/환상 교향곡(어느 예술가의 생애)  
· 지휘/리 신차오  
· 첼로/양성원 · 호른/만이

**소리마루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5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소리마루합창단(010-9500-0981)



합창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며, 봉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결성된 소리마루합창단의 첫 정기연주회.  
'소리의 으뜸'이라는 뜻의 '소리마루'는 합창의 장점을 살려 일상생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화합하고 봉사하기 위해 찬양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5월 21일 창단공연에 이어 갖는 제1회 정기연주회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과 뮤지컬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 지휘/박언수 · 트레이너/김미송
- 반주/서수영, 석주안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5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배부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이태석 신부의 희생, 봉사,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故 이태석 신부      오충근      박은주

의사이자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는 톤즈 마을에서 교육, 종교, 의료봉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악단 지도를 할 만큼 음악적 소양이 깊었다. 어린 시절부터 보였던 작곡에 재능을 보이며 성가, 동요를 작곡하기도 한 이태석 신부의 봉사정신을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넘어 노래와 음악으로 전한다.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 소프라노 하윤지, 테너 강학윤,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의 협연으로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
- 이태석/오케스트라를 위한 '묵상'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 협연/소프라노 박은주, 메조 소프라노 하윤지, 테너 강학윤,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순회연주회-부산**

5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수원시립예술단(031-228-2813~6)

1982년 창단,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투어연주회. 2월 24일 수원에서 가진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등 전국 9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펼치고 있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초대 지휘자 송태욱을 비롯하여 정두영, 김몽필, 금난새, 박은성 등의 상임지휘자와 도야마 유조(Toyama Yuzo), 크리스찬 에발트(Ewald Christian), 반초 차브



다르스키(Vancho Cavdarski), 안드레아 보나타(Andrea Bonatta) 등 해외 유명 객원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다.

이번 무대는 2008년 5월, 제6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김대진의 지휘, 무한한 열정으로 변화무쌍한 클래식 음악계에서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 글린카/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라장조
- 베토벤/교향곡 5번 다장조 작품 67
- 지휘/김대진      · 협연/김지연(바이올린)

**제31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5월 28일 월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라대학교(999-5301)



신라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이 그동안 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졸업 발표무대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댄스 스포츠, 힙합, 벨리 등 다양한 장르의 춤사위를 선보인다.

- 출연/김지영, 김유지, 서지은, 이은지, 이경아, 이유리, 양해인, 윤덕은, 정아름, 최지은, 최현지, 황경혜

**제2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2012 부산청소년음악제**

5월 29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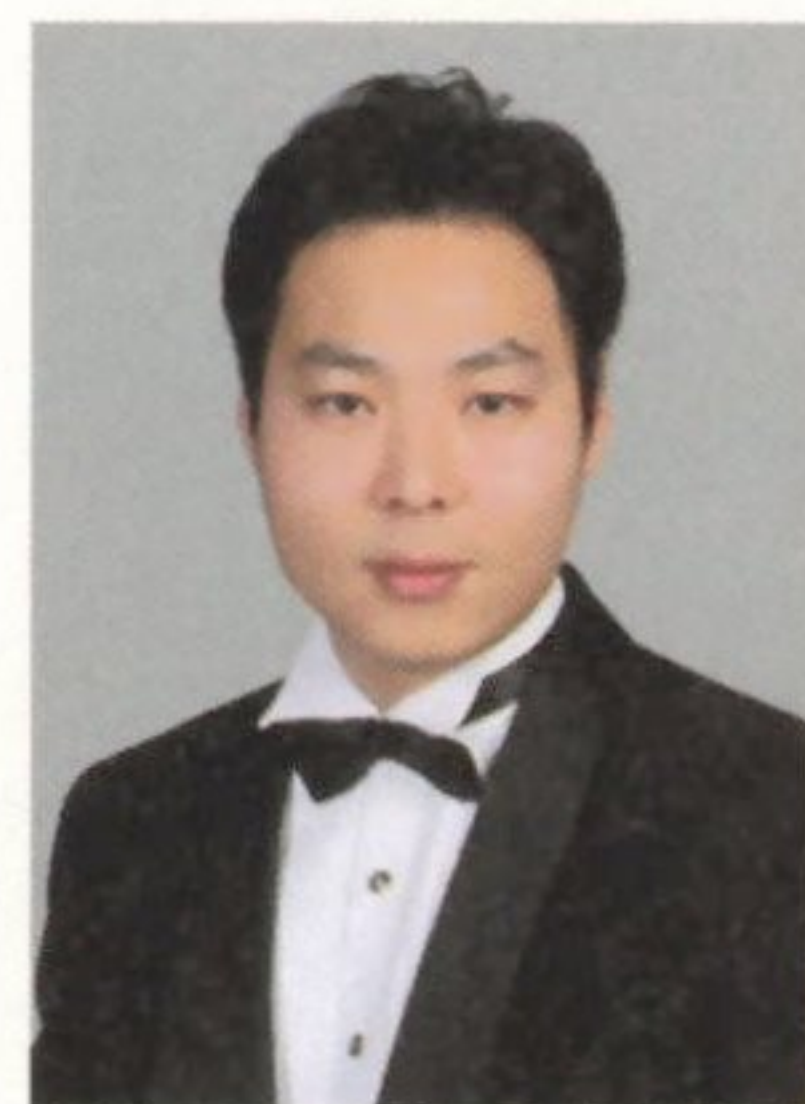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 개발과 예술문화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부산청소년예술제로 부산시내 중·고교 관악단, 청소년 관현악단을 초청,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드볼작/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 민요메들리/양산도, 밀양아리랑, 흥타령
- 마르케스/단손 제2번 등 수곡
- 연주/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구 부산YMCA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장진)
- 해운대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정우영)
- 분포중학교 관악단(지휘/장극태)
-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테너 최광현 귀국 독창회**

5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최광현(010-6755-4873)



이태리 F.Vittadini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출신 테너 최광현의 독창회.

최광현은 유학중 이태리 Matera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국제콩쿠르에서 16회(1위, 2위, 3위,

특별상) 수상하며 성악의 고장 이태리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 벨리니/세 개의 아리아, 여섯 개의 아리아 등 수곡

**제22회 경성대학교 관악단 정기연주회**

5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경성대학교 음악부에 재학중인 음악도들이 들려주는  
경성관악단 정기연주회로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학구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올리바도티/장미의 축전  
차이코프스키/1812 서곡 등  
· 지휘/이기균(경성대학교 교수)

**제1133회 MBC 목요일음악회  
동래구립여성오케스트라  
5월의 꽃향기 음악회**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문의 | 백원석(010-3592-9002)



2008년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이래 동래  
읍성축제, 온천천 열린음악회, 동래 지역 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동래  
구립여성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5월의 꽃 향기음악회.

**프로그램**

로시니/윌리엄텔 서곡  
이흥렬/꽃구름 속에  
모차르트/오페라 '돈조반니' 중 '그대의 손을 주오'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 상임지휘 및 음악감독/백원석(동부산대학 교수)  
· 협연/소프라노 신진범, 테너 장원상, 바리톤 윤오건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품다**

6월 1일-6월 5일 금-화요일  
중극장,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문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90-2507, www.bidf.or.kr)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  
용제 2012 부산국제무용제.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프로그램으로 부산출신의 발레  
리노 김용걸이 홍보대사로 참가해 화제를 모으고 있  
는 2012부산국제무용제는 소통과 화합을 키워드로 세  
계 14개국의 우수한 춤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초청공  
연,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프로그래  
머 안은미가 추천하는 댄스필름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일정 및 프로그램**

▶ 1일(금) 해운대특설무대

국립부산국악원(전통)  
일본 동경 일렉트록스테어스(컨템포러리)  
벨기에 레티나댄스컴퍼니(컨템포러리)  
프랑스 블론디(팝핀)  
영국 캐롤라인핀(컨템포러리)  
노르웨이 퀵크루(힙합)  
미국, 쿠바 나야라 & 로돌포(라틴)  
뉴질랜드 블랙 그레이스(전통+컨템포러리)  
김용걸 솔로(발레)

▶ 2일(토) 해운대특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학춤' (전통)  
헝가리 페렝크페헤르(컨템포러리)



폴란드 마르신 크라예프스키(모던발레)  
프랑스 블론디(팝핀)  
벨기에 레티나댄스컴퍼니(컨템포러리)  
일본 동경 일렉트록스테어스(컨템포러리)  
노르웨이 퀵크루(힙합)  
뉴질랜드 블랙 그레이스(전통+컨템포러리)  
유니버설발레단(발레)

▶ 3일(일) 해운대특설무대

강미리무용단  
헝가리 페렝크페헤르(컨템포러리)  
프랑스 델라트르댄스컴퍼니(모던발레)  
중국 타오댄스씨어터(컨템포러리)  
영국 이탈리아 캐롤라인&사라(컨템포러리)  
태국 피켓 클런컨 댄스 컴퍼니(전통+컨템포러리)  
폴란드 마르신 크라예프스키(모던 발레)  
미국, 쿠바 나야라 & 로돌포(라틴)  
전미속 무용단

▶ 4일(월)-5일(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태국 피켓 클런컨 댄스 컴퍼니(전통+컨템포러리)  
프랑스 델라트르댄스컴퍼니(모던발레)  
영국 캐롤라인핀(컨템포러리)  
중국 타오댄스씨어터(컨템포러리) 등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 5월 19일 퓨전시나위 '예타래' 연주회

#### 프로그램

- 이준호/축제 3악장(대금/최지환 · 클라리넷/조익래 · 가야금/박은정 · 피리,태평소/류성식 · 해금/조위현 · 첼로/이광수 · 타악/허인대, 이갑석 · 피아노/정세윤)
- 조익래/예탈계락(藝脫界樂)(가야금/박은정 · 오카리나, 소금/류성식 · 색소폰/조익래 · 피아노/정세윤 · 첼로/이광수 · 모듬북/이갑석 · 팽과리, 심벌즈/최지환 · 장구/허인대)
- 박연목포, 박타령(Tenor/최지환 · 피아노/정세윤 · 클라리넷/조익래 · 가야금/박은정 · 피리/류성식 · 해금/조위현 · 첼로/이광수 · 타악/허인대,이갑석)
- 조현영/연둣빛 꿈(대금/최지환 · 피리/류성식 · 해금/조위현 · 피아노/정세윤)
- ※창작초연
- 조익래/가야금3중주 '추억나들이' (가야금1/나주희 · 가야금2/이초희 · 가야금3/박은정 · 장구/윤승환)
- 조익래/가야금 3중주 '제주민요 너영나영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야금1/나주희 · 가야금 2/이초희 · 가야금3/박은정 · 장구/윤승환) ※창작초연
- 정세윤/한오백년, 까투리타령(Soprano/양라윤 · 피아노/김미연 · 받는소리/정세윤, 이갑석, 이광수, 조익래, 최지환, 류성식)
- Piano, Saxophone & 풍물을 위한 퓨전시나위 2012(팽과리/허인대 · 장구/류성식 · 북/최지환 · 모듬북/이갑석 · 색소폰, 태평소/조익래 · 피아노 · 팽과리/정세윤)

### 5월 2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 현악합주 '도드리'(가야금/옥경화, 김지현, 하지희, 정세희 · 거문고/엄애리, 박하혜, 전혜정, 이유진 · 양금/장미진 · 장구/이장우)
- 대금산조(서용석 류)(대금/강영진 · 장구/전학수)
- 대풍류(대금/최재호 · 피리/박영은, 진형준 · 해금/김소현 · 장구/송강수 · 좌고/박재현)
- 산조합주(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박 일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오상훈 · 장구/이장우)
- 설장구 놀이(설장구/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 지휘/김철호 · 해설/전현진



## Music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飛翔'

5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



1982년 창설된 후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킬 젊은 국악인들을 키워온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동문음악회.

· 지휘/이정필 · 사회/정영진

### 카메라타 부산 창단연주회

5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윤상운(010-4313-5410)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윤상운과 2~30대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시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을 들려주는 카메라타 부산 창단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에서 쇼스타코비치에 이르는

고전, 낭만, 근대 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윤상운 · 악장/김희정

###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5월 1일(화), 3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예술기획(010-4909-7444)

고신대학교 김남숙 교수의 제자, 동문들이 마련하는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 1일 프로그램

2개의 아라베스크, 판화, 베르가마스카 모음곡, 피아노를 위하여

· 연주/이은진, 강혜덕, 고태욱, 이수미

#### 3일 프로그램

기쁨의 섬, 스코틀랜드 행진곡, 전주곡 1집, 영상 1집

· 연주/김지원, 박민경, 윤선혜, 최윤희, 신현희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1일 김애리 아쟁독주회 '불휘기픈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 전수자로 우리가락의 맥을 잇고 있는 김애리 아쟁독주회.

#### 8일 이창규의 춤 '쟁이들의 한판'

현재 창원시립무용단 단원, (사)부산예술단 예술감독,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이창규의 무대.

#### 15일 풍물굿패 소리결 '경상도의 힘'



지난 2000년 창단된 후 우리민족의 뛰어난 전통예술을 복원, 계승해온 풍물굿패 소리결 무대.

#### 프로그램

사물놀이, 비행(飛香), 판굿, 금회복춤

· 출연/김인수, 이은규, 류길현, 이재철, 백민권, 김정은, 안병민, 주웅탁

### 22일 장혜숙 가야금 연주회

부산시무형문화재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전수조교이자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숙의 가야금 연주회.

### 29일 새암춤회의 춤

1992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동문, 재학생들로 결성된 한국춤 동인단체인 새암춤회의 전통춤.

#### 프로그램

교방입춤, 교방검무, 소고춤,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허튼춤 '자연춤', 신명의 북 '울림'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 2일 피아노 그리고 네가지 색깔

피아니스트 권혜진, 김정강, 김희정, 고영주가 꾸미는 4인 4색 무대.

· 해설/박진홍

#### 9일 피아노소사이어티 '클랑'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민강은, 양정은, 최미정, 김병기로 구성된 피아노소사이어티 '클랑' 정기연주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연주회 세 번째 무대로, 소나타 제5번과 6번, 7번과 9번을 들려준다.

· 해설/윤성원

#### 16일 재즈보컬 백흥선 리사이틀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원 석사, 파리8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러시아 마그니타 고르스크 국립음악원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재즈보컬 백흥선 리사이틀.  
· 연주/심규성(트럼본), 김수지나(피아노), 서진석(드럼)  
· 특별출연/황성렬(트럼펫)

**23일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경북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 피아노/장효진 · 해설/박은승

**30일 정우영 & 윤태준 조인트 리사이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과 바수니스트 윤태준이 함께하는 무대.  
· 피아노/이주연 · 해설/박은아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목요상설공연 '끌림'.

**3일 아동극 '우리동네 도깨비'**



노래 잘하고 춤 잘추고 재주많은 보따리 할멈과 장난꾸러기 도깨비들이 펼치는 창작아동극.

· 작, 연출/김익현  
· 출연/백정임, 박금봉, 이현준, 김태욱 외

**10일 부산소극장뮤지컬오페라양상블 '라 트라비아타'**

베르디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해설/장진규  
· 출연/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허동권, 바리톤 고영호

**17일 앙상블 T의 현울림**

경상대학교 김양준 교수를 리더로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T의 무대.

**프로그램**

도흐나니/세레나데  
할보르센/파사칼리아 등 수곡  
· 연주/김양준(바이올린), 강희승(바이올린), 조미형(비올라), 송언경(첼로), 황성현(피아노)

**24일 춤패 배김새와 신명**

부산의 민속춤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창작을 선보여온 춤패 배김새의 신명나는 우리춤 무대.

**프로그램**

태평무, 검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장구춤, 입춤 등

**31일 김정원 춤 소통**

연극, 뮤지컬, 무용극, 시조창무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온 춤소리예술단 대표 김정원의 춤.

**프로그램**

살풀이춤, 영남교방무, 진주교방굿거리춤, 태평무 등.

**아트카페 움 목요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3일 김영익 초청 류트 연주회**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과 밀라노 아카데미 전문연주자과정, VENEZIA 고음악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류트연주자로 활동해온 김영익 초청 무대.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호정, 류트연주가 곽승웅

**10일 퓨전국악 '신비' 연주회**

국악과 팝,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퓨전무대를 선보여온 퓨전국악팀 '신비' 초청무대.  
· 연주/손은혜(플루트), 장경미(가야금), 안미나(전자바이올린), 정서화(해금)

**17일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로마 A.R.D.M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보이스싱어즈 남성양상블 단원,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정민, 피아니스트 양광기

**24일 부산가야금연주단 3인 3색 음악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별, 황정원, 최승혜가 꾸미는 3인 3색 무대.

**프로그램**

옹헤야, 강마을, 황금산의 백도라지, Dancing Elise, Amazing Grace, let it be, My way, 오블라디 오블라다, 사랑이 지나가면, 그때 그사람 등 수곡  
· 특별출연/박성주(대금), 문현길(드럼), 이영환(베이스 기타)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음악가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 31일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의 소중한 음악이야기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러시아 노보 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블 콘틴토 리더, 부산카머심포니오 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 특별출연/고충진(클래식기타), 박필은(피아노)

## 금요 해피콘서트 피아노 with 현미경

5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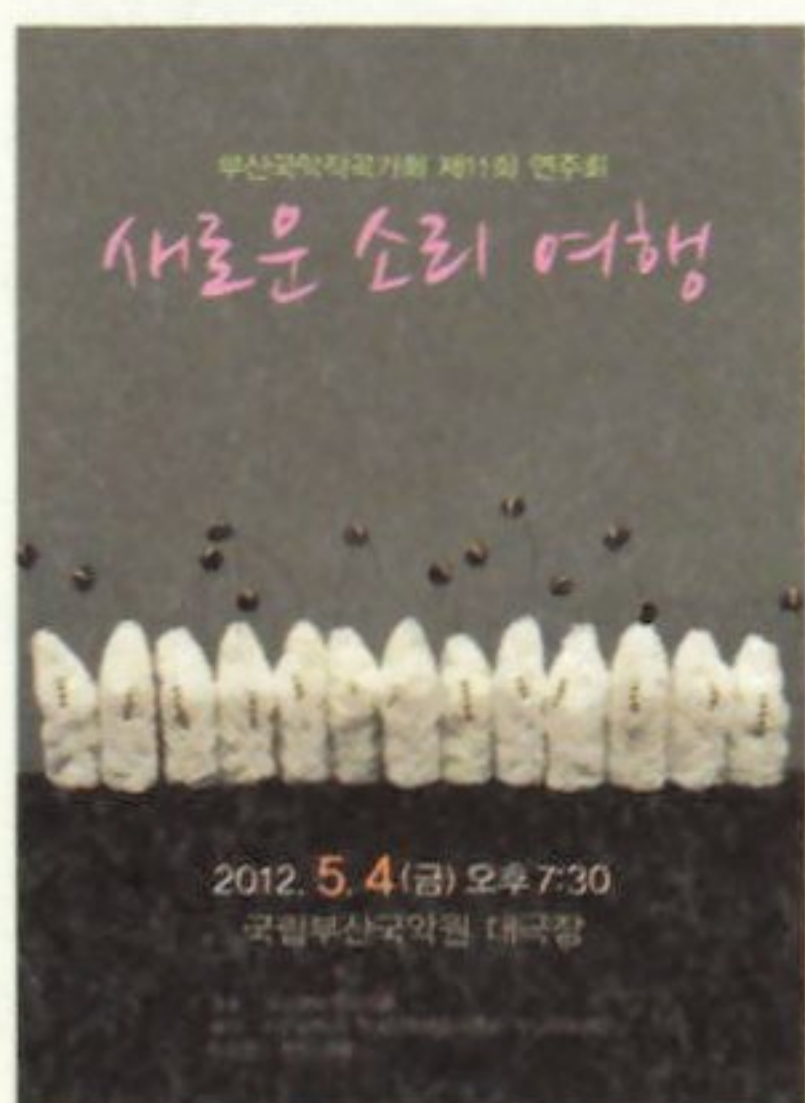
영국 왕립음악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불가리아 청소년 국제 콩쿠르 피아노부문 1등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현미경과 함께하는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 프로그램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쇼팽/녹턴 제 2번 등 수곡

##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1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소리여행

5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황의종(010-8523-2942)



한국 전통음악의 계승과 매년 새로운 국악창작곡 발표를 통해 우리 음악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힘써온 부산국악작곡가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황의종/아! 이순신

윤소희/청산별곡  
조익래/ '너영나영' 주제에 의한 Variation  
이은경/청.靑.淸 등 수곡

## 국립부산국악원 어린이날 기념공연 푸른 하늘 아래서

5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마련하는 어린이날 기념 무대.

· 지휘/박훈

## Dream with me 조수미 - 부산

5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비프씨어터  
입장료 | VIP 110,000원 · R석 90,000원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뮤지컬 배우 윤민석과 함께 펼치는 특별한 무대. 오페라 아리아에서 뮤지컬 넘버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연주/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방성호)

##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권혁주, 김다솔 초청공연

5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기량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2008년 제15회 슈만국제 피아노콩쿠르 3위, 2011년

제60회 ARD국제음악콩쿠르 3위, 2011 프랑스 에피날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등 유명 콩쿠르를 휩쓸며 차

세대 연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함께하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 프로그램

라벨/소나타 제2번 사장조  
스트라빈스키/디베르티멘토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1번 작품 80 등  
라벨/치간느

## 베이스 문성환 독창회 '오페라 아리아의 밤'

5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의 | 우리아트(010-5555-3825)



영남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이탈리아 로시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7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베토벤 장엄미사, 헨델 메시아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 오페라

아이다, 잔니스키키, 부산성사람들,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카르멘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베이스 문성환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베르디, 구노, 벨리니, 도니제티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강지영 피아노 독주회

5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강지영(010-5511-6635)



세종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카셀국립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서울과 부산,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강지영 독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타지아 K.V 475

베토벤/소나타 작품 53 '발트슈타인'  
쇼팽/소나타 내림나단조 작품 35



### 소프라노 이정미 독창회

5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정미(010-2277-7771)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국립 Umbra 아카데미, Siena 국립 Chigian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국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는 소프라노 이정미 독창회.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세레나데

푸치니/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갠 날'  
 이수인/내마음의 강물 등 수곡

### 동래문화회관 토요일해피콘서트

5월 12일(토), 26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 12일 클래식 기타 작은음악회

부산이 낳은 최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과 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함께 마련하는 무대.

### 26일 내 친구 오카리나의 비밀

오카리나와 로우휘슬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옥준의 해설과 연주로 진행되는 해설이 있는 악기여행.

### 어버이날 기념

#### 김영임의 소리 40주년 효 대공연

5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8만 8천원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문 의 | KBS비즈니스(620-3510)

2012 소리인생 4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영임의 소리 효 대공연.

대표곡인 '회심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민요와 감동적인 드라마, 신명나는 굿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5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12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보허자(창사), 승전무 중 '북춤', 가야금병창, 거문고 중주 '고구려의 여운, 창작산조춤 '화조풍월', 동부민요 '상주함창, 강원도아리랑, 물레방아타령', 풍장놀이

### 19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

무산향, 산조합주, 가곡 '편수대엽', 부채춤, 관현악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관현악 '춘무', 설장구춤, 판굿

### 26일 J.O.K(Jazz On Korean traditional music)

재즈와 국악을 기본으로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실험적 만남을 가져온 J.O.K가 메나리, 권마성, 개구리타령, 옹헤야, 시리령 실근 등을 들려준다.

###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연주회

5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오보에 4중주  
 글린카/대 피아노 6중주 등

- 바이올린/이은옥, 김은정, 강선혜, 하은영, 김지윤
- 비올라/손주연, 이성호(게스트)
- 첼로/서성은, 김기량 · 더블베이스/박희철(게스트)
- 오보에/김선희(게스트) · 피아노/김미현

### 전유성의 토크 콘서트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개그맨 전유성과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토크 콘서트.

### 제3회 S string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윤지현(010-7662-2315)

### ●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

##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b>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b>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S 스트링오케스트라 세 번째 무대.

### 프로그램

홀스트/St. Paul's Suite

비발디/사계 중 '봄'

· 지휘/이라희 · 악장/윤지현

### 정주연 플루트 독주회

5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미국 듀케인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정주연의 독주회.

### 프로그램

바흐/플루트 소나타

포레/환상곡 등

· 피아노/김승환

### E. M. B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

5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은(010-8549-8265)



유럽에서 학업 및 다년간 연주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부산 출신의 바이올리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이재성, 피아니스트 정순화로 구성된 E. M. B(European Musician Busan) 피아노 트리오는 지난 2006년 창단연주회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드보르작, 말러의 곡을 들려준다.

###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상설공연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토요 스쿨데이 콘서트'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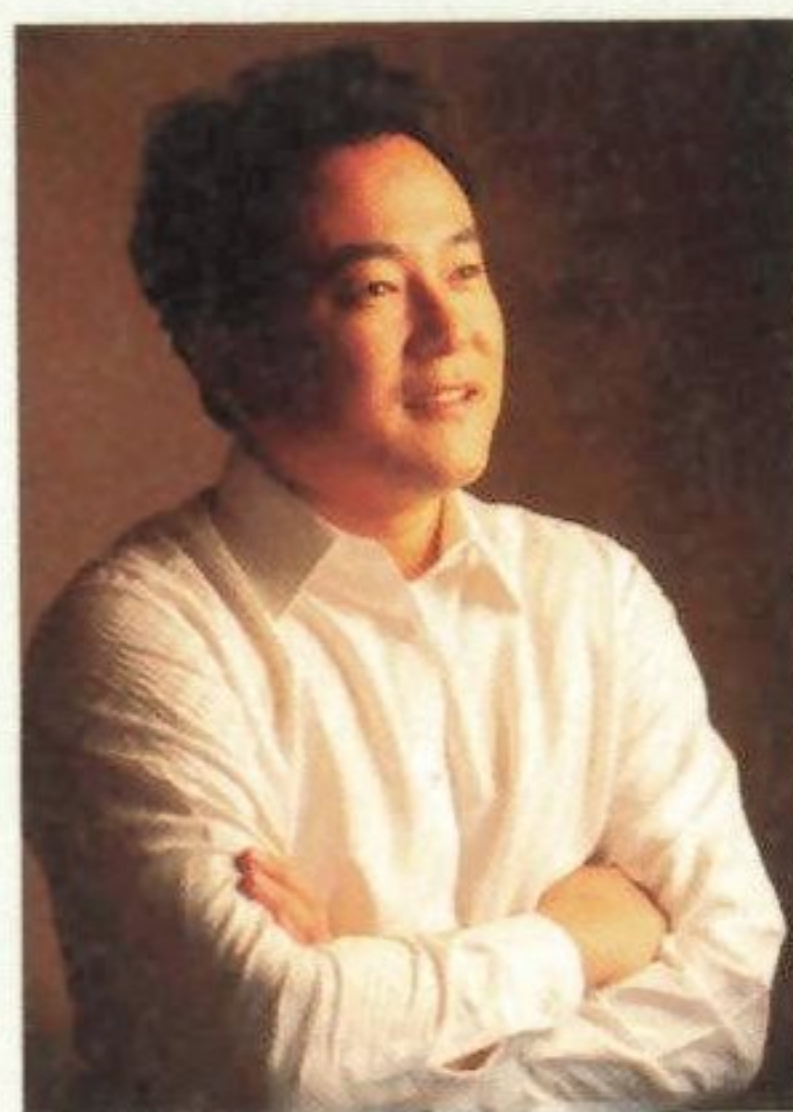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피아니스트 안종모, 임보라의 협연으로 비발디 '사계' 중 '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 테너 전병호 독창회 '눈부신 오월의 노래'

5월 19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BCM(010-5589-3902)



부드러운 감성과 세련된 음악이 돋보이는 테너 전병호 독창회.

전병호는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 에센 폴크방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프로그램

슈만/시인의 사랑

토스티/입맞춤

김효근/내 영혼 바람되어 등 수곡

· 피아노/이수연

### 청소년 렉처콘서트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렉처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세 번째 무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오용철/Face to Face for Orchestra(2012)

베토벤/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 연주/T.I.F 오케스트라

###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조영미 바이올린 독주회

5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입장료 | 균일 1만원(후원참석비, 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뛰어난 음악성과 풍부한 감수성, 독창적인 개성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영미 독주회.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영미는 남매인 피아니스트 조영방, 첼리스트 조영창과 함께 '조트리오'

멤버로 활동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V 304 마단조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사라사테/피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등

· 피아노/김금봉(연세대학교 교수)

### 제2회 메이플루트 페스티벌

#### 나는 플루티스트다

5월 20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프레멘토(017-554-7777)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5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련하는 플루트 페스티벌.

25명의 플루티스트들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찬조출연/이주연(피아노), 하지혜, 이주연(플루트), 롯데합창단



### 부산신포니에타 유망주 협연의 밤

5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영희(010-8519-0448)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신포니에타가 매년 청소년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협연의 밤.

- 출연/김지후(피아노, 부산예고 1년), 김나리(피아노, 부산예고 1년), 황주은(피아노, 부산예고 1년), 김미니(바이올린, 부산예고 1년), 전민규(바이올린, 부산예고 3년), 김빛날윤미(바이올린, 부산대 1년), 김보람(비올라, 부산대 2년)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5회 국악정기연주회

5월 22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과(514-1232)

우리가락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국악전공 재학생이 마련하는 국악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정악합주 '취타', 원장현류 대금산조, 현악합주 '천년만세', 만선(황의종 곡), 길(이준호 곡)
- 지휘/백규진      · 해설/최희연

###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52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5월 27일 일요일 오후 2: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제78회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5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6천원  
문 의 | 김영희(010-8519-0448)



지휘 김성진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 잡은 부산신포니에타의 78 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합창 부지휘자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

진이 지휘하고 부산대학교 김정권 교수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 김정권/죽음의 자리에서
-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0번 라단조 K.466
- 모차르트/교향곡 제 41번 '쥬피터'

###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부산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로 구성된 국악실내악단 '가이야'가 전통과 현대를 국악으로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 프로그램

- 경기대풍류, 남요민요연곡, Sunrise, Happy song, Wind Sketch, ABBA 메들리, 김광석 Best 등

### 제11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프리모 아트 매니저먼트 (010-9334-6105)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실력을 인정받았던 테너 이철성 독창회.

#### 프로그램

- 로시니/사랑은 나를 어디로 이끄나
- 팔코니에리/귀여운 눈동자
- 레그렌치/오만한 마음
- 슈베르트/세레나데 등 수곡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 캠벨스빌 재즈앙상블 초청공연 삼바와 재즈의 만남

6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데니스 산토스(플루트, 색소폰), 체드 플로이드(드럼), 사울로 디알메이다(첼로, 더블베이스) 등 미국 캠벨스빌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재즈트리오 캠벨스빌 재즈앙상블 무대. 정통 보사노바와 삼바의 정열, 소울풀한 재즈가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Play

###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월 14일(화)-5월 30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 연극 '바쁘다 바빠'

2월 14일(화)-6월 22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개성만점 가족의 일상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연극 '바쁘다 바빠'.

### 연극 '잇츠유'

4월 10일(화)-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특종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두 남녀의 서로 다른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츠유'.

### 부두연극단 앵콜 레파토리 BEST3

#### 19 AND 80

4월 10일(화)-5월 10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대학생 1만 5천원

중고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액터스소극장(611-6616, 010-4122-6900)

우울증을 앓고있는 19세 소년이 우연히 80세 할머니를 만나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운다는 연극.

###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4월 13일(금)-6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초콜릿 팩토리(621-4005)

순수한 직장남 연주와 까칠 여고생 수영, 열혈고딩 강숙과 까칠한 도시여자 하경이 펼쳐는 유쾌한 로맨스가 따뜻한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4월 20일(금)-5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9: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같은 회사 여직원 장미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총각 진성, 그 앞에 나타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 진희, 과연 진성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창작 로맨틱 뮤지컬.

### 2012 죽여주는 이야기

4월 20일(금)-7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9:00, 일요일 오후 3:00, 6:00(6/6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금요일 낮공연 1만 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지는 폭소코미디극.

###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5월 1일(화)-6월 3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가마골소극장 26주년 기념공연**

**서툰사람들**

5월 3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집주인과 도둑으로 만난 어설프고도 서툰 주인공들의 하룻밤 유쾌한 소동을 그린 가마골소극장의 대표 흥행 레퍼토리 '서툰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강국희, 박정무, 김철영, 조석준, 이창섭

**신나는 매직쇼**

5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마술과 판토마임을 접목시킨 코믹 매직쇼에서부터 테마가 있는 사랑의 매직쇼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마술사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마술의 향연.

· 출연/박미선, 신용운, 박준영, 박종원, 안효희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다(You are special)'**

5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실수투성이 주인공 펀치넬로가 목수인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창작뮤지컬.

· 작, 연출/문경수

· 출연/조영환, 이재호, 김유미, 정재현, 이두희 외

**어린이날 특별공연 뮤지컬 '어린이 캣츠'**

5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출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맞춤형 뮤지컬 '어린이 캣츠'.

개성만점 고양이들이 펼치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마술, 버블쇼, 비보잉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재미를 더해준다.

**액션드로잉 'HERO' 부산공연**

5월 5일 토요일 오후 1:30, 4:00, 7:00,

6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다양한 미술기법에 놀라운 특수영상 기법을 결합시킨 미술같은 미술 판타지극 '액션드로잉 히어로'. 화려한 춤과 위트가 어우러진 액션패인팅, 살아움직이는 그림 스피드 드로잉, 물위에서 화려하게 그려지는 마블링 등 색다른 미술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한국 연희단거리패 '자장가'**

5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을 선보이는 2012 부산국제연극제. 올해 컨셉인 'Hello, Asia!'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



보이는 BIPAF Concept 참가작으로, 병풍 속 동물들의 그림자놀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색채와 이미지,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 원작/강석헌  
· 개작/이윤택

· 연출/남미정

· 출연/김미숙, 박혜린, 김태옥, 민혜림, 강호석, 김연지, 송경록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Open 한국 공간아트컴퍼니 '짱통'**

5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전화예매시 30%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BIPAF Concept 이외의 세계 우수 작품들을 선보이는 BIPAF Open 참가작으로, 정해진 세상의 틀에 반기를 들고 경쟁과 성공에 집착하는 오늘날 사회제도와 삶의 방식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해학 마임극이다.

· 작/전상배

· 연출/하현관

· 출연/성유미, 김미승, 이영봉, 장일국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5월 6일 일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일본 쓰시마시 시민극단인 '이사리비(漁火)'의 한국 최초 공연으로, 조선통신사를 통해 쓰시마를 이야기하는 뮤지컬 '쓰시마 이야기'.

· 우정출연/쓰시마시합창단 · 무용단 · 북연주단, 배김새무용단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Open 벨기에 플라스 극장&한국 아시아나우 프로덕션 공동제작 '병사이야기'**

5월 8일-9일 화-수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찰스 페르디난드 라위즈의 극본과 20세기 천재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만난 창작극. 세상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나약한 병사의 이야기가 연극과 음악극, 인형극이 어우러지는 총체극으로 선보인다.  
 · 연출/장-미셸 도프 · 연주/퀴츠양상블(지휘/장 토렐)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대만 M.O.V.E Theatre '1:0'**

5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9일 수요일 오후 4:00,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보디랭귀지와 이미지, 음악이 어우러져 인간 현실의 내부에 존재하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작품.  
 · 연출/Hong-Zheng Fu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꿈동이인형극단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5월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2: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2013년 프랑스 아비농OFF축제에 참가할 작품 선정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참가작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형제의 우애와 효를 이야기하는 강원도 고성군의 전설을 새롭게 창작, 인형과 배우들의 연기가 한국화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그림자 인형극이다.  
 · 연출/신영우  
 · 출연/신영우, 신정아, 김규리, 장금희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거미 '연옥 : 이탈한 자가 문득'**

5월 9일 수요일 오후 5:00  
 10일 일요일 오후 8: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의 '연옥'을 각색한 작품으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부조리에 맞서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연출/김제민 · 출연/김상복, 윤태웅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자갈치 '긱거리 트로트'**

5월 9일 수요일 오후 8:00  
 10일 목요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부산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용두산공원과 영도다리, 40계단, 연안부두 등을 돌며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노인인 그 뒤를 쫓는 가족들을 통해 과거로의 추억여행을 떠나는 창작마당극으로 한국대중가요사를 장식하는 주옥같은 명곡들이 추억여행에 함께한다.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Factory 1+1+1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5월 9일 수요일 오후 2:00  
 10일 목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잘'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풀어내면서 관객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끄집어내는 즉흥극.  
 · 출연/손영민, 김기훈, 오동욱, 홍민진, 이지은, 장순철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누리에 '조용한 어항'**

5월 9일 수요일 오후 8:00  
 10일 목요일 오후 5:00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가족의 균열과 끊임없이 아파하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고독한 얼굴을 그려낸 창작극 '조용한 어항'  
 · 작/김경미  
 · 연출/강성우  
 · 출연/최현경, 이창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부산**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6만원 · R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쇼비보이(1899-3727)

첫눈에 비보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발레리나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비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화려한 브레이크댄스와 함께 펼쳐지는 난버벌 퍼포먼스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7년 영국 에딘버러 프렌지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극본, 연출, 예술총감독/최윤엽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5월 11일 **금요일** 오전 11:00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MBC롯데아트홀(1688-8998)



꿈을 찾아 떠나는 호기심 많은 당나귀 동키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모험이야기 '브레멘 음악대'.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Open 한국 극단 맥 '개똥할매'**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동해안 별신굿과 동래야류 등 우리의 전통연희와 민속춤, 판소리, 민요 등을 담은 창작연희극으로, 한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가족제도의 해체와 박제화된 효사상을 꼬집는다.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일본 청년단 'Suddenly Married'**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일본을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히라타 오리자가 현대 부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낸 부조리극. 일본 4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지역 연극인들과 시민, 청년단 배우들의 생생한 사투리가 극 속에 녹아있다.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아트컴퍼니 행복자 '행복한 리어커'**

5월 11일 **금요일** 오후 2:00,  
 12일 **토요일** 오후 8: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행복 실은 할매의 리어커를 타고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흠인형들의 이야기, 가족을 위한 창작마당극.

· 작, 연출/홍경숙  
 · 출연/김혜강, 김홍부, 신영주, 장유진, 박현석, 송은주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하땅세 '천하제일 남가이'**

5월 11일 **금요일** 오후 5:00,  
 12일 **토요일** 오후 2: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소설가 성석제의 짧은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천덕꾸러기로 태어났지만 천하제일의 외모를 갖게된 난봉꾼 남가이의 특별한 반 평생을 그린 풍자극.

· 작/성석제 · 연출/윤시중  
 · 출연/박성연, 최희운, 임세운, 조병욱, 이길준, 임세환, 염용균, 유성주, 박세기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연극놀이터, 씬 '엄마, 안녕'**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전태일 열사의 그 마지막 하루를 당시의 사진과 음악, 영상을 곁들여 제작한 창작극.

전태일 열사 39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했던 대만 연출가 왕목림이 연출을 맡고 부산의 배우 백대현과 홍승이가 열연을 펼친다.

· 구술/이소선 · 채록/오도엽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ETS 'FACE'**

5월 11일 **금요일** 오후 5:00  
 12일 **토요일** 오후 2:00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과거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그린 모노드라마.

· 작, 연출, 연기/김혜리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극단 그림연극 '환청'**

5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용천지탈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환청'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내면과 일상을 들여다보고 꿈을 짓밟힌 채 단절된 삶을 살고있는 현대인들의 내밀한 상처와 아픔을 시각적으로 그린 극단 그림연극의 창작극 '환청'.



**가마골소극장 26주년 기념공연 2  
주머니 속의 연기**

5월 16일(수)-5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생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죽음 앞에서 송고해지는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귀함을 주제로, 다양한 음악과 움직임, 인형과 배우, 영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가 펼쳐진다.  
· 작/호키토모 게이코  
· 번역/심지연

· 연출/이윤주  
· 출연/김하영, 배보람, 이창섭, 조석준, 황인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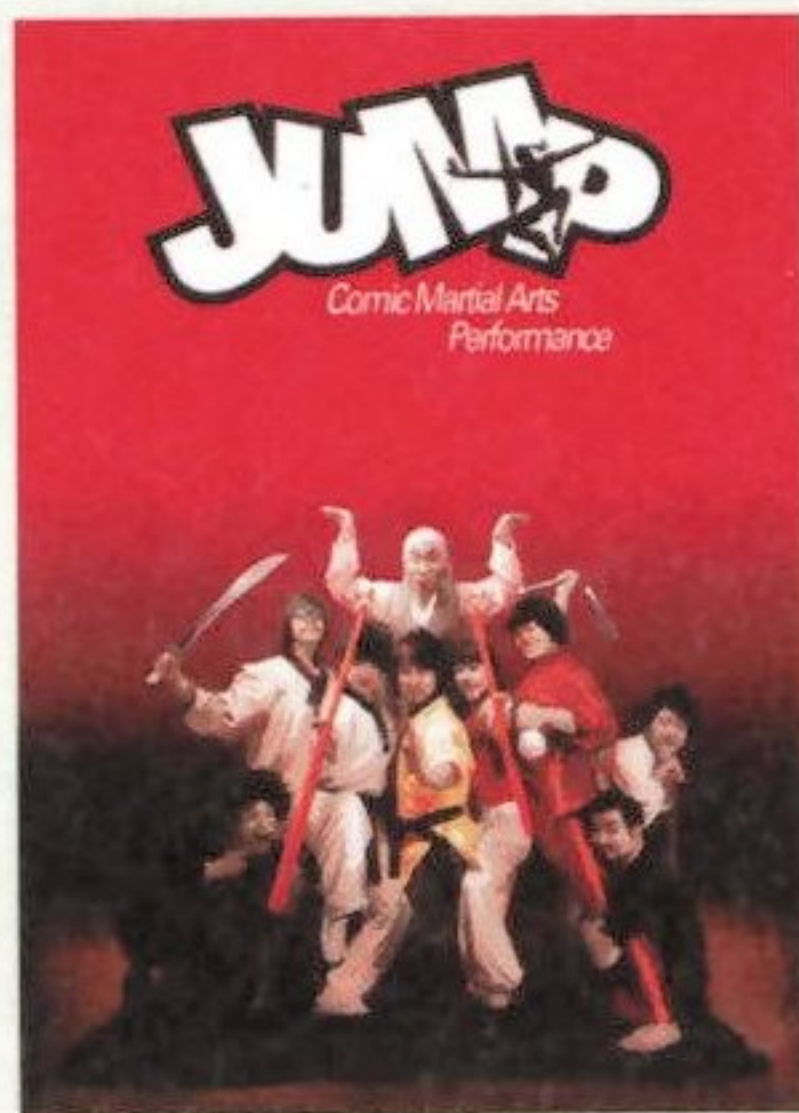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공간아트컴퍼니 '짜퐁'**

5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5월 17일까지 조기 예매시 50%,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 공간소극장과 대구극단 한울림, 전주극단 명태, 구미 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춘천극단 도모 등 다섯 곳의 지역극단이 지역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마임극 형식의 '짜퐁'은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심리 묘사로 감정과 상황 표현을 극대화했다.  
· 작/전상배 · 연출/하현관  
· 출연/하종오, 성유미, 박정아, 유성곤, 이영봉 외

**2012 점프(JUMP)**

5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6만원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견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연출/이준상

**을숙도 연극열전 '개짓는 날'**

5월 23일 -25일 수-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청소년 1만5천원  
문의 | 극단 누리예(621-3573)

2011 전국창작희곡 공모 은상 수상작이자 2012 부산연극제 연출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개짓는 날'. 개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다.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부산**

5월 23일(수)-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5월 22일까지 조기예매시 40% 할인)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사건 위주의 이야기 중심이 아닌 배우들의 즉흥 연기술과 음악, 영상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연극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풍경극.  
· 작, 연출/양지웅  
· 출연/김륜호, 최태익, 김미미, 이유경, 정원혁, 하치성, 강동석 외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극단 한울림 '호야내 새끼'**

5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6: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5월 17일까지 조기 예매시 50%,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지적장애를 가진 호야와 그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조금은 특별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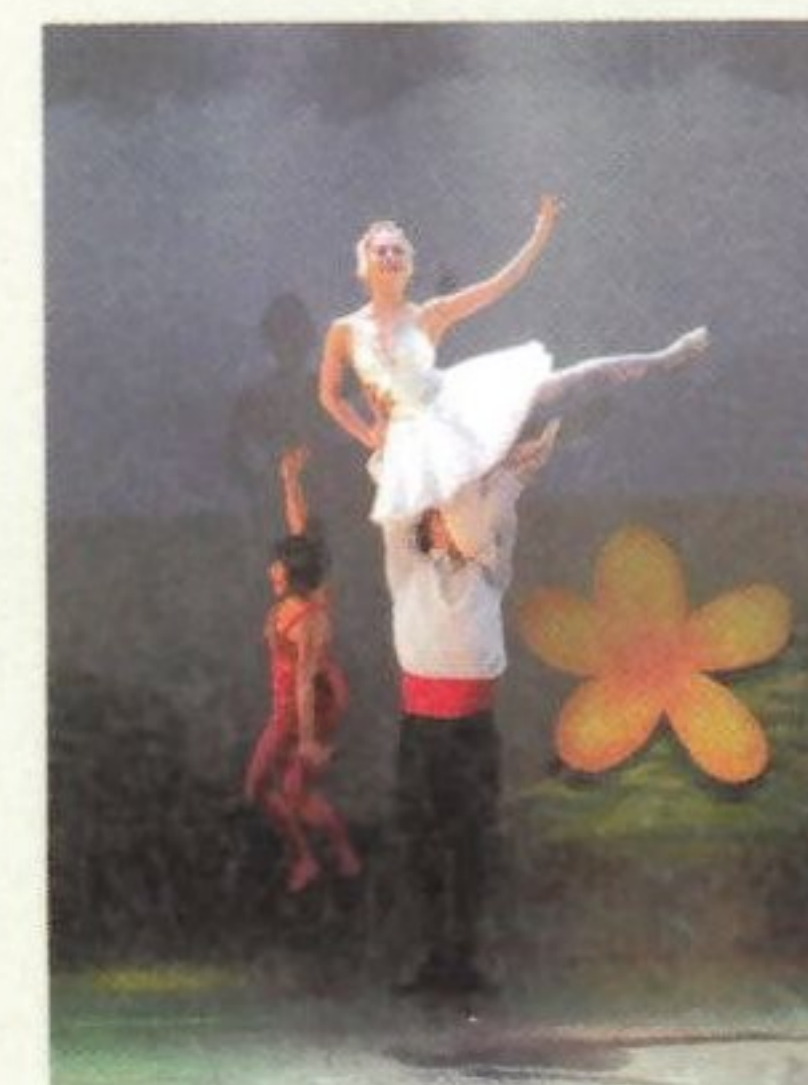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농OFF  
한국 임프로드바닥 '口'**

5월 9일 수요일 오후 5:00  
10일 목요일 오후 2:00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잃어버린 감성을 찾는 한 남자의 행위를 다양한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 창작신체극.  
· 안무/주정민

**2012 숲속발레 '아기다람쥐 토미'**

5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지정석 3만원 · 자유석 2만원  
문의 | 김옥련발레단(626-9486)



사람들의 개발에 의해 보금자리인 숲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아기다람쥐 토미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2012 숲속발레 '아기다람쥐 토미'.  
· 안무/김옥련

· 출연/안유리, 최연순, 박영진, 절면봇, 박병철 외



## 제9회 2012 부산국제연극제 Go, 아비뇽OFF 한국 댄스씨어터 창 'Brother'

5월 11일 금요일 오후 2:00,  
12일 토요일 오후 8:00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동반 1인까지 20% 할인)  
문의 | (사)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714-6920)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프랑스 국립현대무용단과 벨기에 세드라베무용단에서 활동했던 안무가 김남진이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장애인 가족의 아픔과 고통, 사랑을 절박한 몸짓으로 그려낸 춤극.

· 안무/김남진 · 출연/김남진, 강성국

## Movie

### 제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5월 10일(목)-14일(월) 영화의전당  
시청자미디어센터,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  
입장료 | 개막식 5천원 · 폐막식 무료  
일반상영작, 초청작 3천원  
문의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742-9600)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로 출범한 국내 최초의 단편영화제이자 올해로 29회에 이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2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Event

### 제2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월 2일(월)-6월 9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실, 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외  
문의 | 한국총예술인연합회 부산지회  
(631-1377, www.artpusan.or.kr)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경연이 펼쳐지는 제 2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부산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무용공연,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학생 그림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 2012 조선통신사 축제

5월 4일(금)-6일(일)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원  
문의 | 부산문화재단(631-0858)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부산에서 펼쳐지는 한, 일 문화교류축전.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통신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을 재현한 해신제를 비롯해 대규모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가톨릭센터 개관 30주년 기념 시민강좌 I 정봉채 사진강좌 '빛나는 사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가톨릭센터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가톨릭센터(462-1870)

### 제6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5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초대시인/김병래, 이원도, 이봉도, 정미선

· 찬조출연/포크싱어 김대한

## Gallery

### '사진, 시선의 현대성'

-김희정, 데이비 한, 배찬효

3월 24일(금)-6월 10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33)

### 김성연 개인전 '어느 날 문득'

4월 6일(금)-5월 21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080-855-0007)

### 홍상식, 노동식 2인전 '22세기'

4월 14일(토)-5월 13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변화의 시대, 불멸의 화가

4월 18일(수)-5월 10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 아트뱅크코레아, 순간을 기억하다

#### 김문준의 시선

5월 1일(화)-5월 13일(일) 광안리 바다갤러리  
5월 15일(화)-5월 21일(월) 태종대 See&Sea갤러리  
문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클래식 공연기획자 김문준이 그동안 작업한 공연 포스터와 사진을 전시하는 '김문준의 시선'展

### 김성수 개인전 'Duplicata'

5월 3일(목)-6월 10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 희망을 입자! ArT-shirts

5월 4일(금)-5월 24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 BS부산은행 갤러리 젊은작가 발굴전 트라이앵글

5월 10일(목)-5월 30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가톨릭센터 개관 30주년 기념

#### 대청갤러리 초대전

#### 정봉채 사진전 '淨化 Purification'

5월 11일(금)-5월 27일(일)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 가톨릭센터(462-1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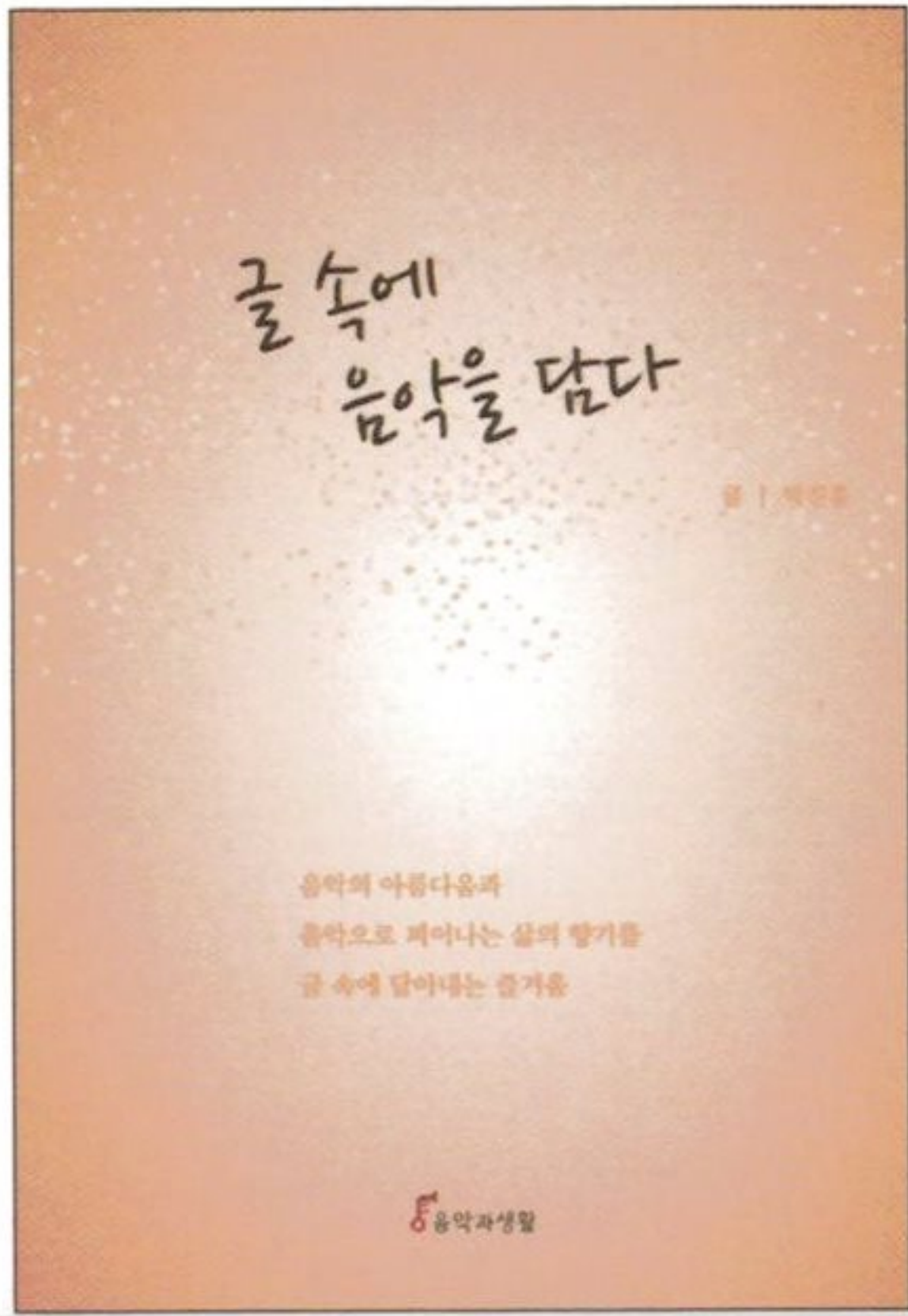


정봉채 作

### 허위영展

5월 14일(월)-6월 2일(토)  
갤러리 움(매주 일요일 휴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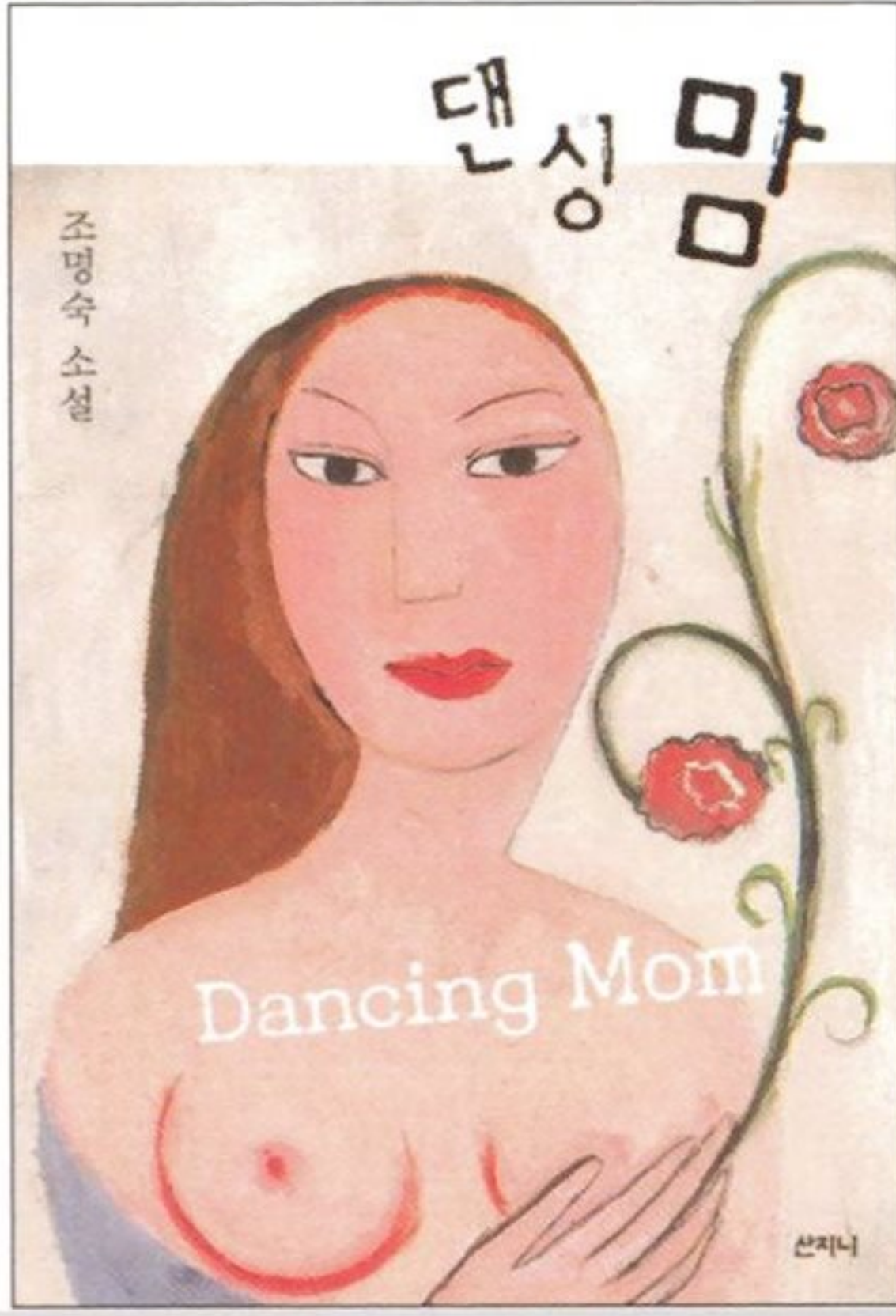


### 글 속에 음악을 담다

박진홍 지음 / 음악과생활 / 288p / 1만3천원

‘음악은 지친 나를 잠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는 신의 속삭임이다. 여기 저기 신들의 속삭임이 있으나 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나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다.’ 어려운 전문용어 하나 없지만, 음악의 본질과 기능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며 공감하게 하는 문장이다. <예술에의 초대>에 음악칼럼을 연재중인 박진홍 씨가 음악에 관련된 에세이, 평론 등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동래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음악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저자는 ‘MBC목요음악회’ 등의 음악회에서 해설을 맡고, 여러 매체에 음악 리뷰를 게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음악과 함께 하며 즐겼던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저자는 평소에 생각이 날 때마다 써두었던 에세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던 짧은 글, 지면에 발표했던 음악회 리뷰와 음악

평론들을 모았다. 그래서 책은 딱딱한 음악이론이 아니라, 음악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친구와 함께 음악회에 와서 친절한 설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조근조근 속삭이듯이 전해주는 음악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느새 마음속까지 음악에 천천히 젖어가는 느낌이 든다.



### 댄싱 맘

조명숙 지음 / 산지니/ 254p/ 1만2천원

조명숙 소설가가 ‘소설로 그림 읽기’라는 독특한 시도를 보여주는 소설집을 발표했다. 그림에서 얻은 영감을 소설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설집 속의 작품 7편은 7개의 그림에서 태어났다. <어깨의 발견>(파울라 모더존 베커의 ‘자작나무 숲에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소녀’), <거꾸로 가는 버스>(프리다 칼로의 ‘버스’), <댄싱 맘>(김원숙의 ‘Dance On a Bridge’), <바람꽃>(추지영의 ‘바람꽃’), <나쁜 취미>(가브리엘레 윈터의 ‘Black Mask with Rose’) <까마득>(노은님의 ‘새’), <비비>(황주리의 ‘추억제’). 각 소설과 그 소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작가에게 영감을 준 그림의 제목들이다. 아쉽지만, 관련 그림은 소설집에 들어있지 않다. 조 소설가는 “나무의 나이에가 나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단편소설은 ‘짧은 소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주인공들의 단편적 이야기를 통해 그 주인공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르입니다. 그림도 작품 한 점에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점에서 단편소설과 닮은 면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실패하고 깨진 사람들, ‘루저’ 들을 껴안아 그들의 아픔을 형상화했다.



### 미술품 위조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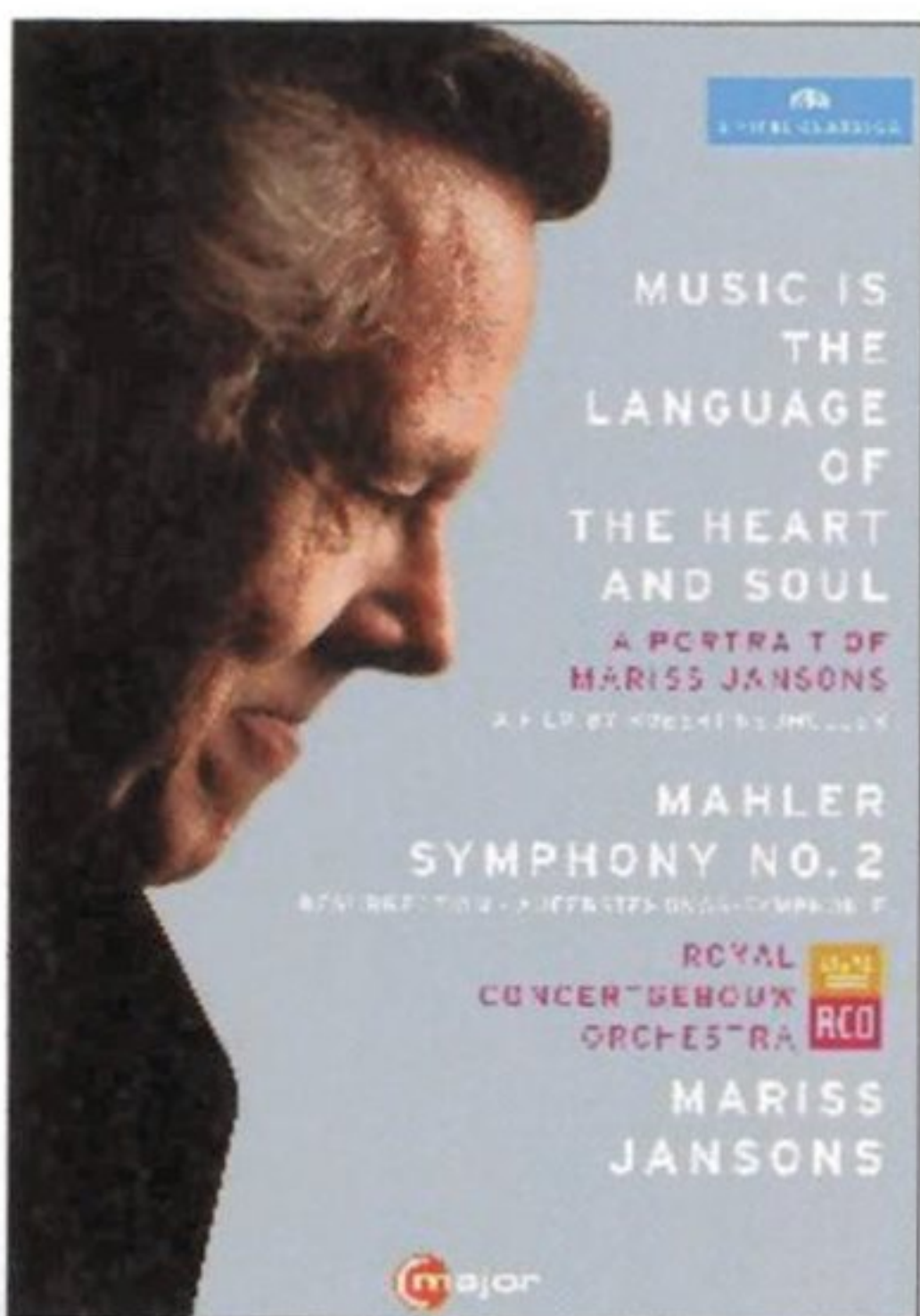
(20세기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범죄 논픽션)

래니 샬리스베리 · 엘리 수조 지음, 이근애 옮김 / 소담출판사 / 416p / 1만5천원

현대미술사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정교한 사기극을 다룬 책.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그 어떤 범죄 스릴러 못지않은 긴장감과 놀라움을 안겨준다. 1990년대 초,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 또는 투기꾼들이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새로이 각광받기 시작한 대상이 바로 미술품이었다. 매매 차익에 의한 수익 뿐만 아니라 ‘문화인’ 또는 ‘교양인’이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미술품 수집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품은 투자 상품으로, 예술가는 상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며 돈 되는 인맥을 구축해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변질되어가고, 그런 와중에도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은 자금난에 허덕였다. 이런 시기에 존 드류라는 매력적인 신사가 영국 미술계에 등장한다. 부자이면서 학식 있는 존 드류가 현대 화가의 작품을 기증하고 기부금까지 내놓겠다고 하자, 기부금에 목말랐던 미술계 인사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존 드류의 사기극을 통해 작가는 미술계의 실태뿐만 아니라 사기꾼과 공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적 해석 또한 섬세히 밝혀나간다. 예술품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할 문제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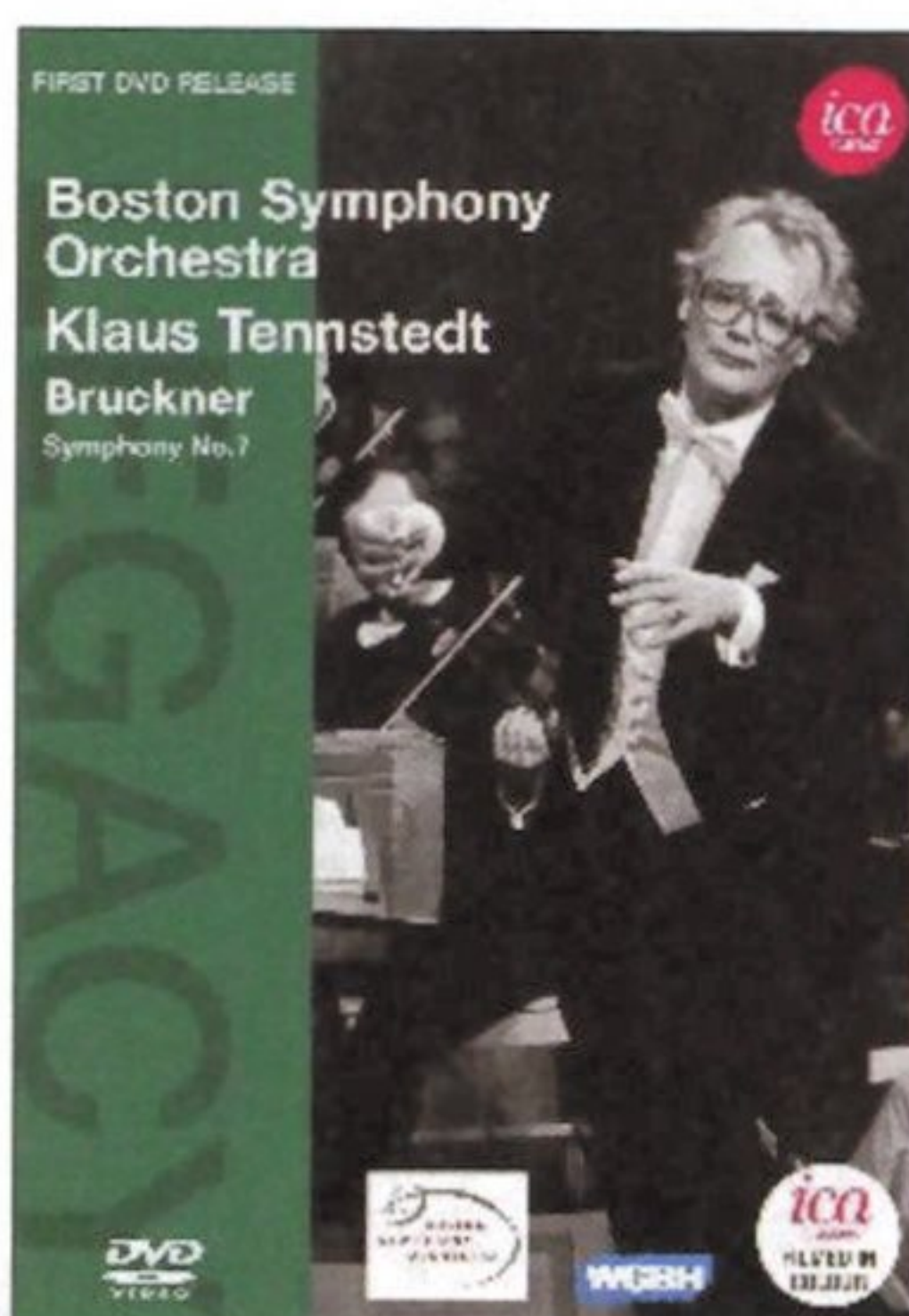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_ 한글자막**

마리스 안손스(지휘)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안손스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말러의 교향곡 2번 실황

마리스 안손스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중 한 사람이다. 베를린 필, 빈 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 오케스트라인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독일의 최정상급 악단인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을 함께 거느리고 있는 그는 출중한 음악적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따뜻한 인품을 통해서도 주위 사람들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본 영상물은 두 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었다. 안손스의 성장과정과 현재의 활약상을 흥미롭게 다룬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인 '음악은 마음과 영혼의 언어(Music is the Language of the Heart & Souls)'와 그가 2009년 12월 3일 콘체르트헤보우를 거느리고 연주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전곡의 콘서트실황이 함께 수록되었다. 수입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전체에 한글자막이 삽입되어 있으며, 말러 교향곡 2번의 4, 5악장에도 텍스트의 한글자막이 덧붙여있다. 본 영상물은 안손스의 팬들이나 말러리안들 양쪽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말러 교향곡 2번 영상은 RCO발매의 동곡 CD에 보너스로 제공되었던 DVD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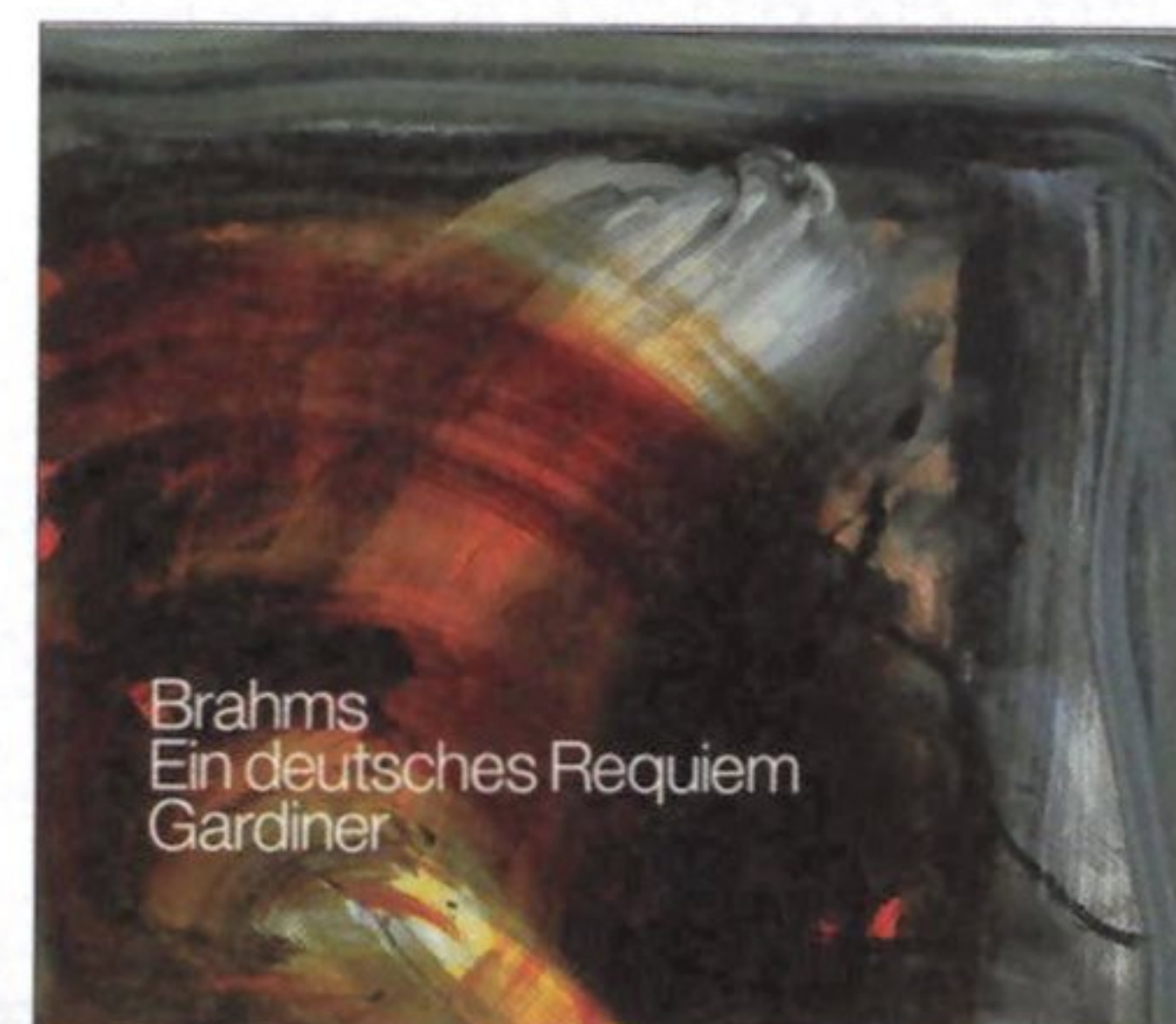


**브루크너 교향곡 7번**

클라우스 텐슈테트(지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병마가 닥치기 이전의 건강한 텐슈테트의 모습을 담은 값진 영상물

많은 말러리안들을 열광케 만들었던 말러 교향곡 5번(1988년 실황) DVD에 이어서 ICA가 또 하나의 소중한 텐슈테트의 영상을 발굴하였다. 1977년 11월의 콘서트 실황으로 텐슈테트가 말러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작곡가인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을 수록하였다. 이번 DVD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매된 텐슈테트의 영상물들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로, 병마의 고통이 닥치기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포디움 위를 호령하는 거장의 당연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1971년 동독을 탈출한 텐슈테트는 1974년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하면서 미국 데뷔 무대를 가졌다. 호평을 받았던 데뷔 콘서트 이후 상당기간 동안 보스턴 심포니와 텐슈테트는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보스턴의 음악애호가들을 흥분시켰었는데, 보스턴의 지역 방송인 WGBH를 통해 TV로 중계되었던 본 콘서트 역시 그 중 하나였다. 현재 상용반으로 발매된 그의 유일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인 런던 필과의 1984년 실황과 비교했을 때, 한결 확장된 스케일과 당당한 박력을 느낄 수 있다.



**브람스 '독일 레퀴엠'**

캐서린 퍼지(소프라노)/ 매튜 브룩스(바리톤)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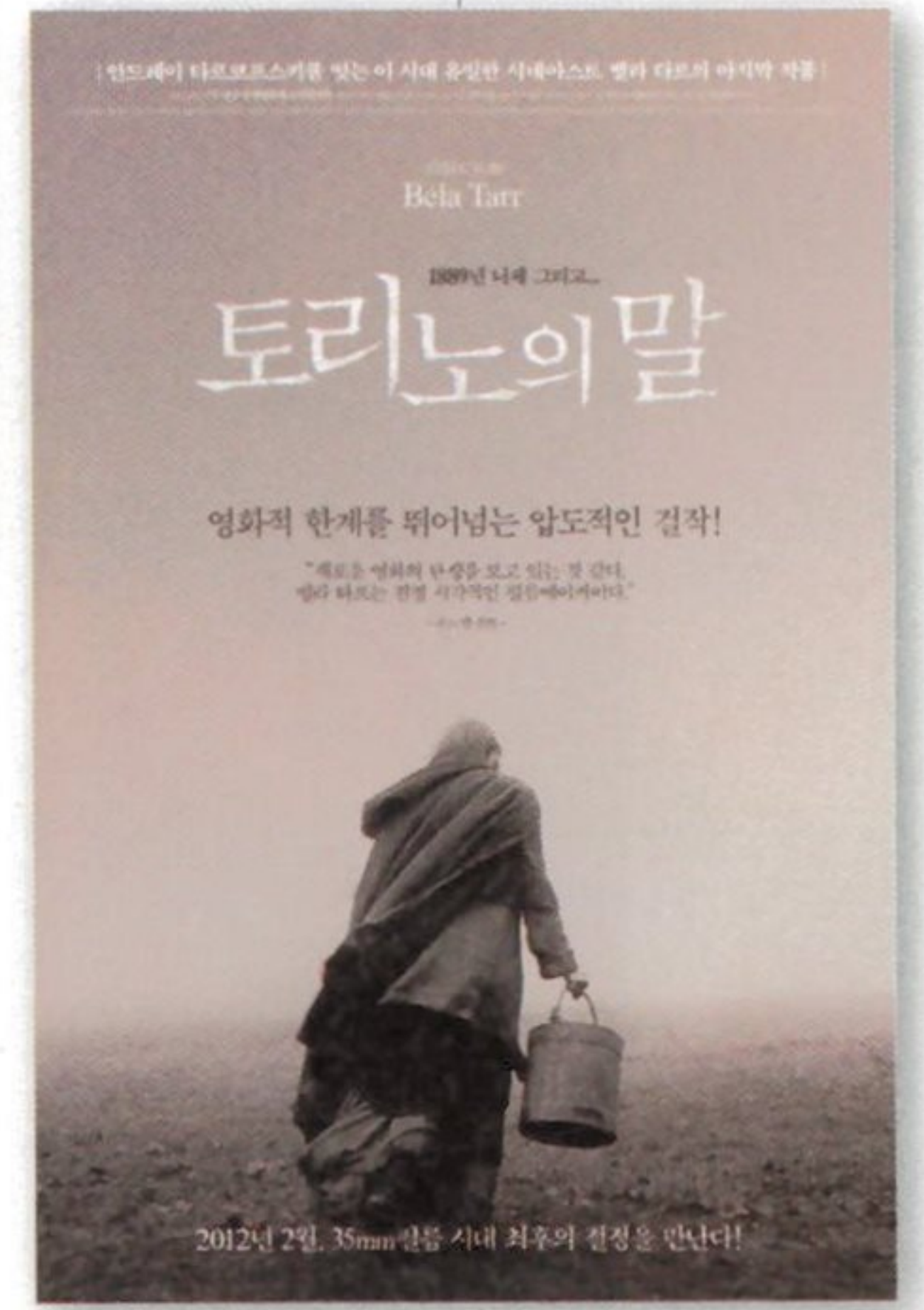
가디너와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는 이미 1990년에 걸출한 독일 레퀴엠 레코딩을 남긴 바 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의 두 번째 독일 레퀴엠 레코딩이 등장하였다. 2008년 에딘 버러의 어서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이 음반은 합창음악에 대한 지휘자 가디너의 출중한 노하우가 응집된 연주를 담고 있다. 같은 작곡가의 교향곡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보에도 메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다른 합창음악을 함께 수록하였다. 브람스의 대선배격 작곡가인 하인리히 쉬츠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 운지요'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그것으로 이 두 작품의 텍스트는 바로 독일 레퀴엠의 4악장과 6악장의 그것과 동일하다.

250년의 시간차이를 지닌 독일의 위대한 두 작곡가가 동일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음악적으로 표현해내었는지 비교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음반이다.





# SPECIAL MOVIE



## 어머니

감독 태준식/다큐멘터리/상영시간 101분/12세 관람가  
영화의전당 '시네마프리즘1-다큐, 진실의 영화들'  
(4월 27일~5월 16일)

1970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불꽃처럼 타올랐다 스러진 전태일 열사,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곧게 한평생을 살아낸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담은 영화다. 노동운동 전문 다큐멘터리리스트로 일컬어지는 태준식 감독은 전태일의 어머니이자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였던 故 이소선 여사의 마지막 2년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가장 낮고 사려 깊은 카메라로 밀착해서 기록했다. 그의 카메라는 누구나 아는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을 그리지 않기로 작정한듯 그저 찌글찌글 주름진 어느 작은 할머니의 일상을 다소곳이 바라보고 바라본다. 그 친밀한 일상의 결 속에서 투사의 모습이 아닌 인간 이소선의 온기와 향기를 오롯이 채취해냈다. 또한 그 속에서 이소선만의 향기로운 지혜와 단호한 삶의 원칙을 발견하고, 그녀가 아들 전태일과의 약속을 40여 년간 어떻게 품고 지키며 살아왔는지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화화된 노동자의 어머니가 아닌 겸손과 낙천, 사랑으로 향기로운 인간 이소선의 실체를 목도하게 된다.

## 달팽이의 별

감독 이승준/다큐멘터리/상영시간 85분/전체관람가  
영화의전당 '시네마프리즘1-다큐, 진실의 영화들'  
(4월 27일~5월 16일)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마치 달팽이처럼 오직 촉각에만 의지해 아주 느린 삶을 사는 영찬 씨. 영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순호 씨는 척추장애로 조금 작은 몸집을 가졌지만 영찬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가장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 잠시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이 연인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주에서 가장 빛난다. 시청각 장애를 가진 영찬 씨와 척추장애를 지닌 순호 씨 부부의 일상을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은 어느 극영화 못지 않은 웃음과 감동으로 영화적 재미를 담보한다. 한국인 최초로 제24회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 장편 부문 대상, 브라질 잇츠올트루(It's All True)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중장편 국제경쟁부문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다큐멘터리의 위상을 높인 데 이어 단체관람이 급증하면서 흥행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 토리노의 말

(20세기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범죄 논픽션)

감독 벨라 타르/드라마/상영시간 146분/15세 관람가  
부산국도예술관 5월 상영작

헝가리의 거장 벨라 타르의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줄 걸작 '토리노의 말'이 찾아온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에서 있었던 일. 가혹한 채찍질에도 말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부는 분노하여 더욱 거세게 채찍질했다. 마부를 말리던 니체는 흐느껴 울다 쓰러져 집으로 옮겨진 뒤 입을 떼다. "어머니, 전 바보였어요." 이후 그가 10년간 누워 있다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영화는 질문한다. 그때 그 말과 마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토리노의 말>은 마부(에리카 보크)와 말, 마부의 딸(야노스 데르지)이 보낸 6일간의 후일담이자 그저 서서히 멈추고 침묵으로 감싸였다가 끝내 사라지고 마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해 베를린영화제에서 큰 기대와 화제 속에 공개되어 은곰상 및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던 '토리노의 말'은 지난해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어 역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토리노의 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독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영화라고 선언한 작품이다. 본격적인 정식 개봉으로 국내 관객과 조우하게 된 작품이 벨라 타르의 은퇴작인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지만 그의 마지막 작품이나마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엄청난 행운이기도 하다.





# News



## 직장인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계원들의 특별한 공연장 나들이

4월 5일 막이 올라 성공적인 부산공연을 진행 중인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이 많은 화제를 모으며 직장인들에게 공연 감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은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조직관리계 직원들도 '미스 사이공'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이번 공연 관람은 2월, 우연한 기회에 공연장을 찾은 조직관리계 윤포영 담당이 새로운 회식문화 정착을 위해 계원들에게 '공연 관람'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조직관리계의 정기행사. 조직관리계는 지난 3월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에 이어 '미스 사이공'을 보기 위해 두 번째로 공연장을 찾았다. 이번에 극장을 찾은 조직관리계 직원들은 윤포영 담당을 비롯해 조덕래, 박근일, 공정석, 김보경 모두 5명. 이번 공연관람을 위해 계원들이 시험감독 수당을 조금씩 모아 '미스 사이공' 입장권을 직접 예매하며 '미스 사이공' 공연을 기다렸다.

"2008년 수원 연수원에 있으면서 서울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부서가 조직관리, 정원 관리 등 딱딱한 업무만 맡다보니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순화가 필요할 것 같아 공연관람을 제안했는데 공연감상 후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정말 효과 만점이지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공연부터 관람하고 있지만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을 비롯해 시 문화 시설 순례, 엑스포 관람까지 일정에 빈틈이 없다.

조직관리계의 공연 관람 후기가 시 직원들에게 화제가 되면서 예산담당관실 등 다른 부서에도 새로운 공연관람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5월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5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로비콘서트'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축하공연, 국제크루즈관광객 환영·환송공연, 민주공원 토요일문화마당' 등에 출연,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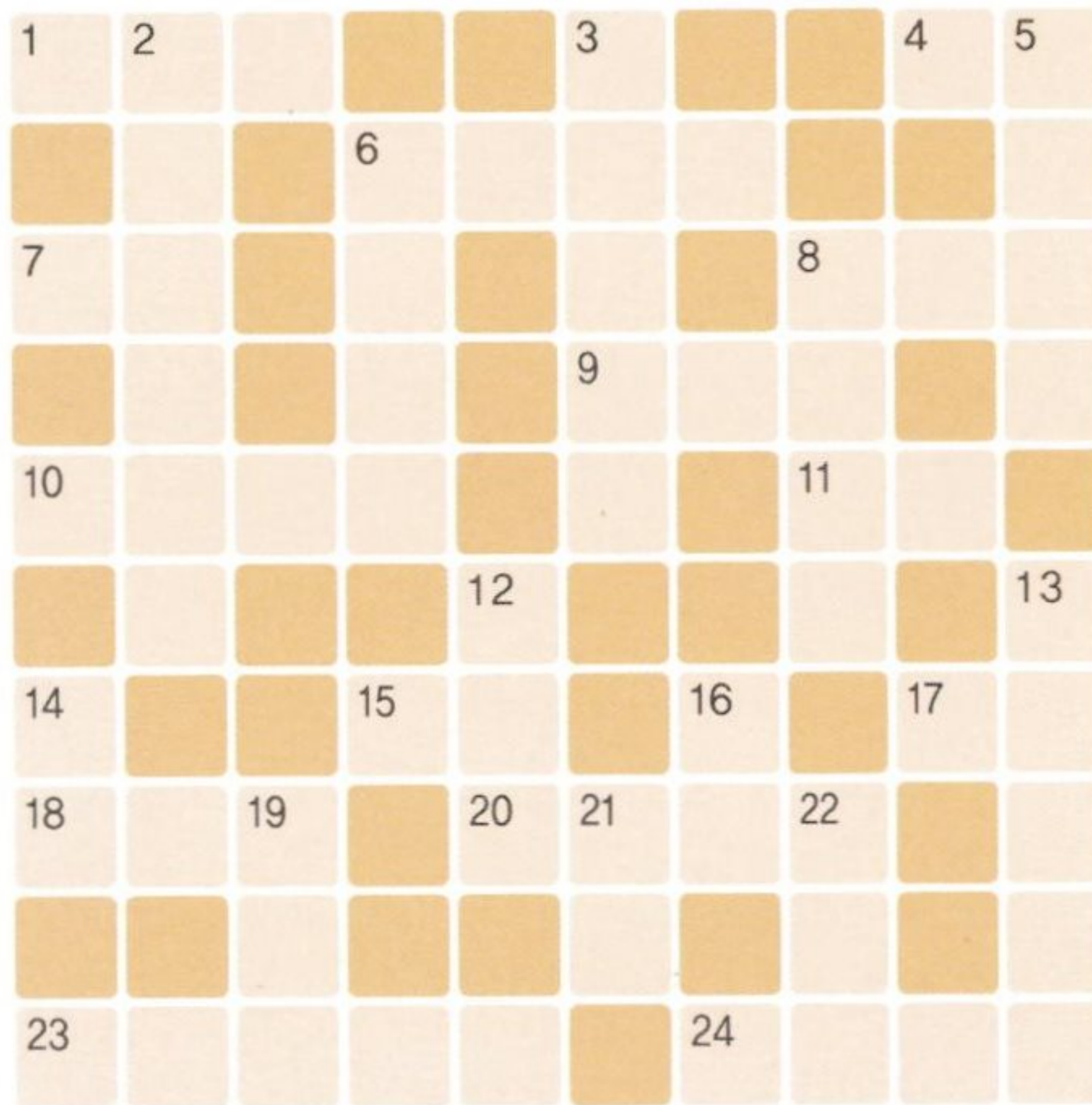
공연 일정			
5/9	12:30	시청 로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교향악단)
5/12	15:00	민주공원	민주공원 토요일문화마당(출연/국악관현악단)
5/24	11:00	시민회관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축하공연'(출연/합창단)
5/30	09:30	크루즈접안부두(영도)	'국제크루즈관광객 환영공연'(출연/교향악단)
5/30	18:00	크루즈접안부두(영도)	'국제크루즈관광객 환송공연'(출연/국악관현악단)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 5월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지역 소극장에 열리는 제9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동양의 오페라라 불리는 중국 사천지역의 대표적인 전통극인 '천국'으로, 삶의 고난을 극복해가는 기생 아사선의 지성과 남편을 향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박해일 주연의 2006년 영화. 관객 1301만명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에 등극했다.
- 에스파냐의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왕국의 궁전. 13세기에 창건되어 14세기 말에 완성되었으며, 건축이나 장식 모두 정통 이슬람 예술의 정점을 나타내는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이다.
-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방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 에스키모의 집. 얼음과 눈덩이로 둥글게 만든다.
-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미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이 유명하다.
- 입에 물고 부는 소형의 리드악기.
- 러시아의 화폐 단위. 기호는 Rub.

[세로열쇠]

- 일본 출신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1986년에 출시된 첫 번째 음반 'Reminiscence'의 수록곡 'Lake Louise'가 크게 히트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후 서정적인 음악으로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아서 힐러 감독, 라이언 오닐, 알리 맥그로우 주연의 영화. 비극적 사랑이야기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화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의 유명한 카바레로, 프렌치 칸캉이 첫선을 보인 곳이다.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
- 캐나다 서북부에 있는 미국의 49번째 주(州). 베링 해협을 사이로 시베리아와 마주 보고 있으며, 1867년 제정 러시아로부터 매입했다.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 채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올랐다가 결국 태양열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에게해에 떨어져 죽었다.

- 1971년 11월에 착공되어 1978년 4월부터 가동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가 있는 지역. 지난 3월에는 이 곳의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전원이 끊기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 고려 말기에 충신 정몽주가 지은 시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읊은 것으로,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하여 지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 독일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민간설화를 편집한 민담집의 공동저자. 이 민담집에는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빨간 모자' '백설공주' '헨젤과 그레텔' '브레멘의 음악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늘 파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팝 아티스트이자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아이콘. 4월 27일 첫 내한공연을 앞두고 18세 미만 공연관람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에 병원을 개설,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세계의 위인' '원시림의 성자'로 불린 프랑스 출신의 사료, 195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노르웨이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다수 작곡했다. 대표작으로 '페르콘트' '피아노협주곡' 등이 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 고전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는 춘향의 하녀.
-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의 불기를 큰 형장으로 치던 형벌.
-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했던 에스파냐의 건축가. 필생의 대작이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교회, 미로와 같은 구엘공원, 구엘교회 제실 등이 유명하다.
- 중앙아메리카에서 발생한 곡예 댄스. 춤을 추면서 낮게 가로놓인 막대 밑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 이탈리아 제1의 향구.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 콜럼버스, 음악가 파가니니의 출신지로 알려져 있다

지 / 난 / 호 / 정 / 답

총	선	라	호	마	니	노	프
운	이	파	라	라			
고	사	성	어	람	상	하	이
려	룡	정			전	심	
대	부		글	적	벽	대	전
장	양	철	북		해	심	
경	복	궁		개		스	
	화	알	타	미	라	핑	풍
마	술	피	리		밤	크	
임	구	에	델	바	이	스	

4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정희(북구 덕천2동)  
초대권 마원지(해운대구 좌2동)  
양영희(연제구 거제동)  
이경옥(서구 토성동)  
이성규(동래구 명장2동)

나랏소 김미진(남구 용호동)  
식사권 김주영(부산진구 초읍동)  
서성미(수영구 남천동)  
최재윤(창원시 덕산동)  
하진숙(중구 영주동)

조은극장 고영주(동래구 수안동)  
초대권 박은희(중구 중앙동4가)  
송경미(부산진구 수정동)  
정준호(사하구 하단동)  
최미숙(영도구 동삼동)

큰집 김경희(부산진구 연지동)  
식사권 김선진(동구 초량동)  
배을순(북구 화명3동)  
윤금주(부산진구 가야2동)  
이연중(영도구 청학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 May 2012 Program Guide



2012  
May 5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Exhibition Hall</b></p> <p>The 18th Grand Korea Calligraphy Exhibition - Main, Middle Exhibition Hall. 5.2(Wed)-5.5(Sat)</p> <p>The 16th Onyukdo Festival : Nam-gu Arts Exhibition - Middle Exhibition Hall. 5.6(Sun)-5.9(Wed)</p> <p>Baekyeon Exhibition - Main Exhibition Hall. 5.7(Mon)-5.13(Sun)</p>	<p>The Grand 'Chu-sa Arts' Exhibition of Korea - Main Exhibition Hall. 5.14(Mon)-5.17(Thu)</p> <p>The 32th Calligraphy Exhibition Middle Exhibition Hall. 5.18(Fri)-5.23(Wed)</p> <p>The 16th Busan Arts Festival - Main, Middle Exhibition Hall. 5.29(Tue)-6.4(Mon)</p>	<p>01</p> <p>The 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Society 19:30 10,000 / Kim Mirjung(010-6531-0307)</p> <p>Choi Younghwa Viola Recital 19:30 Younghwa(010-3564-1194)</p>	<p>02</p> <p>The 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Society 19:30 10,000 / Kim Mirjung(010-6531-0307)</p>	<p>03</p>	<p>04</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Opening Performance 'China Sichuan Province Theater-Xiu Ru Ji' 19:00 25,000/20,000/BIPAF(714-6920)</p>	<p>05</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Opening Performance 'China Sichuan Province Theater-Xiu Ru Ji' 18:00 25,000/20,000/BIPAF(714-6920)</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10 Minute Open Plays' 14:00 BIPAF(714-6920)</p>
<p>06</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Opening Performance 'China Sichuan Province Theater-Xiu Ru Ji' 18:00 25,000/20,000/BIPAF(714-6920)</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10 Minute Open Plays' 14:00 BIPAF(714-6920)</p>	<p>07</p>	<p>08</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The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20:00 15,000/10,000 / BIPAF(714-6920)</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Double Stage Theater Company 'The Road' 20:00 15,000/10,000 / BIPAF(714-6920)</p>	<p>09</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The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20:00 15,000/10,000 / BIPAF(714-6920)</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Double Stage Theater Company 'The Road' 20:00 15,000/10,000 / BIPAF(714-6920)</p>	<p>10</p>	<p>11</p> <p>The 9th BIPAF, 2012 Closing performance New Zealand-Red Leap Theatre 'The Arrival' 20:00 25,000/20,000 / BIPAF(714-6920)</p> <p>The 9th BIPAF, 2012 'The Memoir of Komachi' 20:00 30,000/20,000/15,000 Yeonhidan-geonpael(868-5955)</p> <p>The 9th BIPAF, 2012 '10 Minute Open Plays' 14:00 BIPAF(714-6920)</p>	<p>12</p> <p>The 9th BIPAF, 2012 Closing performance New Zealand-Red Leap Theatre 'The Arrival' 18:00 25,000/20,000 / BIPAF(714-6920)</p> <p>The 9th BIPAF, 2012 'The Memoir of Komachi' 18:00 30,000/20,000/15,000 Yeonhidan-geonpael(868-5955)</p> <p>The 9th BIPAF, 2012 '10 Minute Open Plays' 14:00 BIPAF(714-6920)</p>
<p>13</p> <p>The 9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2 Closing performance New Zealand-Red Leap Theatre 'The Arrival' 18:00 25,000/20,000 / BIPAF(714-6920)</p>	 <p>The Arrival</p>	<p>15</p>	<p>16</p> <p>Busan Pianist Club, The 33rd Pianist Festival 19:30 10,000/Shim Jeongyeon(010-2009-1090)</p>	<p>17</p> <p>The 66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ari Story' 19:30 10,000/7,000/5,000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607-3131-2)</p> <p>Busan Pianist Club, The 33rd Pianist Festival 19:30 10,000/Shim Jeongyeon(010-2009-1090)</p> <p>Musical Gala Concert' with Amitie Voice Research Group 19:30 Sea Jungal(010-7503-6564)</p>	<p>18</p> <p>The 66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ari Story' 19:30 10,000/7,000/5,000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607-3131-2)</p> <p>Busan Pianist Club, The 33rd Pianist Festival 19:30 10,000/Shim Jeongyeon(010-2009-1090)</p>	<p>19</p> <p>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Boys &amp; Girls Chorus 'Thanks, Teacher' 17:00 Free /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607-3161-2)</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20</p> <p>The 41st Regular Concert of Incorean Symphony Orchestra 19:30 20,000/10,000 / I.S.O(627-8088, 010-3565-8088)</p> <p>Magic Queen 'Oh Eunyoung Magic Party' 15:00 50,000/Maria Callas Hall (02-558-4588, 010-9130-2900)</p>	<p>21</p> <p>The 12nd Regular Concert of CBS Women's Choir 19:30 Free / CBS Women's Choir (200-3227, 010-3698-1910)</p> <p>Dongueui Pianist Society Grand Festival 19:30 Invitation/Kim Seonghui(019-567-8085)</p>	<p>22</p> <p>Busan Metropolitan Chorus Pop Music Concert No.8 19:30 20,000/10,000/ Busan Metropolitan Chorus(607-3141-2)</p> <p>Teacher's Day 'Love concert' of Amichi Settelle 19:30 30,000/20,000/10,000 Amichi Settelle(010-9334-6105)</p>	<p>23</p> <p>Creative Chorus 21 'Ask way to music III' 19:30 Free/Jo Hyeseon(010-8501-5117)</p>	<p>24</p> <p>The 25th Regular Concert of Busan High School of Arts 19:00 Free / Busan High School of Arts(514-1229)</p> <p>The 41st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19:30 2,00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607-3111-3)</p> <p>B.M.D.C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 / B.M.D.C(607-3131-2)</p>	<p>25</p> <p>The 479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p> <p>B.M.D.C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 / B.M.D.C(607-3131-2)</p>	<p>26</p> <p>Sorimaru Choir Regular Concert 19:30 10,000 / Kim Myeongil(010-6428-7019)</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27</p> <p>Concert Commemorating Priest Lee Taesuk - A Night for Songs and Aria 19:30 Free / Lee Taesuk Memorial Corp.(637-0125)</p>	<p>28</p> <p>Suwon Philharmonic Orchestra's 30th Anniversary Celebrating Concert in Busan 19:30 Suwon Philharmonic Orchestra(031-228-2813-6)</p> <p>The 33th Silla University Dance Department Senior Concert 18:30 Free/ Lee Uri(010-7922-1885)</p>	<p>29</p> <p>2002 Youth Arts Festival 19:00 Free/ The Music Association of Busan(634-1295)</p> <p>Tenor Choi Gwanghyun Recital 19:30 20,000/Choi Gwanghyun(010-6755-4873)</p> <p>B.M.D.C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 / B.M.D.C(607-3131-2)</p>	<p>30</p> <p>The 22nd Regular Concert of Gyeongseong Wind Orchestra 19:30 Free / Gyeongseong Wind Orchestra(663-4918, 010-4521-2076)</p> <p>B.M.D.C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 / B.M.D.C(607-3131-2)</p>	<p>31</p> <p>The 1133th MBC Thursday Concert 'The Scent of Blossoms Concert in May' 19:30 10,000/5,000/ Cultural City Network Corp. (760-1494)</p>	<p>1/06</p> <p>B.M.D.C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 / B.M.D.C(607-3131-2)</p>	



# 2012년 5월 공연일정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2012  
May 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전시일정</b></p> <p>제18회 대한민국전서예대전-대, 중전시실 5월 2일(수)-5일(토) 최연성(011-864-3698)</p> <p>제16회 오륙도축제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중전시실 5월 6일(일)-9일(수) 6일(일) 오후 2:00 오문영(010-2574-2793)</p> <p>백연전-대전시실 5월 7일(월)-13일(일) 정수옥(016-561-1351)</p>	<p>한국추사예술 전국대전-대전시실 5월 14일(월)-17일(목) 허기석(011-823-1366)</p> <p>제32회 전국서도민전-대, 중전시실 5월 19일(토)-23일(수) 정의림(010-2566-0091)</p> <p>제16회 부산회화제-대, 중전시실 5월 29일(화)-6월 4일(일) 부산미술협회(632-2400)</p>	<p>01</p> <p>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민정(010-6531-0307)</p> <p>최영희 비올라 독주회 19:30 초대/최영희(010-3564-1194)</p>	<p>02</p> <p>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4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민정(010-6531-0307)</p>	<p>03</p>	<p>04</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19: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05</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18: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10분연극제 일반부 예선 14: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06</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중국 사천성천극원 '수유기' 18: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10분연극제 일반부 예선 14: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07</p>	<p>08</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대상작 극단 바문사 '여자이야기 herstoryII -죽어서 피는 꽃' 20:00 1만 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사전제작지원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길(道)' 20:00 1만 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09</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대상작 극단 바문사 '여자이야기 herstoryII -죽어서 피는 꽃' 20:00 1만 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사전제작지원작 극단 더블스테이지 '길(道)' 20:00 1만 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10</p>	<p>11</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 'The Arrival_이방인' 20: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연희단거리패 '코마치후면' 20:00 3만원 · 2만원 · 1만5천원/연희단거리패(868-5955)</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10분연극제 전공 대학부 예선 14: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12</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 'The Arrival_이방인' 18: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자유참가작 연희단거리패 '코마치후면' 18:00 3만원 · 2만원 · 1만5천원/연희단거리패(868-5955)</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10분연극제 본선 14: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13</p> <p>2012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뉴질랜드 Red Leap Theatre 'The Arrival_이방인' 18: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714-6920)</p>	 <p>The Arrival_이방인</p>	<p>15</p>	<p>16</p> <p>부산피아노연주클럽 제33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김해옥 피아노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심정연(010-2009-1090)</p>	<p>17</p> <p>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바리-서천꽃 그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부산피아노연주클럽 제33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Debussy의 밤 19:30 균일 1만원/심정연(010-2009-1090)</p>	<p>18</p> <p>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바리-서천꽃 그늘'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부산피아노연주클럽 제33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Ensemble의 밤 19:30 균일 1만원/심정연(010-2009-1090)</p>	<p>19</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17:00 초대/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토요상설무대 '퓨전시나위 에타레'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20</p> <p>인코리아합스피노오케스트라 제41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인코리아합스피노오케스트라 (627-8088, 010-3565-8088)</p> <p>마술사 오은영 매직피티 15:00 균일 5만원/마리아칼라소홀(02-558-4588, 010-9130-2900)</p>	<p>21</p> <p>CBS 여성성가단 창단 30주년 기념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강옥주(010-3698-1910)</p> <p>제8회 동덕대학교 동문 피아니스트협회 연주회 19:30 초대/김성희(019-567-8085)</p>	<p>22</p> <p>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No.8 '물임사랑' -가요합창의 사계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아미치 세텔레 '러브 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아미치 세텔레(010-9334-6105)</p>	<p>23</p> <p>창작음악 21 제7회 작품발표회 음악의 길을 묻다III 19:30 초대/조혜선(010-8501-5117)</p>	<p>24</p> <p>부산예술고등학교 제25회 음악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29)</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1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효녀심청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25</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79회 정기연주회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효녀심청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26</p> <p>소리마루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소리마루합창단(010-9500-0981)</p> <p>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관현악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27</p> <p>부산시립 하이데션신부 추모 기념음악회 -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초대/(사)부산시립 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28</p> <p>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순회연주회-부산 19:30 수원시립교향악단(031-228-2813~6)</p> <p>제31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18:30 무료/이유리(010-7922-1885) 신라대학교(999-5301)</p>	<p>29</p> <p>제26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19:0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테너 최광현 귀국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최광현(010-6755-4873)</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효녀심청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30</p> <p>제22회 경성대학교 관악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경성대학교(663-4918, 010-4521-2076)</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효녀심청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31</p> <p>제1133회 MBC 목요음악회 '동래구립 오케스트라와 5월의 꽃향기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백원석(010-3592-9002)</p>	<p>1/06</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속 이야기' -효녀심청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우~ 후회없이 그림처럼 남아두기를

자전거 탄 풍경 中



강인봉  
(자전거)

김형섭  
(탄)

송봉주  
(풍경)

2012. 6. 8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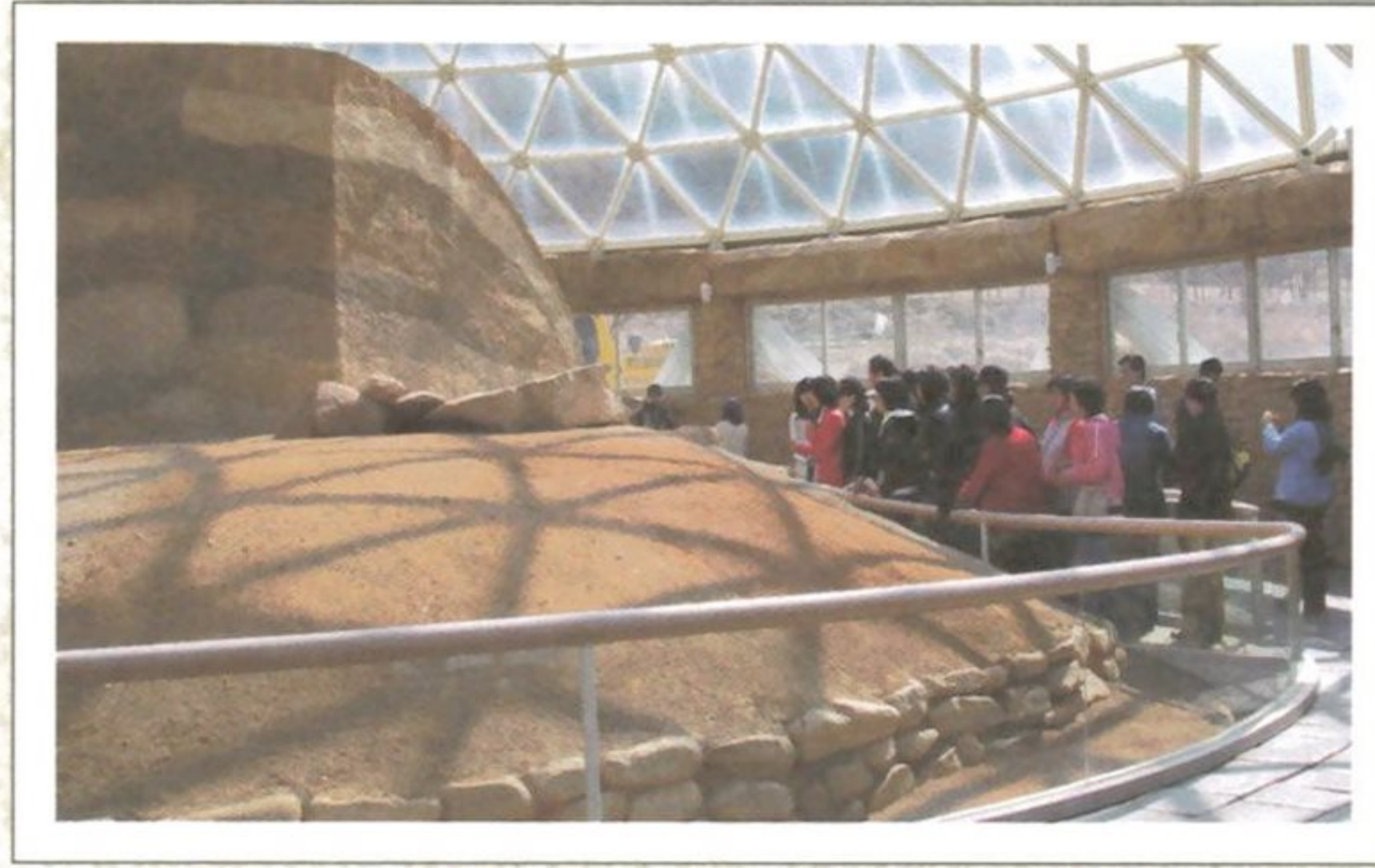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입장권\_ 전석 3만원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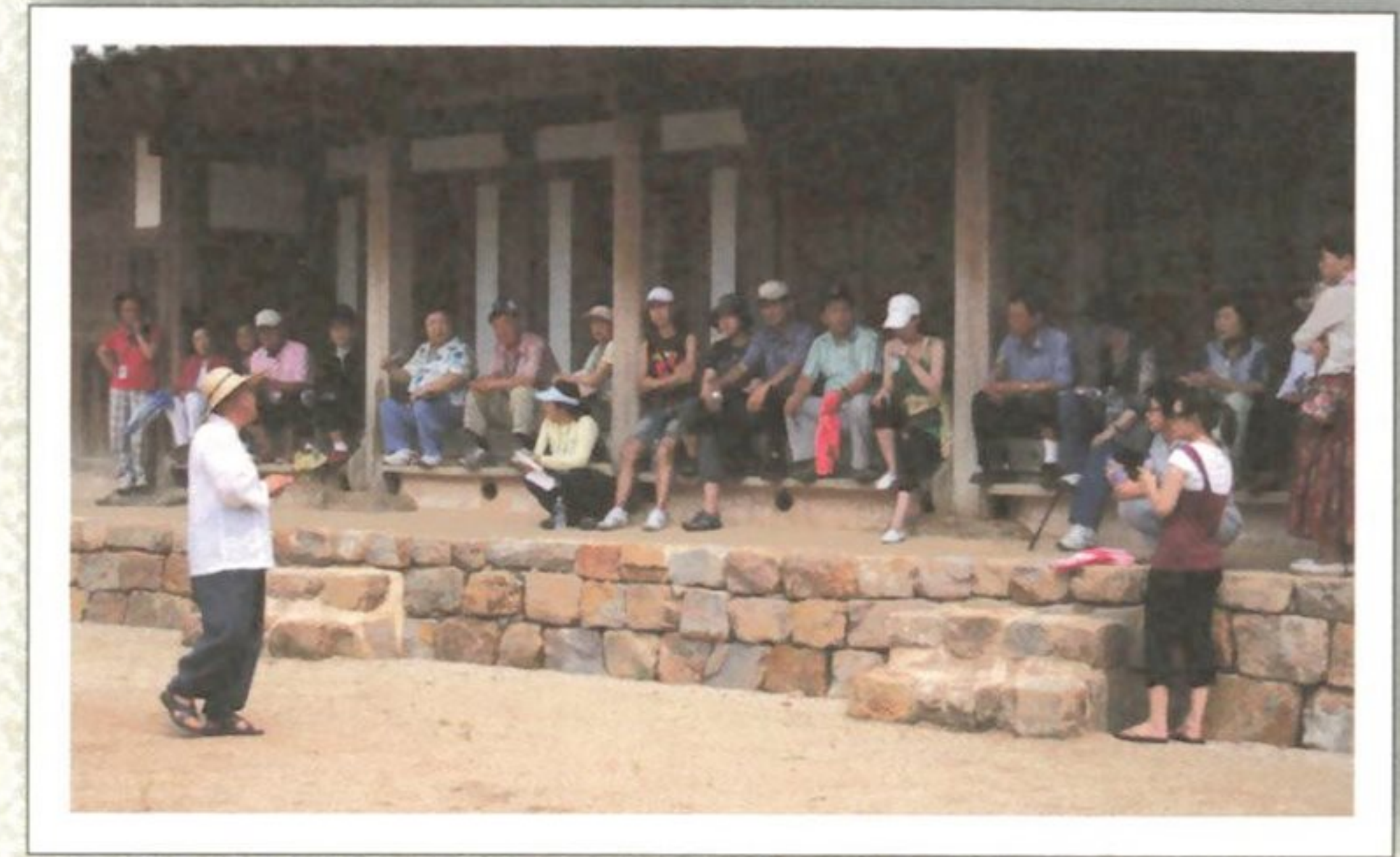


## 창녕

2012년 6월 8일(금)

1억 4천 만 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창녕 초여름 기행.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 국보 33호 창녕신라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온천·문화가 함께하는 생태문화 도시 창녕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껴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09:30 창녕도착, 창녕역사기행 - 창녕박물관, 교동고분군, 만옥정공원(신라 진흥왕척경비), 창녕석빙고, 창녕향교 등
- 12:30 중식
- 13:30 우포 가시연꽃마을 생태탐방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 청도

2012년 7월 13일(금)

세상의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던 청도 선인들의 지혜와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청도 고택투어. 조선시대 양반가의 대 저택인 운강고택을 비롯해 조선시대 궁중내시(宮中內侍) 김일준이 낙향 후 지은 임당리 고택, 아름다운 정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삼족대에서 싱그러운 여름을 즐겨본다.

-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자두 따기 체험
- 12:00 중식
- 13:00 청도 고택 탐방-운강고택, 임당고택, 삼족대, 유호연지, 군자정 등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May Vol.245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10%  
Discount

MOZART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10%  
Discount

센텀점  
흥시동기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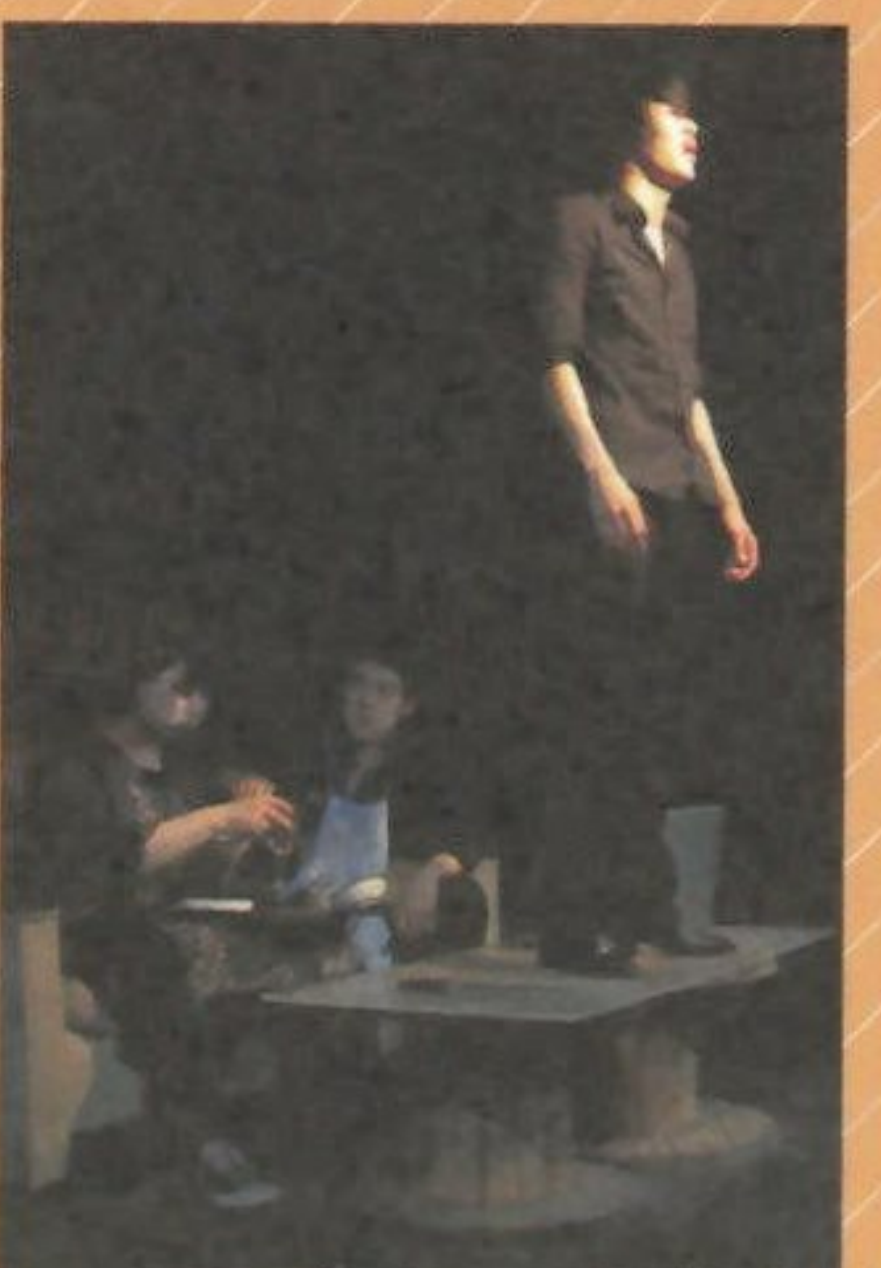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20%  
Discount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20%  
Discount

연극  
2012  
죽여주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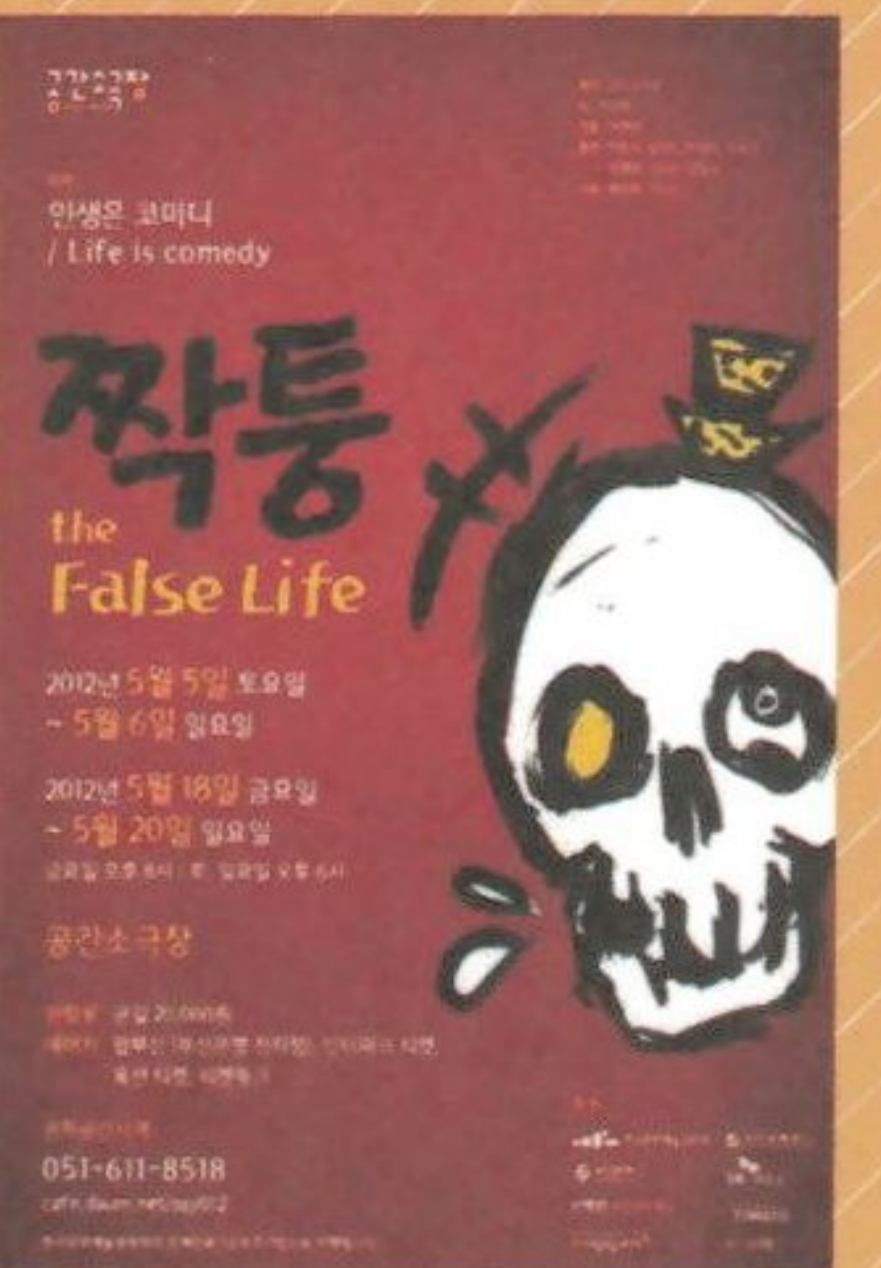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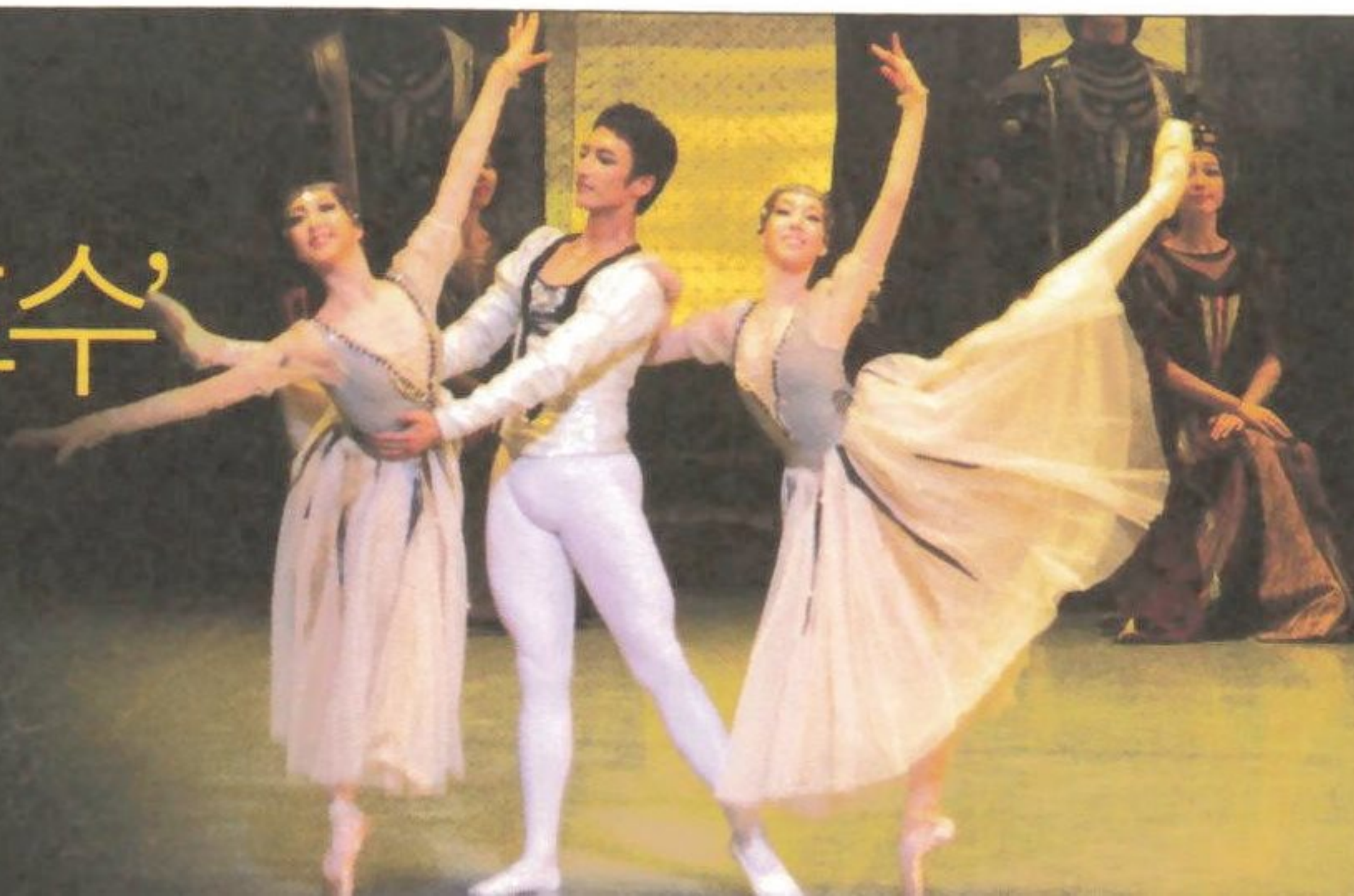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2012. 7.13(금) 오후 7:30

7.14(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30%  
Discount

공간 아트 컴퍼니  
작통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2012.4.20(금)-5.20(일)  
평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4시, 7시, 9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죽여주는 이야기**

2012.4.20(금)-7.22(일) 화-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5시,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9시  
일,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짜퉁**

2012.5.5(토)-5.6(일) 오후 6시  
5.18(금) 오후 8시, 5.19(토)-5.20(일) 오후 6시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6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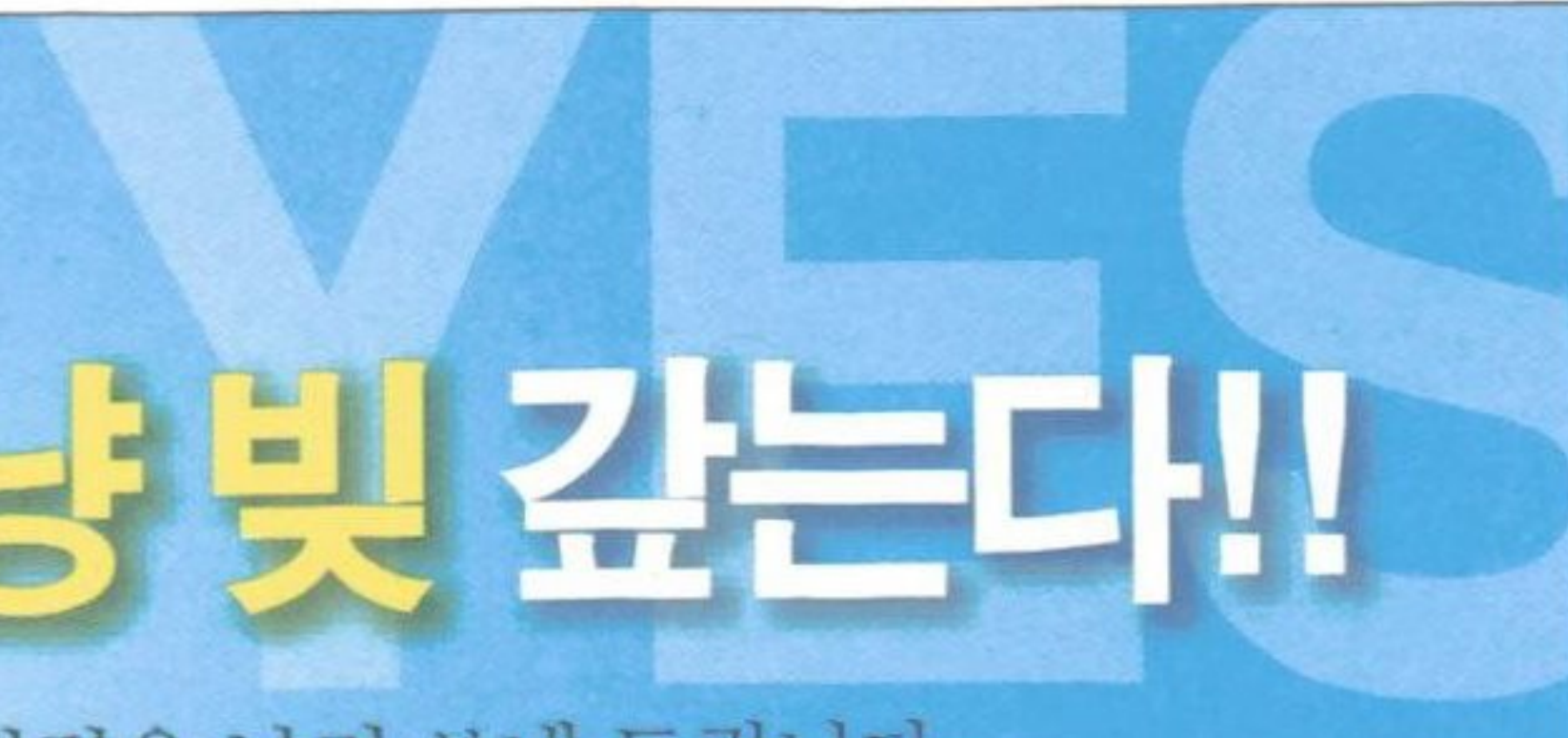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 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모집부문

2013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에 출연할  
 객원 지휘자, 협연자 및 연주될 창작곡  
 ▷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후 연주 일정 불가시 익년으로 연기할 수 있음.

## 자 격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 출신의 음악인 (나이제한 없음)

## 심사방법

- ▶ 지휘자 및 협연자
  - 1차-서류 및 자료심사      · 2차-실기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해 전형일 통지
- ▶ 작곡가(창작곡 심사)
  -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 10분 내외의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총보 및 파트보) 제출
  - 선정된 작품 연주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 제출서류

- ▶ 공통
    -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 콩쿠르 입상 증명 서류 사본 ▷ 해당자
  - ▶ 지휘자 및 협연자
    - 연주실황 DVD(없을 경우 CD) 1매 ▷ 프로그램 첨부 要
  - ▶ 작곡가
    - 창작곡(지휘자용 총보) 1부 ▷ 데모 CD(음원) 첨부 要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 지휘자 및 협연자 - 2012. 5. 21(월)~5. 31(목) 17:00까지 도착분
- ▶ 작곡가(창작곡) - 2012. 9. 17(월)~9. 21(금) 17:00까지 도착분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장소**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

**발 표** 심사 후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607-3111~3





지휘. 박광하



해설. 오동주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No.8

# 가요합창의 사계(四季)

## 풀잎사랑



2012. 5. 22 | 화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수. 최성수

